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나타난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

-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

Rise and Fall of the Seoul Public Cemeteries in the Modern Urban Planning Process

2021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이 의 성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나타난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

-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최 춘 웅

이 논문을 도시계획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0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도시설계학

이 의 성

이의성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02월

위 원 장 조 경 진 (인)

부위원장 최 춘 웅 (인)

위 원 조 상 인 (인)

국문초록

죽음은 개인과 사회 성립의 뿌리이고, 죽음의 공간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대면하는 장소로 망자에 대한 기억을 조직한다. 이 공간은 문명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간의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죽음의 공간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태도를 읽어낼 수 있는 키워드가 된다. 전근대사회에서 묘지는 종교권력과 결합하여 도시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즉, 전근대도시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조화롭게 공존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19세기 산업화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고 인구가 급증하면서 도시는 주택난, 삶의 질 악화 등 문제의 온상지가 되었다. 특히 집단묘지가 전염병의 근원지로 지적되면서 근대도시는 묘지와 새로운 관계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권력과 결합한 교회묘지 다수가 폐지되었고, 근대적 죽음의 공간인 공동묘지가 발명되었다. 공동묘지의 출현은 죽음의 공간이 국가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전환됨을 의미하였다. 근대화 초기 공동묘지의 위치는 주로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하며 전근대도시와 다른 관계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근대화가 진행되며 도시가 확장되었고,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공동묘지는 도시 내로 편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근대도시는 공동묘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하는 대신에 각자의 방식으로 도시와 묘지 관계를 형성하였다. 파리의 묘지는 정원묘지로 역사 · 예술의 보고로 자리 잡으며 문화공간을 형성하였고, 보스턴의 묘지는 공원묘지로 신설되며 도시인들의 공공공간으로 자리 잡았고, 동경의 묘지는 도시 구조 내에 편입되며 생활가로 및 도시정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망우리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묘지가 모두 폐지되었고, 산 자와 죽은 자

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지금까지 서울은 죽음의 공간이 부재한 도시로 유지되고 있다.

직관적으로 공동묘지의 폐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은 밀집하고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해외 근대도시는 다수의 묘지가 폐지되었고, 일부 공동묘지만 도시 내에 유지되며 전근대사회와 다른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망우리묘지를 제외하고 도시 내 공동묘지가 모두 폐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여러 근대도시에서 나타난 일반적인 현상으로 서울 공동묘지 부재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서울 공동묘지는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사라지게 되었나?"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서울 공동묘지의 탄생 및 소멸 과정을 분석하여 공동묘지 폐지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즉, 공동묘지의 명멸(明滅)을 분석하여 여러 근대도시와 다른 서울 근대화 과정의 특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묘지규칙이 공포된 1912년부터 마지막으로 폐지된 공동묘지인 신사리묘지가 사라진 197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공동묘지가 사라지고 조성된 공간도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시기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3개의 공동묘지가 위치한 경성부와 관할 주변지역인 경성오부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4장에서는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고, 5장에서 23개의 공동묘지 중 10개의 공동묘지 공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10개 공동묘지 선정은 각 시기별로 면적이 크고 분묘수가 많은 공동묘지 두 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6장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였는데, 근대도시의 일반적 경황과 더불어 서울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일반적 경향은 첫 번째, 도시계획에 의하여 공동묘지가 폐지되었다. 공간 생산의 과정에서 공동묘지의 존폐가 도시계획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경성과 서울의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된 공동묘지가 차례로 폐지되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1920년대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동서지역, 1930-1940년대 경성시가지계획구역인 서남부지역,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1960년대 서부개발로 인한 북부지역의 공동묘지가 폐지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시 내 공동묘지는 폐지되었고, 공동묘지가 항상 도시 외곽지역에 위치한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 공동묘지 탄생과 소멸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권역별 배치가 시행되었다. 공동묘지 폐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묘지계획을 통해 총 면적과 권역별 배치를 유지하는 새로운 공동묘지가 도시 외곽지역에 신설되었다. 현대 도시계획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권역별 배치기조가 유지된 것이다. 세 번째, 1940년대 · 1960년대에 폐지된 공동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을 통해 일반주택지가 형성되었다. 도시화로 인해 나타난 인구밀집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묘지가 폐지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주택지가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결과는 근대도시에서 묘지가 폐지되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서울의 특수성을 발견하였다. 첫 번째, 혼란기에 묘지계획의 부재로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 기조가 해체되기 시작하였다. 광복, 한국전쟁, 4 · 19혁명과 5 · 16군사정변을 거치며 서울 행정은 마비되었고 묘지계획을 세울 여력이 없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다수의 공동묘지가 폐지되면서 서울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 기조가 해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두 번째, 1930년대 · 1950년대에 폐지된 공동묘지 공간은 고급주택지와 빈

민주택지가 형성되었다. 이는 도시화로 인해 생산된 일반주택지과 다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고급주택지는 일제시기에 일본인을 위한 도시계획을 통해 형성되었는데, 권력집단을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공동묘지가 활용된 것이다. 또한 빈민주택지도 한국전쟁을 통해 도시빈민으로 나타난 전재민, 피난민들이 공동묘지 위에 판잣집을 지으며 형성되었다. 이후 서울시는 토지를 불하하는 방식으로 이들을 수용하였고, 공동묘지는 빈민주택지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공동묘지 폐지는 여러 근대도시에서 일반적 경향과 달리 일제시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서울의 독특한 도시사로 이해되어야 한다.

서울 공동묘지 폐지의 일반적 경향과 특수성은 도시 형태라는 유산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일반주택지는 계획도시로 격자형 도시 형태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당시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좁은 필지와 도로 폭으로 도시가 계획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신사리묘지를 제외한 세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선정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되었다. 고급주택지가 위치한 한남동과 신당동 · 청구동은 넓은 필지와 격자형 도시 형태를 형성하여 그 모습이 유지되고 있고, 지금까지 서울의 부촌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빈민주택지는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로서 유기적인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저층 고밀의 주거단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근대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공동묘지 공간은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지로 전환되면서 도시 형태라는 유산으로 남아있고, 그 영향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 현상은 독특한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이자 서울 도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즉 근대화 · 도시화 과정에서 일반적 경향에 따라 공동묘지의 폐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측면과 함께, 식민지와 한국전

쟁이라는 서울의 특수성이 현재 공동묘지 부재현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반복적인 공동묘지 폐지로 인하여 서울은 산 자와 죽은 자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죽음의 공간이 혐오시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서울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매체로 공동묘지를 설정하고, 공동묘지의 폐지과정과 공간의 변화를 추적하여 공동묘지가 서울의 도시화에 어떠한 구성력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근대적 공간인 공동묘지라는 렌즈를 통해 서울의 독특한 근대화 과정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각을 검토하고, 공동묘지의 폐지가 도시화에 의한 일방적 결과라는 결정론적 해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근대사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묘지계획이 공동묘지의 명멸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서울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묘지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즉, 죽음의 공간 가치를 재조명하고,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도시의 가치를 역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을 정립하고,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나가는데 기틀을 형성함에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주요어 : 공동묘지, 죽음의 공간, 도시화, 근대화, 묘지계획, 도시계획

학 번 : 2019-26614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4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6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6

2. 연구의 내용 ····· 8

3. 연구의 방법과 자료 ····· 10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 11

1. 국내 · 외 연구 동향 ····· 11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 14

제 2 장 근대도시와 공동묘지 ····· 16

제 1 절 공동묘지의 개념과 분류 ····· 16

1. 일반묘지의 역사 ····· 16

2. 공동묘지의 개념 ····· 18

3. 공동묘지의 분류 ····· 20

제 2 절 근대도시와 공동묘지 해외사례 ····· 21

1. 파리 공동묘지 ····· 22

2. 보스턴 공동묘지 ····· 28

3. 동경 공동묘지 ····· 31

제 3 절 소결 ····· 35

제 3 장 도시계획의 역사 ····· 37

제 1 절 경성의 도시계획 ····· 37
1. 대경성 이전(1912-1933) ····· 37
2. 대경성 이후(1934-1944) ····· 40
제 2 절 서울의 도시계획 ····· 43
1. 산업화 이전(1945-1961) ····· 43
2. 산업화 이후(1962-1970) ····· 45
제 3 절 소결 ····· 47

제 4 장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 ····· 50
제 1 절 일제시기 ····· 50
1. 형성기(1912 - 1920) ····· 50
2. 정비기(1921 - 1933) ····· 53
3. 계획기(1934 - 1939) ····· 57
4. 통제기(1940 - 1944) ····· 61
제 2 절 대한민국 정부시기 ····· 64
1. 혼란기(1945 - 1961) ····· 64
2. 전환기(1962 - 1970) ····· 69
제 3 절 소결 ····· 71

제 5 장 공동묘지 공간의 변화 ····· 76
제 1 절 일제시기 ····· 76
1. 정비기(1921 - 1933) ····· 76
2. 계획기(1934 - 1939) ····· 83
3. 통제기(1940 - 1944) ····· 90
제 2 절 대한민국 정부시기 ····· 94
1. 혼란기(1945 - 1961) ····· 94
2. 전환기(1962 - 1970) ····· 100

제 3 절 소결 ····· 105

제 6 장 공동묘지 변화의 결과 및 고찰 ····· 108
제 1 절 서울 공동묘지 변화의 일반적 경향 ····· 109
1. 도시계획을 통한 공동묘지 폐지 ····· 109
2. 묘지계획을 통한 공동묘지 권역별 배치 ····· 110
3. 일반주택지 형성 ····· 112
제 2 절 서울 공동묘지 변화의 특수성 ····· 115
1. 묘지계획 부재로 인한 공동묘지 권역별 배치 해체 ···· 115
2. 고급주택지 및 빈민주택지 형성 ····· 116
제 3 절 소결 ····· 121

제 7 장 종합 결론 ····· 123
제 1 절 연구의 결론 ····· 123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 125

참고문헌 ····· 128
Abstract ····· 133

표 목 차

[표 1-1] 1913년 공동묘지 위치와 사용지역 ····· 7
[표 1-2] 경성부 추가 신설 공동묘지 위치와 사용지역 ·· 7
[표 1-3] 공동묘지 관련 선행연구 목록 ····· 12
[표 2-1] 묘지 유형 분류 ····· 20
[표 3-1] 도시계획 변천 ····· 49
[표 4-1]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 ····· 74
[표 4-2] 공동묘지 현황 자료 ····· 75
[표 5-1] 신당리묘지 공간 변화 ····· 80
[표 5-2] 아현리묘지 공간 변화 ····· 83
[표 5-3] 한남 토지구획정리지구 면적 ····· 85
[표 5-4] 이태원제1묘지 공간 변화 ····· 87
[표 5-5] 대현 토지구획정리지구 면적 ····· 89
[표 5-6] 염리묘지 공간 변화 ····· 90
[표 5-7] 동교리제1 · 2묘지 공간 변화 ····· 91
[표 5-8] 연희묘지 공간 변화 ····· 93
[표 5-9] 이태원제2묘지 공간 변화 ····· 96
[표 5-10] 미아리제2묘지 공간 변화 ····· 99
[표 5-11] 남가좌동묘지 공간 변화 ····· 102
[표 5-12] 역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면적 ····· 103
[표 5-13] 신사리묘지 공간 변화 ····· 104
[표 5-14] 공동묘지 공간 형성 ····· 107
[표 6-1] 공동묘지 변화 정리 ····· 108
[표 6-2] 일반주택지 ····· 112
[표 6-3] 일반주택지 도시형태 ····· 114
[표 6-4] 일제시기·대한민국 정부기의 묘지계획 차이 ····· 116

[표 6-5] 고급주택지 및 빈민주택지 ····· 116
[표 6-6] 고급주택지 도시형태 ····· 118
[표 6-7] 빈민주택지 도시형태 ····· 119

그 림 목 차

[그림 1-1] 사산금표도 ····· 3
[그림 1-2] 수도권 도시화 비율과 공동·공설묘지 관계 ··· 5
[그림 1-3] 1914년 경성오부전도 ····· 8
[그림 2-1] 글래스고 네크로폴리스 ····· 18
[그림 2-2] 경주 왕릉 ····· 18
[그림 2-3] 17세기 파리 묘지분포도 ····· 23
[그림 2-4] 파리 공동묘지 현황과 배치 ····· 24
[그림 2-5] 1813년 페르 라쉐즈묘지 도면 ····· 26
[그림 2-6] 1937년 페르 라쉐즈묘지 도면 ····· 26
[그림 2-7] 페르 라쉐즈묘지 ····· 27
[그림 2-8] 페르 라쉐즈묘지 ····· 27
[그림 2-9] 마운트 어번묘지 도면 ····· 30
[그림 2-10] 마운트 어번묘지 ····· 31
[그림 2-11] 마운트 어번묘지 ····· 31
[그림 2-12] 아오야마영원 도면 ····· 34
[그림 2-13] 아오야마영원 ····· 35
[그림 2-14] 아오야마영원 전경 ····· 35
[그림 3-1] 1902년 한성부지도 ····· 37
[그림 3-2]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 38
[그림 3-3] 1929년 조선박람회도회 ····· 39

[그림 3-4] 경성시가지계획 평면도 ····· 40
[그림 3-5] 1940년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안 ····· 43
[그림 3-6] 1950년대 도시계획사업 ····· 44
[그림 3-7] 1963년 부도심 세력권 ····· 45
[그림 3-8] 1966년 기본구조계획 ····· 46
[그림 4-1] 1914년 경성부 공동묘지 위치 ····· 52
[그림 4-2] 공동묘지 정리계획 ····· 53
[그림 4-3] 공동묘지증설 ····· 54
[그림 4-4] 아현리묘지 도면 ····· 55
[그림 4-5] 망우리묘지 도면 ····· 56
[그림 4-6] 1941년 경성부 공동묘지 위치도 ····· 57
[그림 4-7] 방사형묘지계획 5개 공동묘지 위치 ····· 58
[그림 4-8] 신림리묘지 도면 ····· 59
[그림 4-9] 언주면묘지 도면 ····· 59
[그림 4-10] 염리묘지 도면 ····· 60
[그림 4-11] 경성부 묘지통제계획 ····· 62
[그림 4-12] 동교리묘지 도면 ····· 63
[그림 4-13] 이태원제2묘지 도면 ····· 66
[그림 4-14] 사라질 미아리공동묘지 ····· 67
[그림 4-15] 이문리묘지 도면 ····· 68
[그림 4-16] 이것이 서울이다 共同墓地 ····· 69
[그림 4-17] 신사리묘지내 분묘이장공고 ····· 70
[그림 4-18] 공동묘지 폐지 시기 ····· 74
[그림 5-1] 1907년 신당리묘지 ····· 76
[그림 5-2] 1909년 신당리묘지 ····· 76
[그림 5-3] 무학정주택지 ····· 78
[그림 5-4] 장충단주택지 평면도 ····· 79

[그림 5-5] 앵구주택지 분양안내도 ····· 79
[그림 5-6] 일제시기 경성도로도 ····· 81
[그림 5-7] 아현리묘지 지역 ····· 82
[그림 5-8] 1937년 남산주회도로 ····· 84
[그림 5-9] 한남 토지구획정리지구 평면도 ····· 85
[그림 5-10] 이태원제1묘지 지역 ····· 86
[그림 5-11] 대현 토지구획정리지구 평면도 ····· 88
[그림 5-12] 염리묘지 지역 ····· 89
[그림 5-13] 6.25동란 마포지역 작전상황도 ····· 92
[그림 5-14] 1962년 이태원제2묘지 지역 ····· 95
[그림 5-15] 1964년 이태원제2묘지 지역 ····· 95
[그림 5-16] 이태원제2묘지 지역 ····· 96
[그림 5-17] 1958년 미아리공동묘지 ····· 98
[그림 5-18] 미아리 난민정착지 ····· 98
[그림 5-19] 1959년 미아리 위생시설 조사도 ····· 99
[그림 5-20] 무연묘지위에 집짓는 사람들 ····· 101
[그림 5-21] 교외로 뻗어가는 주택가 ····· 101
[그림 5-22] 역촌 토지구획정리지구 ····· 104
[그림 6-1] 공동묘지 폐지 순서 ····· 109
[그림 6-2] 공동묘지의 시기별 변천과정 ····· 111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인간은 죽음과 따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 살아가면서 죽고 죽으면서 살아가는 게 다름 아닌 인간적 삶의 양상이다.”[1] 죽음은 삶의 최후에 발생하는 단발성의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 항상 삶과 긴장을 유지한다. 인간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When there’s no one left in the living world who remembers you, you disappear from this world.”[2]라는 영화 『코코』의 대사처럼 죽음이라는 공동의 기억은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누군가의 죽음을 공유하고 기억하는 행위가 공동체 형성의 본질인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죽음을 경험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특히 대다수의 종교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또 다른 모습으로 이행하기 위한 자연스런 과정으로 여긴다. 하지만 모든 죽음이 반드시 생전에 기원하던 사후세계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현세의 삶이 사후세계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즉 삶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이 둘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물론 종교적 가르침을 온전하게 실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죽음 이후를 보장하는 ‘죽음 의례’를 수행한다. 공통적으로 죽음 의례는 산 자가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한 것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죽음 의례 속에는 ‘공동체 구성원의 죽음에 대

1) 김열규, 2001,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궁리출판, p.13
2)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 널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면, 넌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야”, 『Coco』,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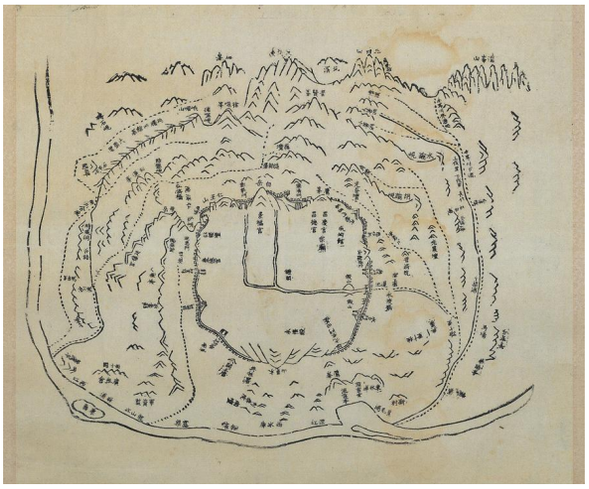
한 인식과 태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투영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는 특정한 의미와 목적이 담겨져 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인간은 죽음을 삶이 끝나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자 또 다른 삶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탈로 칼비노는 『보이지 않는 도시들』에서 *“모든 도시는 라우도미아처럼, 똑같은 이름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다른 도시들 곁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라우도미아, 즉 묘지입니다.”* [1] 라고 서술하였다. 즉, 삶과 죽음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산 자의 공간인 도시와 죽은 자의 공간인 묘지는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죽음의 의례가 진행되는 공간과 죽은 자가 영면하는 공간을 통해 사자(死者)는 사회로부터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 내에서 산 사람과는 다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2]

조선시대에는 육전에 상장(喪葬)에 대한 예가 실려있는데, 무덤에 관한 제도는 없고 분묘 구역을 정하고 그 안에서 짐승을 기르거나 땅을 일구는 일을 금지하는 정도였다.[3] 또한 풍수의 영향으로 묘지는 주로 산야에 산재해 있었고,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선산과 북망산으로 매장의 위치가 나뉘었다. 조선시대 명문가 또는 부유층은 선산에 묘지를 매장하였지만, 선산을 소유할 수 없는 평민들은 마을 주변 공산(公山)에 집단으로 매장하였다. 이는 ‘북망산(北邙山)’ 또는 ‘집장지’로 불리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자를 함께 묻는 공간이었다. 하지만 북망산은 악질로 죽었을 때, 전쟁으로 인해 죽었을 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매장을 금지하는 등 마을 공동체의 암묵적 동의에 의해 유지되었다.[4] 공동의 규칙을 통해 북망산은 죽은 자들의 공간임과 동시에 마을 공동체가 자발적인 공동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는 장소였던 것이다. 물론 일제시기 이전까지 어떤 문헌이나 선행연구에서도 국가가 운영·관리하는 공동묘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무 땅에나 북망산을 형성할 수 있는

1) 이탈로 칼비노, 이현경 옮김, 2007, 『보이지 않는 도시들』, 민음사, p.177
2) 다카무라 료헤이, 200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 : 191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15), p.131
3) 이숙미 · 오충현, 2008, 「일제 강점기 서울지역 장묘시설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32, 재인용
4) 다카무라 료헤이, 앞의 논문, p.134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는 매장을 할 수 없는 영역인 금산(禁山)이 있었다.

> *조선시대 서울에는 건축행위나 경작, 매장이 금지된 지역이 있었다. … 이 지역은 '금산(禁山)' '사산(四山)' 등으로 불렸는데, 시대에 따라 그 범위도 확장되었다. 18세기에는 '성저십리(城底十里)'와 비슷한 범위로서 아래와 같다.*[1]



[그림 1-1] 사산금표도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러나 18세기 이후 성저십리 지역에 매장되는 묘가 암암리에 늘어났다. 도성 안에는 여전히 금장지로서 유지되었지만, 도성 밖의 땅 중 좋은 자리에 위치한 땅은 묘지로 덮이기 시작한 것이다. 도성 주변 광희문 밖 신당동, 서소문 밖의 애오개에서 와우산 일대 등에 자연스럽게 북망산이 형성되었다.[2] 뿐만 아니라 도성 밖 산과 구릉지 상당부분이 인근 백성들의 묘지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한일합병 이후 총독부는 1912년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취체규칙』(이하 묘지규칙)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성문화 하며 묘지를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묘지규칙 공표 이후 1913년 9월에 총독부는 경성부 관할 주변지역에 19개의 공동묘지가 탄생하였다. 다시 말해 20세기 초 조선총독부가 통제 및 관리하는 근대적 죽음의 공간인 공동묘지가 신설된 것이다.

죽음에 대한 기억은 개인과 사회 성립의 뿌리이고, 죽은 자들에 대한 기억을 조직하는 죽음의 공간은 산 자와 죽은 자가 대면하는 장소가 되었다.[3] 이러한 죽음의 공간은 시대와 문명의 변화에 발맞춰 인간 생

---

1) 다카무라 료헤이, 앞의 논문, p.132 재인용
2) 박태호, 2003, 「서울 葬墓施設 100年史」,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p.34

활환경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왔다. 따라서 죽음의 공간은 당대의 사회문화적 태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체이다.

2. 연구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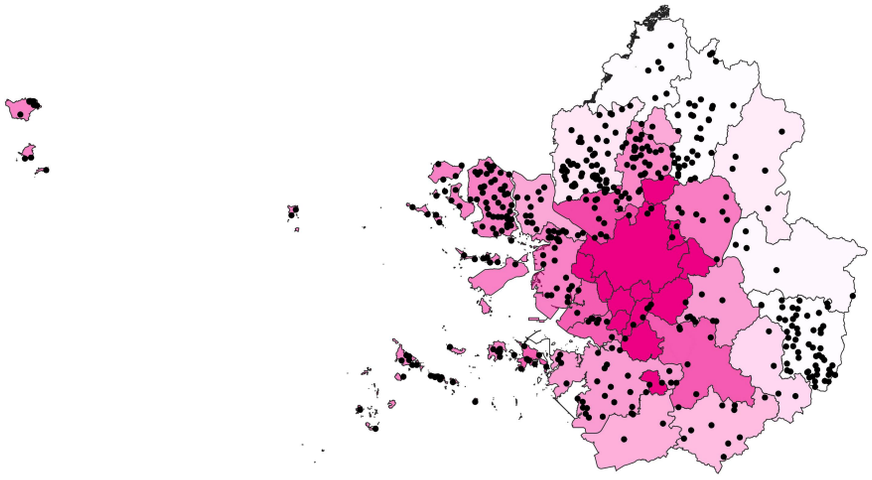
근대화를 겪으며 전통적인 모습과 달리 새로운 생활조건을 형성하였고, 정치 · 경제 · 사회 · 도시 등 다방면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었다.[1]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로 밀려들어왔고, 그 여파로 도시의 인구 과밀, 주택 부족, 주거 환경 악화 등의 도시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전근대사회의 집단묘지는 도시 내에서 질적인 향상 없이 양적인 팽창을 거듭하면서 중요한 도시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사망자의 증가로 인해 수많은 묘지가 도시 내에 신설되며 도시민들의 건강 및 위생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다.[2] 이에 따라 죽음의 공간인 묘지는 산 자의 공간인 도시와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해졌다.

위생문제가 대두되며 근대도시 형성 이후 집단묘지의 관리 및 운영주체는 종교나 마을공동체에서 국가로 이전되었다. 죽음의 공간이 사자를 기억하는 공간에서 국가의 관리를 통해 시체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또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근대도시는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공동묘지를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는 도시 내 집단묘지를 폐지하고, 도시 외곽에 공동묘지를 신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은경은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는 '도시화' 경향에 따라 인구는 증가하지만,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이 오히려 줄어들며 묘지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서술하였다.[3] 다시 말해, 초기 도시화 과정에서 공동묘지의 외곽화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

3) 다카무라 료헤이, 앞의 논문, p.131
1) 황주영, 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41
2) 김태복, 1992. 『도시와 묘지』, 근화 p.162
3) 이은경 2014, 「근대 일본 공원묘지의 탄생」, 동양사학연구 127, p.341

다. 이후 지속적인 근대화로 인하여 도시가 확장되었지만, 외곽에 위치한 일부 공동묘지가 유지되며 도시 내부로 편입되었다. 따라서 근대도시 내에 공동묘지가 위치하며 전근대도시와 다른 방식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림 1-2] 수도권 도시화 비율과 공동 · 공설묘지 관계

한편, 서울 죽음의 공간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도시 내 공동묘지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해외 근대도시와 달리 서울 죽음의 공간은 도시 내에 편입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도시 외곽으로 밀려난 것이다. 일제시기에 신설되었던 공동묘지는 도시의 대표적인 죽음의 공간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재 서울 내에서 망우리묘지를 제외하면 죽음을 마주하는 공간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상례를 지내는 공간은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전환되며 도시 내로 편입된 반면, 장례를 지내는 공동묘지는 도시 내에 부재한 상황이다. 유교적 전통을 가진 민족에게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는 일이 일생일대의 중요한 과업이라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도시 내 공동묘지의 부재는 아이러니하다. 이는 근대도시의 공동묘지 폐지에 관한 일반적 경향으로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 공동묘지 부재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아가 해외 근대도시와 다른 서울 근대화 과

정의 특이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연구 질문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핵심 질문이다.

- 서울 공동묘지는 어떠한 과정을 겪으며 폐지되었나?
- 해외 근대도시와 다른 서울 근대화 과정의 독특한 현상은 무엇인가?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대상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도시 공간 변화의 중요한 축이자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으로 공동묘지를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12년 묘지규칙을 공포한 이후 경성부에 공동묘지가 최초로 등장하였다. 묘지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인 1913년 1월부터 후보지 선정이 시작되었고, 9월 묘지규칙 시행과 더불어 경성부 관할 지역(구 한성부)의 공동묘지 19개(동일지역 3개소)가 선정되었다.[1] 경성부 관할 지역에는 공동묘지로 선정되지 않은 북망산이 다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공동묘지 선정 이후에 경성부는 1914년 이태원 모범묘지, 1929년 홍제묘지, 1930년 미아리제2묘지, 1933년 망우리묘지를 추가로 신설하였다.[2] 이후 경성부 관영 공동묘지는 더 이상 신설되지 않았고,[3] 공동묘지는 폐지되거나 도시 외곽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1) 「京城府內 공동묘지 사용지역」, 매일신보, 1913.9.7.
2) 「模範墓地 설치」, 매일신보, 1914.12.10. ; 「共同墓地候補地는 弘濟內里로 決定」, 동아일보, 1927.8.21. ; 「彌阿里共同墓地開始 작일부터 묘지로 취급을 개시」, 동아일보, 1930.5.20. ; 「府民의 共同墓地 忘憂里로 決定」, 매일신보, 1933.2.2.
3) 1939년 신림리묘지, 언주면묘지가 추가로 신설되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일제의 초기 의도에 부합한 공동묘지가 완공되지 못하였다. 기존 계획의 일부에 해당하는 토지 매입과 묘지 이장정도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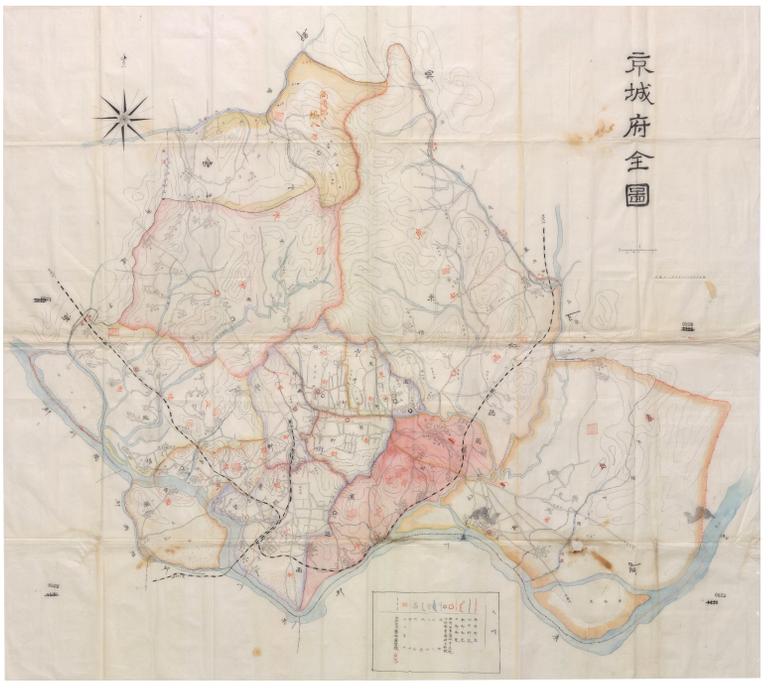
겪었다. (표 1-1, 표1-2 참조)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총 23개의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1-1] 1913년 공동묘지 위치와 사용지역
(6,9번 묘지는 내지인묘지, 나머지 묘지는 조선인묘지)

	묘지이름	위치	사용지역
1	미아리묘지	숭인면 미아리	숭인면 일원
2	미아리묘지	숭인면 미아리	경성오부
3	이문묘지	인창면 이문동	안창면 일원
4	-	두모면 장내리	두모면 장내리, 독도면 목리
5	수철리묘지	두모면 수철리	경성오부
6	신당리묘지	남부 명철방 수구문외	경성거류민단 관할 일원
7	이태원묘지	한지면 한강	두모면 수철리, 두모포 대현동, 신촌, 진팔리, 왕십리, 남부
8	이태원묘지	한지면 이태원 장문동	한지면
9	아현리묘지	서부 판석방 우리 봉학	경성거류민단 관할 일원
10	염리묘지	용산면 염동 쌍용정	용산면 일원
11	-	연기면 여의도	여의도 율도
12	-	연기면 여의도 도양촌	여의도, 양촌, 소양촌
13	동교리묘지	연기면 세교리	연기면 일원
14	동교리묘지	연기면 세교리 철봉	서강면 일원
15	연희묘지	연기면 정자동	정자동 연기궁동, 노고촌동, 음월리, 장천리, 대현동, 아촌리, 신촌리
16	신사리묘지	은평면 신사동	경성오부
17	남가좌동묘지	은평면 동방	은평면내 고양개도, 남면 일원 및 공제원 부근 각 부락
18	-	은평면 평창동	장의문위 삼계동, 평창동, 구기동, 및 부근 각 부락
19	-	은평면 신둔리	북한산성내, 신둔리, 및 사기동 일원

[표 1-2] 경성부 추가 신설 공동묘지 위치와 사용지역

	묘지이름	위치	사용지역
1	이태원 모범묘지	고양군 한지면	-
2	홍제묘지	고양군 은평면 홍제내리	경성거류민단 관할 인원
3	미아리제2묘지	고양군 한지면 길음동	경성오부
4	망우리묘지	고양군 독도면 면목리, 양주군 구리면 망우리 및 교문리	경성오부



[그림 1-3] 1914년 경성오부전도 (출처 : 국가기록원)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묘지규칙이 공포된 1912년부터 마지막 공동묘지인 신사리묘지가 사라진 1970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도시계획의 변화에 따라 공동묘지 폐지 이후 형성된 공간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여 시기별로 특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23개의 공동묘지가 위치한 경성부와 관할 주변지역인 경성오부로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현재 서울[1] 공동묘지가 부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내용과

1) 본 논문에서 한성, 경성, 서울은 시기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조선시대 또는 대한제국기는 한성(漢城)으로, 식민지기는 경성(京城)으로, 광복 이후는 서울로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경성과 서울은 확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정된 공간적 범위가 아니라, 서술하는 시기의 공간적 범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또한 시기와 무관하거나 시기 전체를 아우르며 한양도성 내 · 외부와 그 주변을 지칭하는 지명으로는 '서울' 을 사용하였다.

방법 등 연구에 대한 전반적인 구성을 기술하였다. 이후 선행 연구를 분석하고,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를 도출하였다.

2장은 공동묘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다양한 해외도시의 사례를 조사하여 서울 공동묘지 폐지 과정의 횡단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공동묘지 현상의 특이성을 고찰하고 연구의 방향을 분명히 하였다.

3장은 문헌조사를 토대로 경성과 서울 도시계획을 시기별로 정리하였다. 이는 공동묘지에 관해 분석하는 4-5장에서 시기 구분의 틀이 되었다. 또한 각 시기에 나타난 도시문제와 계획방향을 통해 시기별로 나타난 묘지계획의 방향을 해석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4장은 공동묘지의 계획 및 제도 변천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 정리한 분석 틀을 기반으로 각 시기에 나타난 묘지계획 및 제도의 변화를 서술하고, 폐지되는 공동묘지의 시기, 입지, 폐지 원인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5장은 구체적인 공동묘지 공간 변화를 분석하였다. 3장에서 정리한 분석 틀을 토대로 각 시기마다 사라진 공동묘지 두 개를 선정하여 도상자료와 함께 공동묘지 공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사라진 공동묘지의 공간 변화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6장은 이전 장에서 분석한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와 공간의 변화를 토대로 서울 공동묘지 폐지의 일반적 경향과 특수성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해외 근대도시와 달리 식민지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서울의 도시사가 공동묘지 부재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고찰하였다.

7장은 종합 결론으로 근대도시계획과정에서 서울 공동묘지 탄생과 소멸과정을 분석하여 현재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 원인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동묘지 폐지가 서울 도시 형성에 기여한 바를 발견하고, 서울 근대화 과정의 특이성을 고찰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의 방법과 자료

본 연구는 서울의 근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매체로 공동묘지를 고찰하였다. 여러 근대도시와 공동묘지에 대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조선총독부가 제정한 묘지규칙과 신설된 공동묘지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조사하였다. 이후 공동묘지 관련 계획 및 제도와 공간 변화를 분석하여 서울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동묘지 폐지의 일반적 경향과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서울 공동묘지가 어떠한 과정으로 사라지게 되었는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서울 근대화 과정의 특이성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공동묘지와 공동묘지 공간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묘사와 해석을 시도하기 위해 공식기록물, 지리지, 인터뷰 조사내용 등의 다양한 문헌자료와 공동묘지, 공동묘지 폐지 이후 공간 등의 사진, 그림, 도면의 도상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공동묘지의 형성과 폐지 과정과 계획 자료는 주로 1차 문헌을 참고하여 객관적으로 논증하였다. 공동묘지의 폐지 의도는 당시 총독부와 경성부의 공적 기록과 신문기사 등을 분석하고, 공동묘지 공간의 변화는 근현대 지도, 사진과 도면을 비교 및 분석하여 공간 변화를 파악하였다. 과거 신문이나 잡지 기사도 연구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1912년부터 1970년까지 과거의 시점이라는 점에서 당시 자료는 과거 도시계획과 공동묘지에 대한 사건을 정리하는데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시 공간 속의 공동묘지 공간을 재구성함으로써 도시 역사, 인문 지리, 사회 · 문화사 등의 영역에서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생산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제 3 절 선행연구 고찰

1. 국내 · 외 연구 동향

공동묘지에 관한 연구의 동향은 크게 근대도시에 관한 연구와 묘지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근대국가의 출현과 함께 나타난 근대도시는 전근대국가나 도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정치, 경제, 철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근대 도시를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한민국은 식민지기와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고도의 경제성장에 대해 성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연구가 시작되었다. 염복규(2016)는 1910-1945년 사이에 일어난 경성의 도시계획과정을 분석하여 서울의 기원으로서 경성을 바라보고, 그 과정이 친일과 반일의 이분법이 아닌 다양한 주체로 인한 복합적 결과임을 고찰하였다. 손정목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료가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1950-1970년대 도시계획 과정을 기록하고 도시형성 과정을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최상철 · 박세훈 · 이희정 · 조주현 · 이주원은 각각 도시화와 도시계획, 도시화와 국토공간의 변화, 도시계획 제도와 정책의 변화, 부동산 규제 및 시장의 변화와 주택 재개발 변천에 대해 통시적으로 서술하였다. 김기호는 일제시대 초기 시구개정 내용을 분석하여 도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 변화가 나타내는 도시공간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염복규(2005)는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운동은 경성도시계획의 실행의 토대가 되는 시기라는 점을 분석하였고, 경성도시계획운동이 무산된 원인을 규명하였다. 염복규(2001)는 경성시가지계획 과정을 상세히 조사하여, 초기 경성도시계획의 국가중심적 성격과 이데올로기적 강제 및 법적 통제 강화를 통해 나타난 문제를 고찰하였다. 안상민 · 이시다 준이치로 · 김주야는 1940년대 전시상황으로 인하여 방공계획이 도시계획의 핵심 논리로 작동하며 도시개조가 시행되었다는 점을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현대 서울의 도시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실증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김주야 · 石田潤一郞는 경성시가지계획의 실행수단으로 진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정

[표 1-3] 공동묘지 관련 선행연구 목록

연구 동향	구분	논문제목
근대도시	근대 도시	앙리 르페브르(양영란 옮김) 2011, 공간의 생산
		제임스 C. 스콧(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도시 계획	염복규 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 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1,2
		최상철·박세훈·이희정·조주현·이주원 2015, 광복 70주년 특집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변천사
		김기호 1995, 일제시대 초기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엽복규 2005, 1920년대 경성도시계획운동의 전개와 성격
		염복규 2001, 1933-1943 일제의 '경성시가지계획'
		안상민 · 이시다 준이치로 · 김주야 2019, 1940년대 방공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성)의 도시 개조에 관한 연구
		김주야 · 石田潤一郞 2009,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식민도시성에 관한 연구
		안창모 2005, 해방이후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의 변화
	도시 경관	발레리 줄레조(길혜연 역) 2007, 아파트 공화국
		김희식 2011, 동소문 밖의 사람들 미아리 일대의 역사공간삶
		장성곤 · 강동진 2018, 소록도 100년의 변천과정과 특성 도출
		김성태 2020,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묘지	죽음	셸리 케이건(박세연 옮김) 2012, DEATH : 죽음이란 무엇인가
		송현동 2012, 서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
		송현동 2005,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
	공동묘지	박태호 2003, 서울 장묘시설 100년사
		김태복 1992, 도시와 묘지
		다카무라 료헤이 200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 : 1910년대를 중심으로
		이항아 2014, 공동묘지, 식민지 경성을 잉태하다
		정일영 2013, 일제시기 장묘제도 변화의 의미 : 묘지규칙과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이숙미 · 오충현 2008, 일제 강점기 서울지역 장묘시설 연구
		정일영 2016, 일제 식민지기 사자 공간의 배치와 이미지 형성 :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중심으로
		박진한 2015, 인천의 일본인 묘지 부지 이전과 일본식 시가지 확장 과정: 1883년 제물포 개항부터 1910년 한일합병 이전까지
		기세호, 2017, 근대화로 인한 묘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 변화에 관한 연구
		강정원 · 이도정 2017, 무연고묘와 죽음권
		노수동 2015, 도시 묘지공원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 전략 : 망우묘지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황주영 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 19세기 후반 런던과 파리를 중심으로
	상·장례 정책	송현동 2002, "근대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송현동 2002, 의례와 사회변화-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송현동, 2003, 현대 한국 장례의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
		조덕용 · 임이택 2009, 대한민국 장묘제도에 관한 연구
		김종희 2014, 건전가정의례준칙 변천 연구
		김시덕 2001,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서일웅 · 박경환 2014, 한국 근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

리하였고, 이를 통해 나타난 특성-이념 중심 도시계획, 높은 감보율-을 분석하여 식민도시형성의 성격을 고찰하였다. 안창모는 광복이후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의 변화과정에서 강남개발 이후 식민지 도시계획이 종식되었고, 새로운 서울 도시계획이 진행된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묘지에 관한 연구는 죽음에 대한 의식, 공동묘지, 상·장례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방면으로 근대화가 진행되며 죽음에 대한 의식, 의례, 정책과 공간 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식민지기와 압축적 근대화시기를 겪으며 죽은 자의 공간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이에 대한 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송현동(2012)은 죽음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장묘공간과 의식에 대해 역사적 흐름을 기술하고 있다. 송현동(2005)은 한국 사회에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공간 분리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광복이후 국가의 산업화, 국토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죽은 자의 공간을 혐오시설로 취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박태호는 전근대에서 벗어나 근대 장사시설로 변화하는 배경 속에서 공동묘지와 화장장의 형성과 변천과정에 대한 실상을 고찰하였다. 김태복은 서울과 파리의 묘지와 화장시설에 대해 도시공간에서의 위치, 제도적 변화를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하고 미래 장사시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다카무라 료헤이는 1910년도 경성부 내 공동묘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여 이후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항아는 토지의 식민지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공동묘지의 제도적 공간적 변화를 통해 수도 경성의 식민지 자본주의적 도시화 과정을 검토했다. 정일영(2013)은 묘지규칙에 따른 화장의 합법화와 공동묘지의 변천과정을 통해 경외-배척-은폐로의 위상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따라 축소되는 죽음의 의미를 고찰했다. 이숙미·오충현은 일제시기 서울의 장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도시지역 장묘시설의 변천과정과 일제의 이면적 의도를 분석했다. 정일영(2016)은 일제 식민지기 사자 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식민지 근대의 양상을 포착하고, 그에 따라 죽음과 사자공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쳤음을 분석했다. 박진한은 한일합병 이전 인천에서 허가받은 일본인

묘지가 일본식 시가지로 변용하는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일본 거류민이 개항장이라는 새로운 도시 공간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밝혀냈다. 기세호는 파리와 서울의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와 묘지 사이의 거리 변화를 비교분석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시기를 규명하고 이를 철학적으로 해석하였다. 강정원 · 이도정은 도시와 촌락의 공동묘지 비교를 통해 도시화와 함께 부각된 무연고묘의 처리문제가 경제 우선의 근대화 때문임을 밝히고, 이후 적절한 법률과 의례와 함께 처리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노수동은 망우리묘지의 형성과 변천을 정리하여 장소적 가치를 발견하고 묘지 재정비 계획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황주영은 도시공원의 발전과정을 추적하여 이것이 나타내는 모더니티를 분석하고, 도시공원이 발명되었음을 고찰하였다.

2. 본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근대화는 진보와 인간 이성, 과학 기술의 가능성, 시간의 수량화, 자본주의, 실용주의적 태도 등의 체현을 통해 정치 · 경제 · 문화 · 가치관 등 모든 면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다.[1] 근대화가 진행되며 서구 유럽에서는 근대도시 및 국가가 형성되었다. 국가는 중앙으로부터의 가독성과 통제력을 높여 공간적 지배를 이루는 핵심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며,[2] 이는 근대적 공간인 공동묘지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일제시기에 '근대'를 경험하기 시작하였고, 비록 식민지기라 하더라도 근대성의 기원은 그 시기부터 추적해야 한다.[3] 다시 말해 서울은 근대성과 식민성의 양가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도시공간인 것이다. 따라서 도시공간에 관한 연구도 '민족'을 넘어서 공간 형성 주체의 이해관계를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4]

---

1) 황주영, 앞의 논문, p.41
2) 제임스 C. 스콧 2010, 『국가처럼보기』, 전상인 옮김 , 에코리브르, p.71
3) 김성태, 2020,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73
4) 김성태, 앞의 논문, p.17

본 연구에서는 서울 근대화 과정의 역사가 집약되어 있는 매체로 공동묘지를 선정하였다. 전근대사회 죽음의 공간인 북망산은 마을공동체가 관리하며, 동시에 그들을 결속시키는 사회적 매체였다. 하지만 일제시기에 공동묘지가 도입되며 죽음의 공간은 국가의 통제 아래에 도시계획시설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기존 공동묘지에 대한 연구는 묘지규칙이 공포된 일제시기에 국한되어 민족적 관점을 통해 공동묘지의 형성과 그 영향을 고찰하였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은 많고,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폐지되는 것이라고 단편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민족적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독특한 도시사를 겪은 서울 공동묘지 폐지 과정을 분석하고자 함에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해외 근대도시 사례를 살펴보고, 계획 및 제도와 공간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도시 내에서 나타나는 공동묘지 폐지의 일반적 경향과 서울의 특수성을 고찰하고, 현재 서울 공동묘지 부재 현상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나아가 해외 근대도시와 다른 서울 근대화 과정의 특이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근대도시 서울과 공동묘지의 명멸에 관해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공동묘지의 명멸에 도시계획과 묘지계획이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서울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죽음의 공간의 가치를 역설하고, 서울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을 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것이며,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나아가는데 기틀을 형성함에 연구의 의의가 있다.

제 2 장 근대도시와 공동묘지

제 1 절 공동묘지의 개념과 분류

1. 일반묘지의 역사

‘잠자는 곳’ 이라는 그리스어 koimeterium에서 유래한 묘지(墓地, Cemetery)는 인류의 정주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인류가 수렵과 채집을 통해 살아가던 시기에는 시신을 땅에 묻거나 적당한 처리를 하고 그 장소를 떠났다. 무덤은 형성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장소가 큰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인류가 정착을 하게 되며 거주지 가까이에 죽은 자의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서 묘지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이에 대해 피어슨은 “매장 행위 자체는 시신을 그 땅에 떼어낼 수 없는 고정된 부분으로 만듦으로써 물리적으로 망자를 마치 땅에 심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서술하였다.[1)]

중세 이후 묘지는 종교집단과 정치집단이 결합한 영역에서 다루어지며 산 자의 공간인 도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다. 먼저 유럽의 묘지는 도시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위상이 변하였다.(그림 2-1 참조) 중세의 교회(ecclesia)와 묘지(cimeterium)는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의미가 모호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었다. 나아가 고인들의 시신이 묻혀 있는 성당을 치메테리움(cimeterium)이라고 부르고, 묘지를 성당의 안뜰이라 칭하기도 하였다.[2)] 이에 따라 중세 유럽의 묘지는 교회와 동일시되며 집회와 매장문제를 동시해 해결하는

---

1) 마이크 파커 피어슨, 이희준 옮김, 2017,『죽음의 고고학』, 사회평론아카데미, p.34
2) 필립 아리에스, 고선일 옮김, 2004, 『죽음 앞의 인간』, 새물결, p.119-120 / 황주영, 앞의 논문, p.132 재인용

역할을 담당하였고,[1] 묘지들은 도시 안으로 편입되었다.[2] 우리나라도 정치권력이 종교권력과 결합하면서 도시에서 죽음의 공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신라시대 왕릉은 중앙집중식 권력을 상징하였고, 도시 내에 위치하며 산 자들을 대면하는 공간으로 존재하였다.(그림 2-2 참조)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절에서 재齋의식을 통해 죽은 자를 천거함으로써 승려가 후손을 대신하는 방식이었다.[3]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서며 불교의 상제례를 금지하기 시작하였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무속이 담당했던 상제례 역할이 약화되었고, '제사와 묘지'라는 죽음 문화의 형태를 통해 산 자와 죽은 자는 영원히 연결되었다. 유교식 제사는 후손들이 죽은 자를 기억하는 사회문화적 장치로서 가족 공동체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였고, 묘지는 조상을 기억하는 상징물로서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장소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특히 사회적 지위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묵적인 사자공간인 집장지 또는 북망산에서 시신을 묻고 상·장례를 치르면서, 집장지는 죽음의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4] 다시 말해 집장지는 망자를 기억하고 공동의 뿌리를 상기시키는 공간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 선산 및 집장지가 주거지 주변에 다수 포진되며 서양인들은 조선의 첫인상을 묘지로 묘사했을 정도이다.[5]

이처럼 묘지의 역사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시작되었고, 시기 · 지역에 따라 다양한 문화를 형성하였다. 묘지는 단순히 시신을 묻는 장소를 넘어서서 당시 사람들의 산 자와 죽은 자의 상호간의 관계된 관습과 태도를 반영하는 매체로 작용하였다.[6] 그럼에도 니겔 발리가 언급한 것처럼 모든 문화에서 죽음을 삶의 연장으로 보는 공통된 인식을 발견할 수

---

1) 임석재, 2003, 『기독교와 인간』, 북하우스, p.143
2) 기세호, 2018, 「근대화로 인한 도시와 묘지 사이의 거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Vol.34 No.5, p.99
3) 송현동, 2012, 『서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p.62
4) 정일영, 2016, 「일제 식민지기 死者공간의 배치와 이미지 형성」, 수선사학회, p.194
5) 에밀 부르다에, 정진국 옮김,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글항아리, p.168
6) 송현동, 2005,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문화연구 제11집 2호, p.209

있었다.[1] 특히 전근대사회를 거치며 죽음의 공간은 도시의 중심을 형성하였고, 산 자에게 열린 공간이 되었다. 이처럼 묘지가 죽은 자의 안식처이자, 산 자가 죽은 자를 대면하고 회고하는 장소가 되면서, 동 · 서양을 막론하고 도시는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장소라는 공통적인 인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림 2-1] 글래스고 네크로폴리스
(출처 : https://www.glasgownecropolis.org
(검색일 : 20.11.13.))

[그림 2-2] 경주 왕릉
(출처 : http://www.kbsm.net
(검색일 : 20.11.13.))

2. 공동묘지의 개념

전근대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며 다방면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고, 도시 공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묘지도 그 변화를 피해갈 수 없었다. 특히 집단묘지에 대한 위생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묘지는 종교에서 분리되어 국가가 운영 및 관리하는 공동묘지로 변하였다. 즉 묘지 공간을 정의하는 주체가 종교권력에서 국가권력으로 전환된 것이다.[2] 이때부터 서구에서 묘지(Cemetery)라는 용어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묘지로 의미가 변하게 되었다.[3]

---

1) 니겔 발리, 고양성 옮김, 2001, 『죽음의 얼굴』, 예문, p.8
2) 정일영(2013), 앞의 논문, p.83
3) https://www.facebook.com/wsbook/posts/1302578956452732/
(검색일 : 20.11.14)

새롭게 발명된 서구의 공동묘지는 호수나 연못, 우거진 숲, 구불구불한 오솔길 등 특정 종교와 관계없는 양식으로 설계되면서 마치 공원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1] 따라서 공동묘지는 죽은 자를 회상하고 여가 · 레저활동이 일어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하며 산 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한편, 서울 공동묘지는 1912년 묘지규칙의 공포 이후에 탄생되었다.[2] 총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묘지규칙은 한국인의 묘지 통제 및 화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고, 죽은 자의 처리와 사자 공간을 국가가 통제하는 대상으로 전환한 최초의 근대적 법규였다.[3] 조문을 살펴보면 일제가 인정하지 않는 장소에 공동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묘지규칙이 공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성부는 19개 공동묘지를 신설하였다. 기존 북망산과 달리 공동묘지에서는 위생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중시되고, 예(禮)의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공동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형성되었다. 게다가 관리 주체가 일제라는 점이 더해져 공동묘지와 사자(死者)는 기피하는 대상이 되었다.[4] 이 시기에 형성된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면서 도시와 공동묘지의 관계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동묘지는 근대국가의 형성과 함께 나타난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는 전근대사회에 존재하는 죽은 자의 공간- 서구에서는 종교묘지, 우리나라에서는 선산이나 북망산-과 엄연히 다른 공간이다.[5] 즉, 공동묘지는 단순히 집단으로 매장되는 묘지를 넘어서 국가가 사자 공간을 통제 및 관리의 대상으로 전환시키고, 규범 창출 및 공동가치의 권한을 독점하면서 나타난 근대적 공간을 칭하는 것이다.

---

1) 황주영, 앞의 논문, p.136
2) 송현동, 앞의 책, p.91 : 묘지규칙 제1·2조
3) 정일영, 2013, 「일제시기 장묘제도 변화의 의미」, 역사연구(25), p.83
4) 「白骨의 世上求京」, 동아일보, 1921.10.25. ; 「墓地以外에 埋葬코處罰」, 동아일보, 1928.10.6.
5) 정일영(2016), 앞의 논문, p.194

2. 공동묘지의 분류

본 연구에 앞서 유사한 개념을 가진 묘지에 대한 분류와 용어 정의를 통해 공동묘지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표 2-1] 묘지 유형 분류 (출처 : 『도시와 묘지』, p.299 인용 후 재작성)

관리주체	종류	묘지유형	용어 정의	집단여부
공설	공동	공동묘지	- 1912년 법에 의거 지방공공단체에서 설치한 묘지 (부, 읍, 면에서 관리)	○
	공원	공설묘지	- 1962년 이후 지방공공단체에서 설치한 묘지 - 공동묘지 중 공원화하여 공설묘지로 이용하는 묘지	○
	특수	특수묘지	- 능묘, 국군묘지(현재는 국립묘지)	○
사설	재단법인	사설공원묘지	- 묘지 설치허가 받아 운영되는 규모 10만㎡ 이상의 집단 묘지	○
	기타시설	단체묘지	-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규모 10만㎡만 미만 묘지	×
		개인묘지 종중(문중)묘지 가족묘지	-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묘지를 일컬으나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토지를 이용하여 설치된 묘지가 대부분을 차지함	○
공설 및 사설	화장장, 납골당		- 공설· 사설 구분없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시설 전부	○

현재 우리나라 묘지는 관리주체에 따라 공설묘지과 사설묘지로 구분할 수 있다. 공설묘지는 다시 공동묘지, 공원묘지, 특수묘지로 세분화되고, 사설묘지는 재단법인묘지와 기타시설로 나누어진다. 공동묘지는 1912년 묘지규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인 부 · 읍 · 면에서 설치 및 관리하는 묘지이다. 공설묘지는 1962년 공동묘지 중 일부를 공원화하여 운영하는 묘지를 말한다. 특수묘지는 능묘나 국군묘지(현 국립묘지)가 해당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만이 매장할 수 있는 묘지이다. 사설공원묘지는 규모 10만㎡을 기준으로 사설공원묘지 ·

단체묘지 · 개인 및 가족묘지로 구분된다. 사설공원묘지는 설치를 허가받아 운영되는 규모 10만㎡ 이상의 집단 묘지를 말한다. 단체묘지는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규모 10만㎡ 미만 묘지를 일컫는다. 마지막으로 개인 또는 가족묘지는 법률에 의거 허가받은 묘지로, 전통적으로 선산에 모신 묘지를 포함한다.

세부적으로 공동묘지 내부 공간은 개인묘지 구역과 가족묘지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최초로 공동묘지가 신설되던 당시에는 개인묘지만 허용되었지만, 1919년 묘지규칙 개정 이후 사설묘지 및 가족묘지가 허용되며[1] 일부 공동묘지에도 가족묘지 구역이 신설된 것으로 파악된다.

제 2 절 근대도시와 공동묘지 해외사례

본 절에서는 해외사례로서 파리, 보스턴, 동경의 근대도시와 공동묘지를 살펴봄으로써 각 도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공동묘지와 관계를 맺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대화 이후 사회 전반에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기존의 죽음관으로 도시 내에서 죽음을 다루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특히 종교적으로 다루어졌던 죽음은 근대 이후 위생 및 토지이용 측면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근대도시는 공동묘지를 통해 사회문제로 대두된 사자의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하였다. 즉 공동묘지가 죽은 자의 추모 공간임과 동시에 도시계획시설로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해외 근대도시는 죽은 자의 공간을 형성하여 생자와 사자의 새로운 교류 방식을 발견하였다.

서울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분석에 앞서 파리, 보스턴, 동경을 비교 사례로 선택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파리는 도시문제로 나타난 묘지문제를 제도 및 정책으로 해결한 최초의 도시이다.

---

1) 조덕용 · 임이택, 2009, 「대한민국 장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1), p.130

교회묘지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파리에서 특정 종교와 관계없는 양식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공동묘지가 세워진 것이다. 파리 내 공동묘지는 근대도시의 묘지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가 된다. 둘째, 보스턴은 공동묘지의 공원화를 통해 묘지가 더 이상 죽은 자만의 공간이 아니라 공공공원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정착시킨 도시이다. 마운트 어반묘지의 성공은 전원묘지운동으로 이어져, 일반 시민들은 열악한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공원 같은 공공공간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공동묘지가 도시 내로 편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다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동경은 모방과 변용을 통해 서구 근대화를 수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묘지계획과 제도 등이 신설되었고, 식민지기를 거치며 우리나라에 유사한 형태로 재현되었다. 즉 동경은 경성의 묘지계획 및 제도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었고, 경성이 근대도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도시이다. 따라서 서울 묘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 동경의 묘지는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례이다. 궁극적으로 서울 공동묘지의 탄생 및 소멸과 공간 변화를 파리, 보스턴, 동경의 사례에 투영해 봄으로써 서울 공동묘지 명멸의 일반적 경향과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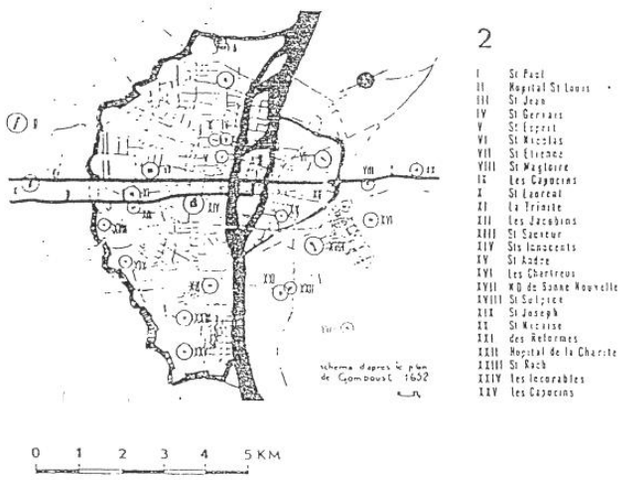
1. 파리 공동묘지

1) 파리와 공동묘지

중세기(5세기) 이후 크리스찬의 정착과 함께 프랑스는 새로운 매장풍습이 나타났다. 교회가 시민의 생사를 관장하게 되며 교회, 수도원 등 종교건물과 그 주변의 토지에 묘지가 형성된 것이다. 특히 프랑스 최초의 왕 클로비스(Clovis)와 파리 교구장이었던 클로틸드(Clotilde)가 교회 내의 지하묘지에 묻힌 사실이 일반인에게 알려지며 종교시설 내 매장이 유행하기 시작했다.[1] 즉 묘지는 천당으로 가는 약속된 장소라는 인

1) 김태복, 앞의 책, p.159

17세기 파리시의 주요 교회내 묘지분포도 그림 3)



출처 : AUZELLE, Robert : Dernières Demeurs, p.201.

[그림 2-3] 17세기 파리 묘지분포도
(출처 : 『도시와 묘지』, p.158 재인용)

식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중세 도시가 종교건물을 중심으로 재편되며 묘지가 성곽 내부로 진입하였고, 도시 중심지가 자연스럽게 묘지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 결과 묘지정비 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파리 전역에 250여개의 묘지가 분포하게 되었다.[1] (그림2-3 참조)

18세기 초 파리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 60만에 가까워졌고, 그에 상응하여 죽은 자의 증가로 인해 파리는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많은 도시가 되었다.[2] 묘지로 가득 메워져 있었던 도시공간은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식사 또는 전염병의 피해가 막심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정비계획을 실시했지만 묘지관리가 교회의 이익과 관련되며 종교계는 쉽게 협조하지 않았고, 묘지는 계속 유지되었다. 각종 전염병과 페스트의 피해를 겪은 후, 1554년 파리대학의 두 의사, 페르넬(Fernel)과 허블리즈(Houflliez)가 묘지의 위생관리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또한 종교 원리에 대한 회의와 지식인들의 의식발전은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엄격한 위생개념이 출현했고 도시 내 묘지개선운동(묘지폐지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프랑스 대혁명과 더불어 묘지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국회는 도시 내의 묘지를 과감히 폐지하고, 종교 소속의 묘지를 국가소유로 이관하여 대단위 묘지계획을 실행했다. 이는 죽음의 공간이 종교적 관점에서 행정적·위생적 관점으로 이동하였음을 의미하였고, 파리 묘지는 공공(국가)의 통제 하에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1801년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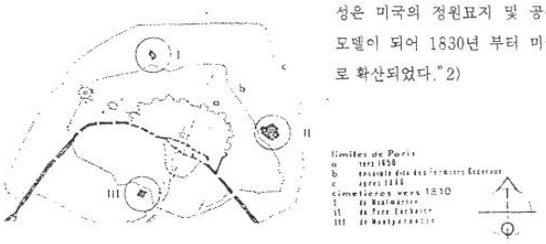
1) 김태복, 앞의 책, p.158
2) 김태복, 앞의 책, p.163

파리의 3개의 대묘지 설치현황 표 2)

묘 지 명	창설년도	현재면적 (ha)	당시담당구 (區1)
Père Lachaise (페르 라세즈)	1804	43h.20	5.6.7.8
Mont Parnasse (몽 빠르나스)	1824	18h.72	9.10.11.12
Mant Martre (몽 마르뜨르)	1825	10h.48	1.2.3.4

파리의 3개 대묘지 분포도 그림 6)

특히 Pere Lachaise 묘지는 기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활용한 정원묘지로서 구성되었고, "그 묘지의 녹지공간 구성은 미국의 정원묘지 및 공원묘지의 모델이 되어 1830년 부터 미국전역으로 확산되었다."2)



[그림 2-4] 파리 공동묘지 현황과 배치
(출처 : 『도시와 묘지』, p.167 재인용)

지설치 계획과 1804년 현대적 묘지제도가 제창되고 법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며 오늘날 묘지법의 기틀을 다졌다.1) 이후 약 25년 동안 묘지 대개혁을 통해 파리 외곽에 3개 묘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묘지들은 폐지되었다.

하지만 파리로 밀려드는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대다수의 이주자들은 토지가격이 저렴한 파리 외곽에 주거지를 형성하였고, 이후 파리가 확장되며 도시 외곽에 위치한 묘지는 자연스럽게 도시 내로 편입되었다. 계속된 사망자의 증가로 오스만 시장은 3개 묘지를 폐지하고, 확장된 파리 북쪽 Mery-Sur-Oise에 묘지를 신설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파리와 Mery-Sur-Oise간 특별철도를 개설하는 계획도 마련하였다. 가격이 저렴한 도시 외곽에 대단위 묘지를 설치하여 묘지 부족난을 해소하고 빈민에게 무상으로 분묘를 기증하는 목적으로 계획된 묘지는 시민들의 반대 데모로 인해 무산되었다.2)

산업혁명과 1,2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로 향한 인구이동이 다시 한번 급속도로 증가하며 주변 교외지역의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특히 도시개발과 건설에만 전념하고 죽은 자를 위한 공간에 무관심하여 묘지 부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정부는 장래 묘

1) 김태복, 앞의 책, p.166
2) 김태복, 앞의 책, "*'묘지와 방문자의 거리' 가 실패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행정가, 도시계획가, 건축가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도시 근접교외에 도시묘지 설치를 착안했다.*" p.168

지대책 연구를 주도했고, 지방 자치구는 시한부 묘지제도의 적극 활용과 묘지 확보를 통한 새로운 장묘정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대부분의 자치구는 기존의 구묘지와 1960년대에 조성한 신묘지 최소 2개의 묘지를 갖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구묘지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확장하거나 유휴지를 매입하여 신묘지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이 좁거나 이미 도시화가 진행되어 묘지 확장 및 신설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했는데, 여러 자치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 자치구 묘지 개념을 창출하며 공동 소유의 묘지를 신설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프랑스 전역의 자치구는 최소한 1개 이상의 묘지를 운영하여 해당 주민들을 위해 분양과 임대를 한다. 현재 파리시와 그 인근에는 시민을 위한 묘지 20여개소, 420ha의 묘지가 분산되어 있다.[1)]

요약해보면, 파리는 근대화 시기(186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이후(1950년대)에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문제가 발생하면서 산 자의 공간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로 인해 공동묘지를 외곽화 하려는 계획이 무산되었다. 이후 장묘정책의 관점에서 '구·신묘지', '범 자치구 묘지', '시한부 묘지'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해결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파리는 근대 도시 형성 과정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페르 라쉐즈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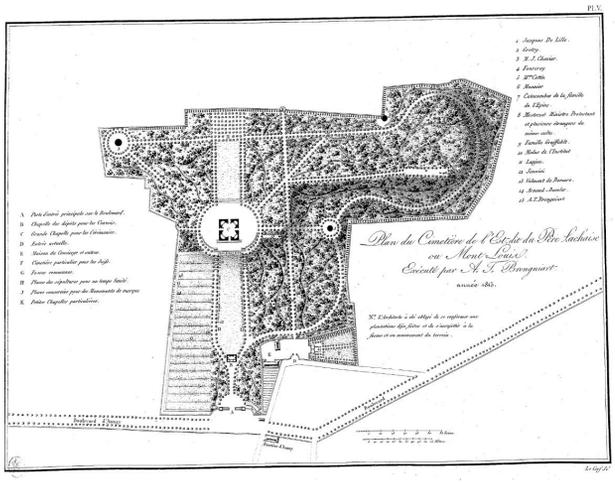
파리의 공동묘지는 19세기 초 '사후에 모든 시민은 평등하다'는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근대에 새롭게 탄생하였다.[2)] 그 중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페르 라쉐즈(Pere-Lachaise)묘지(1804)를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3)]

페르 라쉐즈묘지는 근대식 묘지로서 영국식 정원 개념이 도입된 정원묘지의 효시이며 파리 시내에서 가장 큰 시립묘지이다.[4)] 묘지는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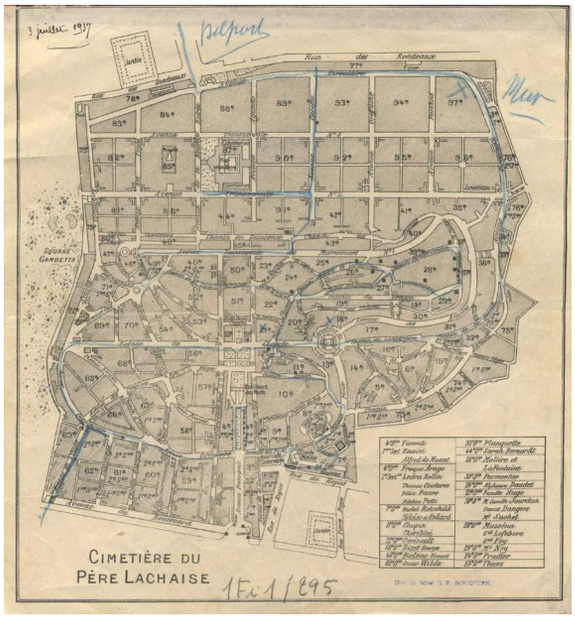
1) 기세호, 앞의 논문, p.105
2) 박태호, 2005, 『세계묘지 문화기행』, 서해문집, p.31-32
3) 몽 파르나스 묘지는 1824년, 몽 마르뜨르 묘지는 1825년에 문을 열었다.

제20구에 위치하고 약 14만 평, 10만 개의 분양묘소, 50만 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다. 또한 여전히 무연고 묘가 재사용되며 지금까지 제20구 거주민들의 유택으로 이용되고 있다.[1)]

페르 라쉐즈묘지 신설 초기에 시민들에 관심을 받지 못하였지만, 유명인사인 라퐁텐(La Fontaine)과 몰리에르(Moliere)의 유해가 묘지에 들어온 후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2)] 내부 예배당 또한 처음에는 개인을 위한 것이었지만, 점차 가족을 위한 장소로 변화하였다.



[그림 2-5] 1813년 페르 라쉐즈묘지 도면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검색일 : 20.1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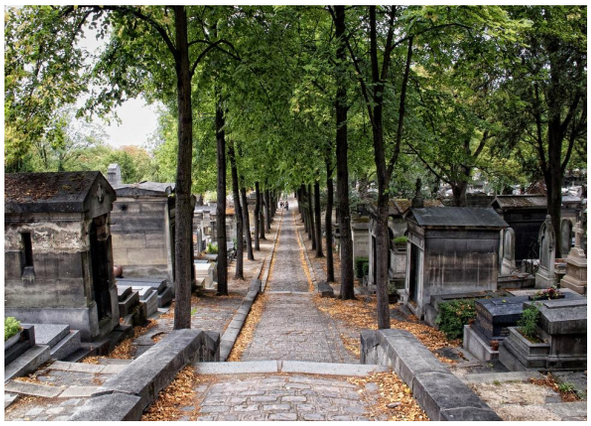


[그림 2-6] 1937년 페르 라쉐즈묘지 도면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
(검색일 : 20.11.24.))

페르 라쉐즈묘지는 단순히 망자의 혼을 기리는 추모 공간을 넘어서서 예술적 · 역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공간이다. 우선 이 묘지는 정원묘지로 픽춰레스크한 경관 형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다양한 양식의 조각과 건축을 조망할 수 있는 예술적 보고(le tresor)이다.[3)] 페르 라쉐

4) 김현아, 2018, 「페르라쉐즈 묘지 프랑스 문화예술과 역사의 보고」, 프랑스학연구, p.288
1) 박태호, 2005, 『세계묘지 문화기행』, 서해문집, p.33
2) 박태호(2005), 앞의 책, p.34
3) 김현아, 앞의 논문, p.290

즈묘지의 예술성은 도시민들에게 죽음이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고, 시적 · 정신적 · 철학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즉, 묘지의 내부경관의 변화를 통해 죽은 자의 공간을 산 자의 공간 내에 편입시키고, 죽은 자를 숭배하는 문화를 형성하였다.[1] 또한 묘지는 역사의 중요한 흔적을 간직한 공간이기도 하다. 이 곳은 전쟁 · 대중의 추모, 정치적 참여로 군중이 집결하는 일종의 거대한 공공공간이 되었다. 가장 역사적인 사건은 파리코뮌과 관련이 있다. '피의 1주일'이라 불리는 시가전 끝에 파리코뮌은 완전히 진압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페르 라쉐즈묘지에 침입한 티에르 군대는 파리코뮌 가담자 147명을 총살하였다.[2] 이와 같은 사건이 축적되며 묘지는 파리의 중요한 역사적 장소로 자리매김하였고, 도시민들과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지금까지 페르 라쉐즈묘지는 프랑스인들이 자부하는 예술 · 문화의 유산이자 역사적으로 유서가 깊은 중요한 장소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묘지의 관리주체가 종교권력에서 국가로 변하였고, 공동묘지는 도시의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2-7] 페르 라쉐즈묘지
(출처 : https://pariseastvillage.com/
(검색일 : 20.11.25.))

[그림 2-8] 페르 라쉐즈묘지
(출처 : https://arpenterlechemin.com/
(검색일 : 20.11.25.))

1) 김현아, 앞의 논문, p.295
2) 김현아, 앞의 논문, p.298

2. 보스턴 공동묘지

1) 보스턴과 공동묘지

19세기 이전 미국 사람들은 전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죽은 자는 집 가까이에 묻혔고, 집단 묘지는 대부분 교회묘지와 동일시되었다. 아직 현대적 의미의 공동묘지(cemetery)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보스턴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인구 과밀, 열악한 주거 환경, 장시간 노동, 휴식공간의 부재 등과 같은 도시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19세기 미국 북서부 지방에는 극심한 전염병이 일어났고, 묘지가 근원지로 밝혀졌다. 따라서 심한 악취를 풍기고 공공위생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묘지는 도시에서 가장 부정적인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다.[1] 이에 따라 뉴욕 보건당국은 더 이상 시내에 매장을 금지시켰고, 부패의 온상인 교회묘지를 폐지하고 공설묘지로 조성하는 묘지개혁을 단행하였다. 앤드류 잭슨(Andrew Jackson) 주지사 시절 정부에는 야콥 비질로우(Jacob Bigelow)라는 지역 의사이자 정원사인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사로서 위생문제로 나타난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고, 정원사로서 새로운 묘지의 개념인 공원묘지를 제안하였다. 또한 여러 사람들과 묘지의 위치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고, 결국 도시 외곽지역-Sweet Auburn-에 묘지를 짓기로 결정하였다.

마운트 어번은 개장 이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 보스턴 사람들이 죽은 자와 상관없이 휴식을 취하러 오고,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로 여겼던 것이다. 또한 누구나 묻힐 수 있는 개념으로 형성된 공동묘지는 그 수요가 급증하였다. 즉, 종교·특수계층만 이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간 경험을 갖게 되었고, 열악한 도시환경에서 벗어나 공원 같은 환경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다수의 방문객은 마운트 어번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여러 도시에 유사한 묘지

1) 서양묘지사 http://blog.daum.net/deatheducation/5572509(검색일 : 2020.1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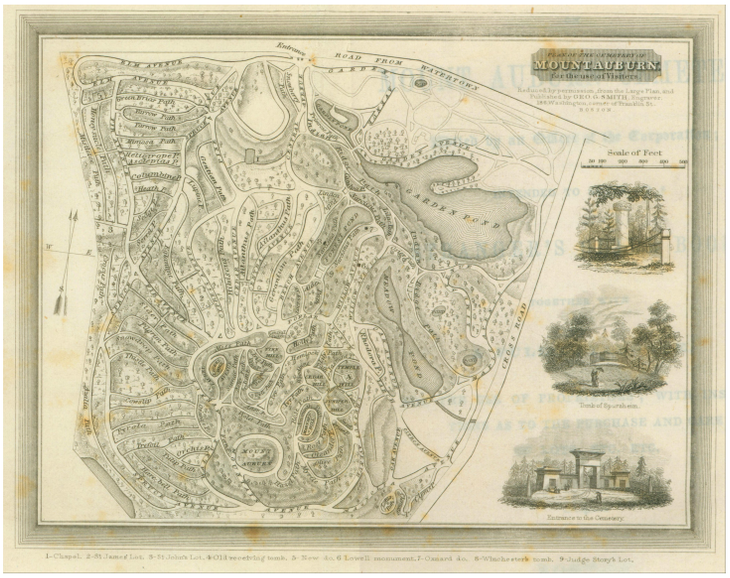
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1847년 뉴욕주는 상업적 매장지를 허가하는 전원묘지법(rural cemetery law)을 통과시키며 집단묘지는 교회묘지에서 관영 · 민영 묘지로 전환하였다. 그 결과 19세기 중반 미국 전역에 큰 규모의 묘지가 10개 이상 생겨나며 전원묘지운동(rural cemeter movement)으로 이어졌다. 미국의 근대도시는 공원묘지를 통해 죽은 자의 공간을 산자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것이다. 즉 도심부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진 장소에 묘지를 설치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공존하는 공공공간을 형성한 것이다. 이로 인해 도시 거주자들은 묘지를 더 이상 죽은 자를 모시는 공간이 아니라, 공공정원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이후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전원묘지에서 아이디어를 빌려 미국 공공공원을 탄생시켰고,[1] 이는 다시 에벤에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 이론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2] 이처럼 보스턴 전원묘지의 형성은 도시와 묘지 관계를 재정립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공원과 근대도시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2) 마운트 어번묘지

1831년에 설립된 마운트 어번묘지는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워터타운에 위치한 최초의 공원묘지이다.[3] 총 면적은 72에이커(약 8만 8천 평)로 계획되었고, 총 17㎞의 도로 및 산책로, 약 5,500그루와 700여종이 넘는 나무, 간목, 식물 등의 조경으로 설계되었다.[4] 마운트 어번묘지는 현재까지 약 8만 명 이상이 안치되었고, 매사추세츠 주지사, 하버드대학 학장 및 미 국무장관을 역임한 에드워드 에버렛(Edward Everett), 보스턴의 엘리트 출신 학자 및 정치가, 유니테리언 등의 묘지가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5]

---

1) https://en.wikipedia.org/wiki/Rural_cemetery (검색일 : 20.12.01.)
2) 임승빈, 1996, 「현대 도시공원의 창시자 옴스테드」, 국토계획학회, p.62
3) Blanche Linden-Ward, 2016, 『Silent City on a Hll : Landscapes of Memory and Boston’s Mount Auburn Cemetery』, Ohio State University Press
4) Blanche Linden-Ward, 앞의 책, p.199



[그림 2-9] 마운트 어번묘지 도면
(출처 : https://mountauburn.org/)

공원묘지가 신설되는 과정에서 의사이자 정원사인 비질로우는 6년여 시간동안 여러 사람들과 묘지의 위치 및 내부 공간을 결정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다. 마침내 그는 1825년 보스턴 중심지에서 4마일 떨어진 외곽 지역에 72에이커(약 8만 8천평) 규모의 땅을 발견하였다. 이 공간은 하버드대학 학생들의 자연공원 역할을 하는 스위트 어번(Sweet Aubrun)으로 경관적으로 훌륭한 지역이었다.[1] 그 시기 사람들은 죽은 자를 집 주변에 묻는 관습이 있었고, 가족을 멀리 묻는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질로우는 매력적인 묘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토지 구매 이후 묘지 개혁론자들과 메사추세츠 원예조합(MHS : Massachusetts Horticultural Society)을 연합하여 묘지를 설계하였다.[2] 원예업자와 묘지 개혁론자들은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구상하고, 넓은 부지를 이용해 다수의 가족묘지를 계획하는 것에 고무되었다. 그들은 묘지 내에 숲·연못·습지를 연계시키고 관통함으로서 죽음은 나무·관목·길·산책로와 공존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 무덤 군이 황폐화된 분위기를 나타냈던 것과 대조되었다. 1831년 8월 식물학자, 묘지개발자, 재력가 약 100명이 모여 모금을 하면서 스톤우드가 마운드 어번 묘지로 전환되며 개장하였다.[3]

---

5) https://interactive.wttw.com/ten/parks/mount-auburn-cemetery
1) Greene, Meg, 2008. 『Rest in Peace: A History of American Cemeteries』 / https://en.wikipedia.org/wiki/Rural_cemetery (검색일 : 20.11.24.) 재인용
2) Blanche Linden-Ward, 앞의 책, p.183-184
3) 서양묘지사 http://blog.daum.net/deatheducation/5572509(검색일 : 20.11.25.)

마운트 어번묘지는 처음부터 죽은 사람 뿐만 아니라 산 사람을 위한 장소로 계획되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도시의 공해와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이중적 목적은 조셉 스토리(Joseph Story : 미국 연방대법원의 일원)의 연설에 의해 명확히 표현되었다. 그는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죽은 사람들과의 이 교감에서 우리 자신을 더 순수하고, 더 낫고, 현명하게 느낀다."[1] 라고 말하며 묘지의 방문이 산사람에게 이롭다는 것을 전하였다. 마운트 어번 묘지의 성공은 미국 전역에 전원묘지운동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미국인의 변화하는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하였다. 미국인들의 죽음관은 청교도의 우울한 염세주의와 관계된 죽음의 모습에서 현세에 대한 긍정과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태도로 변하게 된 것이다.[2]

[그림 2-10] 마운트 어번묘지
(출처 : https://interactive.wttw.com/ten/parks/mount-auburn-cemetery
검색일 : 20.11.29.))

[그림 2-11] 마운트 어번묘지
(출처 : doopedia.co.kr
(검색일 : 20.11.29.))

3. 동경 공동묘지

1) 동경과 공동묘지

1) https://interactive.wttw.com/ten/parks/mount-auburn-cemetery
2) https://en.wikipedia.org/wiki/Rural_cemetery (검색일 : 20.12.15.)

에도시대는 국가불교체제로 전환하며 장례는 대개 불교 사원에 맡겨졌다. 하지만 19세기 후반 동경은 메이지유신으로 인하여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메이지 정부는 근대화 과정에서 불교를 억제하는 신불분리(神佛分離)와 숭신억불(崇神抑佛)의 정책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불교가 독점하던 장례문화에 신장제를 보급하여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된 일련의 묘지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토에 거주하던 화족(華族)들이 천황과 함께 동경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종교(불교)와 무관한 신장지(神葬地)를 위한 새로운 묘지가 필요해졌다.[1] 종교적 측면 이외에 도시적 측면도 묘지 변화의 중요한 동인이었다. 이 시기 동경을 중심으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동시에 처리해야 할 시신의 증가는 묘지부족 문제로 나타났다. 종교적, 도시적 측면과 더불어 서구화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장례문화가 필요하였고, 그 결과 동경에 공동묘지가 탄생하였다. 1872년 황족과 화족을 위한 공동묘지 두 개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7월 '신장'이라는 조건 하에 일반인에게도 묘지를 개방하였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신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가 설치된 것이다. 이후 도쿄부에 공동묘지 4개가 추가로 설치되며 사원 중심의 전통적 묘지에서 공동묘지로 차츰 변하였다.

하지만 도시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매장 가능한 공간은 오히려 줄어든 반면, 인구와 토지 이용률은 증가하였다.[2] 그 결과 도시계획의 관점에서 기 설치된 공동묘지 이전의 필요성이 검토되었다. 공동묘지 이전에 대해 관·민 모두가 공감하며 당국의 주도하에 이전을 실행하고자 하였지만, 예정 지역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따라서 동경은 공동묘지의 도시 내 편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주변 지역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새로운 기술 개발에 힘썼고, 미국 공원묘지를 모델로 밝고 화려한 공간을 계획하였다. 공원묘지는 면적의 30% 정도만 묘지로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은 녹지로 계획하여 픽춰레스크한 경관을 형성하였다.[3]

---

1) 이은경, 앞의 논문, p.344-345
2) 이은경, 앞의 논문, p.341-342
3) 이은경, 앞의 논문, p.351

그 결과로 공동묘지는 배척의 대상이 아닌 다양한 측면에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관계를 맺는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이처럼 동경의 공동묘지 탄생 및 변화는 종교, 문화, 도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성립하고 변화한 결과였다.[1)]

2) 아오야마영원(靈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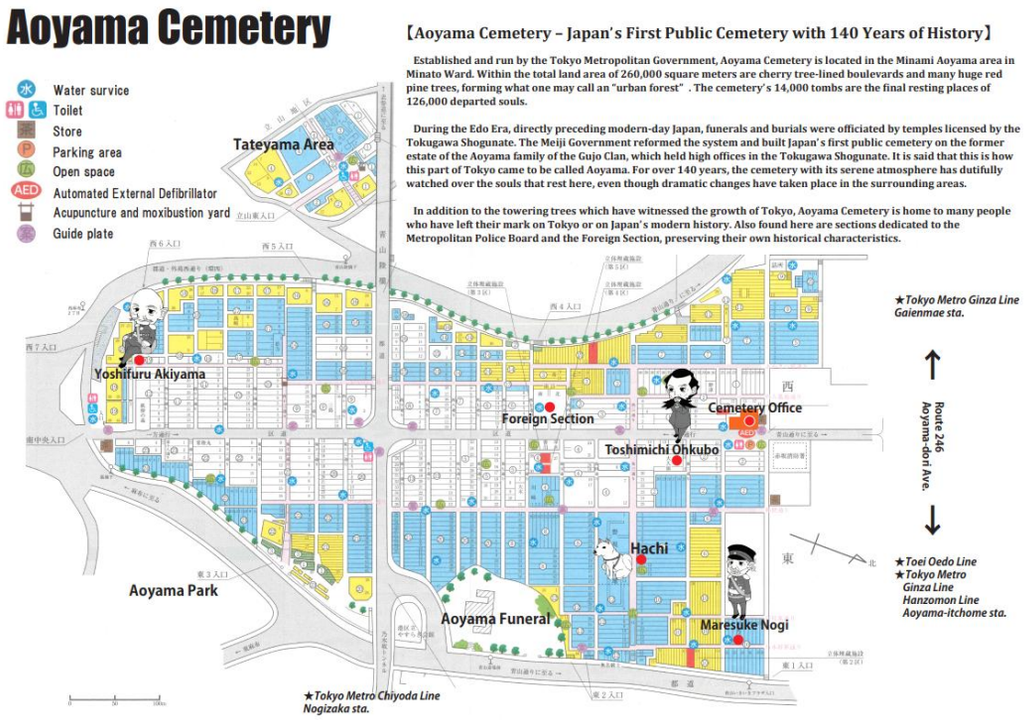
메이지유신 이후 교토에 거주하던 화족(華族)들이 천황과 함께 도쿄로 이주해오면서 신도 의식이 행해지는 장지가 필요해졌다.[2)] 이에 따라 황족과 화족을 위한 두 개의 묘지가 설치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현재 아오야마青山영원이다. 이후 같은 해인 1872년 7월 신장이라는 조건 하에 일반인도 매장할 수 있는 묘지로 성격이 변하면서 일본 최초로 신분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한 공동묘지로 전환되었다.

아오야마영원은 도쿄도 미나토구에 위치한 일본 최초의 공영 공동묘지이다. 공동묘지는 1872년 메이지 시대에 개원하였으며 면적은 약 8만평(26ha)이고 공원묘지로 조성되었다.[3)] 초기에는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일본의 명사들이 매장되며 유서 깊은 장소로 변하였다. 특히 그 중 일부는 문화재로 등록되어있을 정도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이다. 이후 동경은 근대화 · 도시화를 겪었지만, 공동묘지가 도시 내부에 유지되며 지금까지 도쿄 시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아오야마영원은 단순히 죽음의 공간을 넘어서 역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공간이자, 주변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산 자의 공간이다. 이 묘지는 근대도시 형성 원리와 마찬가지로 이동과 기능에 따른 공간 구획에 입각하여 격자형으로 계획되었다. 내부 도로의 위계를 설정하고 배치하여 공간을 구획하고, 블록에 따라 기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 우선 차량이 이동하는 동-서, 남-북으로 관통하는 십자

---

1) 호소연, 「메이지 시기 묘지 제도와 위생 : 장법과 묘지를 둘러싼 담론을 통하여」, 일본역사연구 제48집, p.294
2) 이은경, 앞의 논문, p.344-345
3) http://www.tokyo-park.or.jp/reien/park (검색일 : 2020.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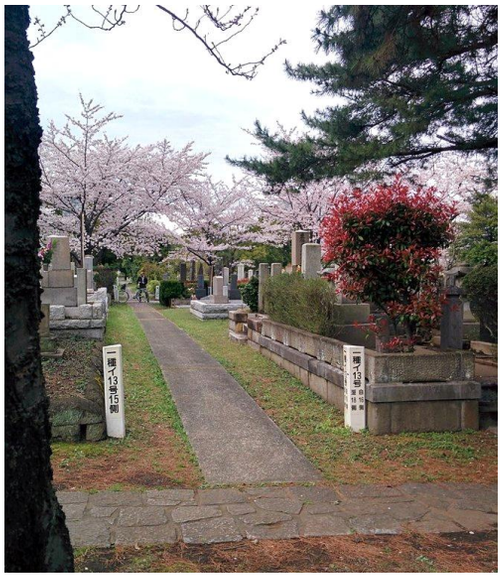
[그림 2-12] 아오야마영원 도면
(출처 : https://www.tokyo-park.or.jp/)

형 도로를 중심으로 주변에 보행 중심의 세가로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묘지 구조는 주변 도시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며 묘지가 도시의 일부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특히 남쪽으로는 젊음의 거리인 롯폰기와 이어져 있고, 서쪽으로는 시부야와 연결되고 있을 만큼 도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주변 고급주택지 및 아파트단지에 둘러싸여 죽은 자의 공간과 산 자의 공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1] 다음으로 공원묘지인 아오야마영원의 구획된 블록은 일본 특유의 조경감각이 깃들어 하나하나가 작은 정원을 이루었다. 특히 중심가로에는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어 봄이 되면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공동묘지가 도시 내에 성공적으로 편입되며 일제시기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일제는 아오야마영원을 모델로 1914년 이태원모범묘지와 1929년 홍제동 공원묘지는 신설하였고, 1940년대 공동묘

1) 박태호(2005), 앞의 책, p.286

지 공원화 계획에도 참고하였다.[1] 물론 전쟁으로 인한 재정 부족과 광복으로 인해 사업은 무산되었지만, 도쿄의 대표적인 공원묘지인 아오야마영원은 일제시기부터 광복 이후까지 우리나라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와 내부공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림 2-13] 아오야마영원
(출처 : https://koadvisortravel/poi/oyama-yeongweon)

[그림 2-14] 아오야마영원 전경
(출처 : https://ko.wikipedia.org/wiki/아오야마_영원)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 우선 일반묘지의 역사와 공동묘지의 개념을 정리하여 논문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전근대사회에서 묘지는 산 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장소를 형성하였고, 중세 이후에는 종교권력과 결합하여 도시공간의 중심요소로 부상하였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에서 죽음의 공간은 위생적 동시에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국가의 통제 및 관리를 받는 공간으로 전환되면서 공동묘지가 탄생하였다.

---

1) 高村龍平, 前揭書, p.153-154 / 박태호(2003), 앞의 책, p.44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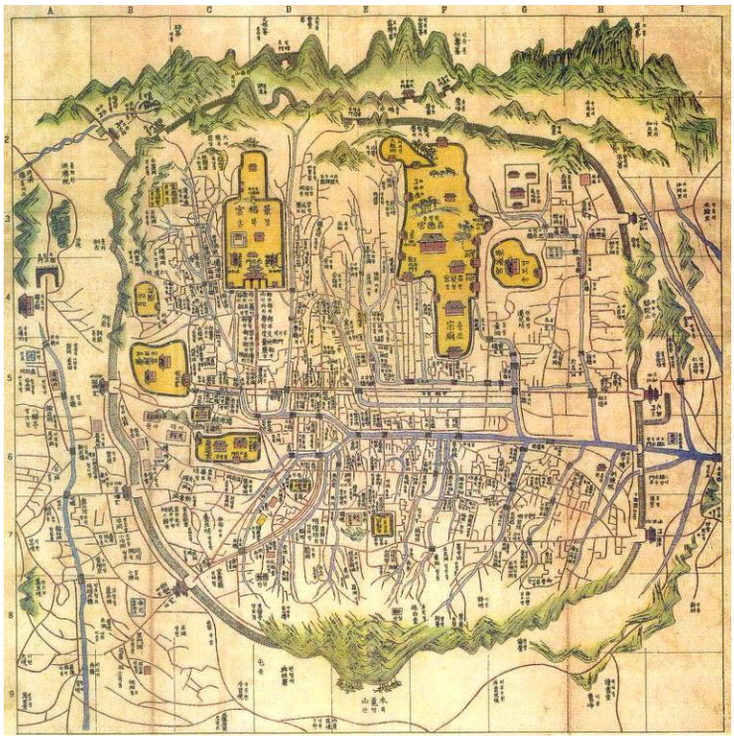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러 근대도시와 공동묘지 사례-파리, 보스턴, 동경-를 통해 도시 내 공동묘지가 산 자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 분석하고, 변화의 일반적 경향을 고찰하였다. 해외도시도 마찬가지로 근대화 과정에서 다수의 집단묘지를 폐지하고 도시 외곽에 공동묘지를 신설하였다. 이후 도시 확장 과정에서 근대도시는 공동묘지를 도시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각자의 방법을 모색하였다. 즉, 근대화 이후 도시와 공동묘지의 새로운 관계를 조율해낸 것이다. 이와 달리 서울은 도시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공동묘지를 도시 내에 유지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외곽으로 이전하였다. 도시와 공동묘지는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혐오시설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현재 서울에는 망우리묘지를 제외하면 공동묘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도시와 공동묘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서 산 자와 죽은 자가 교류하는 기반이 사라지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 현상은 해외 근대도시와 다른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묘지규칙이 공포된 1912년부터 1970년 서울 공동묘지의 명멸을 분석하여 폐지 원인을 고찰하고, 나아가 서울 근대화 과정의 특수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도시계획의 역사

제 1 절 경성(京城)의 도시계획

1. 대경성 이전(1910-1933)

1394년 한성은 조선왕조의 수도로 등장하였다. 수도의 결정 기준은 첫째 풍수지리(風水地理)상 훌륭한 자리이고, 둘째 수운이 편리하여 물자수송에 유리하며, 셋째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다는 점이었다.[1] 한성은 중국 『주례고공기』의 '좌묘우사(左廟右社)와 전조후시(前朝後市)' 배치개념에 입각하여 조선의 기틀이 되는 상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내사산과 능선을 따라 조성된 성곽과 4대문 · 4소문으로 내외가 구분되었고, 도성 내 공간은 유교적 신분 질서에 따라 분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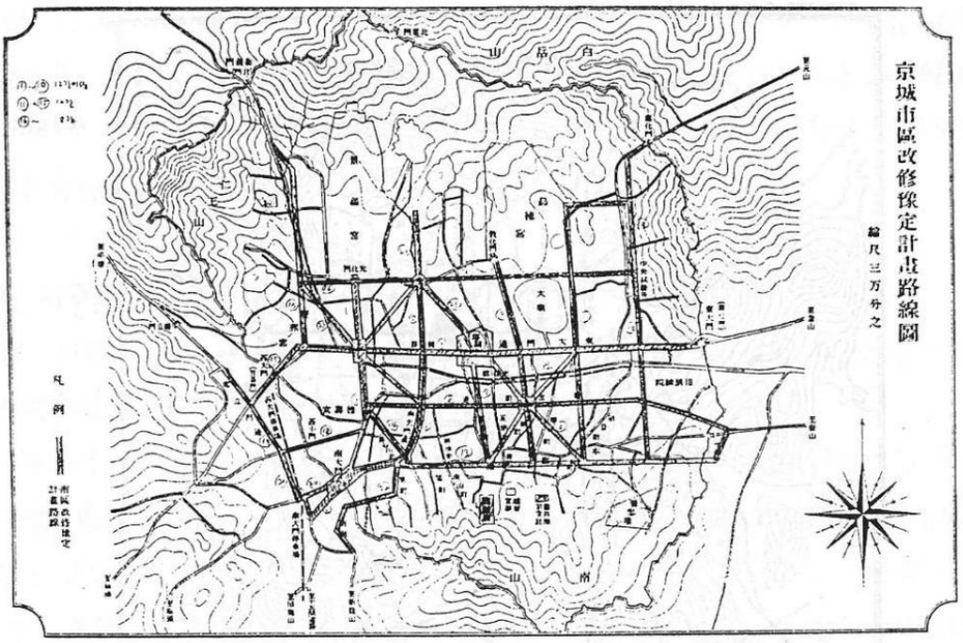


[그림 3-1] 1902년 한성부지도 (출처 :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 서울특별시, 2017, 『서울 도시계획연혁』,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p.177

한성의 도시공간은 500년 동안 유지되었지만, 19세기 후반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과 함께 조선의 자주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대한제국은 한성의 도시 공간을 근대적으로 개조하려고 시도하였지만 1905년 일제는 러일전쟁 승리 이후 통감부를 설치하며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게 되었다.[1] 이후 일제는 한성을 식민도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야욕을 드러내었다.

1910년 8월 한일합병과 함께 한성은 경성부로 개칭되었다. 한반도를 식민지화한 일제는 1912년 기초적인 개념의 도시계획인 경성시구개정을 통해 시가지를 정비하였다. 그 내용은 노선 직선화, 노선폭확장, 주요 도로의 보차분리와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후 1912년 11월 총독부는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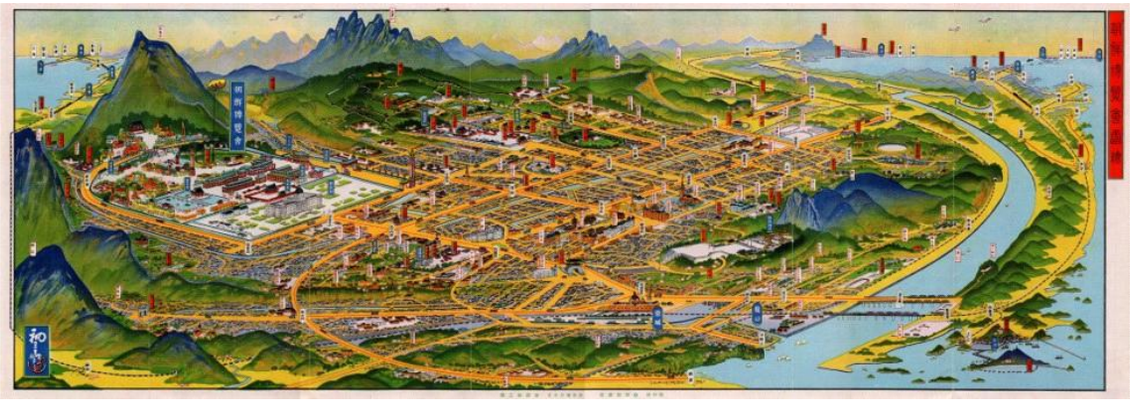


[그림 3-2] 1912년 경성시구개수예정계획노선도
(출처 : 매일신보, 1912.11.07.)

노선도를 살펴보면 4개의 동서 노선과 5개의 남북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통해 경성 도심부 전체를 연결하고자 하였다. 김기호에 따르면 경성시구개수사업은 식민지권력의 입장에서 조선 건국과 함께 탄생한 한성의 도시구조를 해체 및 재구성하고, 도심부의 격자형 도시구조

1) 김성태, 앞의 논문, p.39

를 시각화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1] 이 과정에서 일제는 서구 근대의 이식을 통한 식민도시 형성을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였다. 다시 말해 일제는 도시기반시설의 계획과 함께 식민정책을 가속화하며 서구 패러다임의 도시 문화를 경성에 유입시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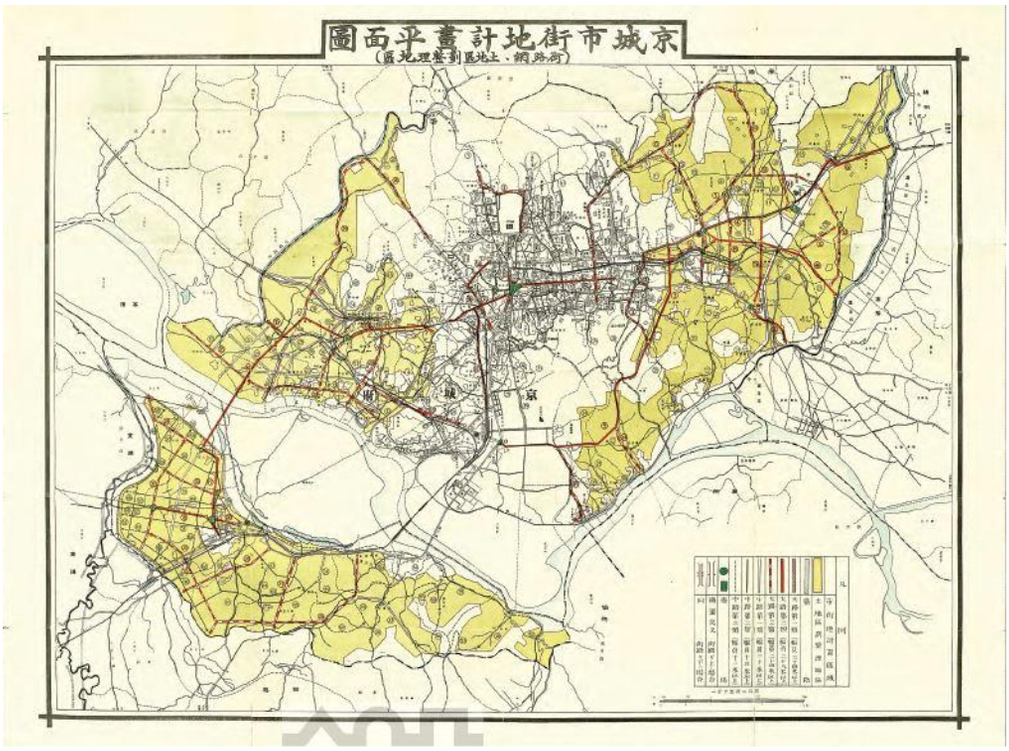
[그림 3-3] 1929년 조선박람회도회, 요시다 하츠사부로
(출처 : 도미이 마사노리 소장)

3·1운동 이후 식민지 지배정책이 1920년대 문화통치로 전환됨에 따라 도시계획에도 관·민연구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먼저 일본에서 1918년 고토 신페이와 내무성 관료들의 주도로 도시계획법 제정이 시작되었고,[2] 이는 조선에 영향을 끼치며 1920년대 경성의 지역 개발에 관한 '도시계획' 의제가 새롭게 등장했다. 1921년 재경성 일본인 유력자가 중심이 되고 일부 조선인 친일 유력자가 결합하여 경성도시계획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이들은 장래 100만 명을 포용하는 경성 건설을 목표로 조사를 진행되었다. 총독부와 경성부 또한 도시계획을 전제로 행정구역 확장에 대한 조사·연구활동을 진행하였다. 인구, 위생, 교통 등의 조사를 토대로 『경성도시계획 구역설정서』(1926), 『경성도시계획자료조사서』(1927), 『경성도시계획조사서』(1928), 『경성도시계획』(1930) 등을 간행하였다. 『경성도시계획 구역설정서』는 도시계획 구역 설정이 핵심 내용이었지만 도로망, 구획정리, (용도)지역제 등을 포함하여

1) 김기호,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6), p.54
2) 염복규, 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p.90

도시계획의 단초를 마련하였다.[1] 계획과정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4개 교외노선의 등장이다. 도성을 중심으로 동대문과 광희문에서 신설동-청량리-왕십리로 뻗어가는 동향축과, 남대문-서울역-삼각지-용산으로 이어지는 남향축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계획예정구역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인구, 인접 면과의 관계,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경성(大京城) 구역을 예정하였다. 이 시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구역, 토지이용계획, 가로망계획등 도시계획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법령이나 재원 등의 실행 수단을 포함하지 않아 사업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2. 대경성 이후(1934-1944)



[그림 3-4] 경성시가지계획 평면도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1931년 북선(北鮮)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추진되면서 새로운 공업도시 건설이 중요한 정책 목표로 부상하였다.[2] 이에 따라 도시계획을

1) 염복규(2016), 앞의 책, p.92 재인용

규정하는 법령이 필요해졌고,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이 제정되었다. 이후 경성부는 영등포지역을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였고, 도시계획조사위원회를 개편하여 구체적인 계획안 입안에 착수하였다. 경성시가계획안의 대원칙은 도심부의 현상을 유지하고 새로 편입한 외곽 지역을 집중 개발하는 것이었다.[1] 경성부는 1936년 2월 목표연도 1965년, 계획구역 135.36㎢, 계획인구 110만 명의 경성시가지계획을 결정하였고,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계획구역은 기본적으로 동부와 서남부 방향으로, 기존 경성의 약 4배 규모로 확장되었다.(그림 3-4 참조) 계획인구는 1921년부터 1933년까지의 인구를 고려하여 목표연도인 1965년에 110만 명으로 추정하였다. 경성시가지계획은 가로망 정비, 토지구획정리, (용도)지역 · 지구제, 공원·녹지 조성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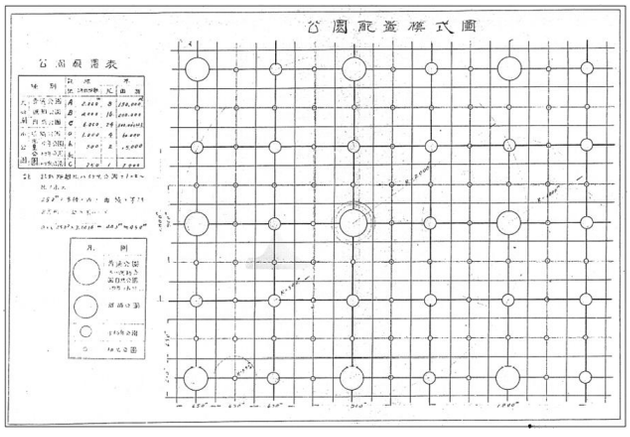
가장 먼저 12월에는 220개 노선, 면적 5.81㎢에 달하는 가로망 정비계획을 발표하였다.[2]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경성-인천, 경성-신의주, 경성-원산, 경성-강릉, 경성-오리진 등 경성과 지방을 연결하는 5대 간선과 연계하여 구성하였다.[3] 경성부 내의 교통망을 살펴보면 도심부를 중심으로 6개-용산, 청량리, 왕십리, 한강리, 마포, 영등포-구역이 주간선도로로 우선 배치되고, 6개 구역 중 인접한 구간은 준간선도로로 연결되었다. 또한 각 구역 내부 가로망은 소지역 개발구상을 고려하여 격자형으로 정비하고 방사형으로 연결하였다. 이는 구도심의 중심적 위치를 여전히 유지하며 시구개수를 통한 도시구조의 동질적 공간 복제 및 확장이라는 현대적 도시발전 패턴을 보여준다.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계획은 사실상 중단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 1955년부터 본격화되어 1960년대까지 사업이 진행되었다. 이 시기에 계획된 가로망은 지금까지 시내 간선도로망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그 다음으로 1937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다. 이는 무질서한 시가지를 질서있게 정리하고 미건축지는 정연하게 개발하여 토지의

---

2) 국가기록원, 2010,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 토목편』, 국가기록원, p.167
1) 염복규(2016), 앞의 책, p.134
2)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87
3) 염복규(2016), 앞의 책, p.138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전체 계획은 1936년에 입안되었지만 투기를 막기 위해 비공개 되었고, 당해 시행되는 부분사업계획만 발표되었다. 지역의 결정은 경성시가지계획의 기본구상을 반영하고 일부를 새로운 개발지역으로 선정하여 배치되었다. 1937년에 7개 지구, 1940년에 3개 지구가 추가되어 총 10개 지구, 18.6㎢면적이 계획되었다.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겪으며 국가재정이 부족하였고, 예정일을 넘어서거나 일부 지역만 사업이 진행되며 광복 이후까지 사업이 지속되었다. 또한 1939년 9월 용도지역·지구제가 계획되었다. 풍치지구는 약 29.27㎢를 지정하였고, 도성 내에 상업지역, 청량리 부근과 영등포지역을 공업지역, 동쪽과 남서쪽에 미지정지역과 나머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계획하는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경성시가지계획은 공원·녹지를 계획하였다. 1939년 초 경성부 내외의 산림지대 중 풍치가 좋은 20개 소(약 1,170만 평)에 지구 지정을 발표하였고, 그해 8월에는 기존 발표보다 면적이 1/4 정도 축소된 구체적인 계획안이 발표되었다.[1] 공원계획은 1인당 소요면적 20㎡를 설정하여 대공원 11개소, 근린공원 42개소, 소년공원 168개소, 유아공원 672개소를 책정하였다.[2] 이후 1938년 경성부는 공원을 대공원, 중공원, 소공원으로 분류하고, 소공원은 소학교와 연계하여 배치할 것이라는 내용을 수립하였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경성시가지계획이 방공을 목적으로 공원·녹지계획이 수정되었다. 경성부는 '도시계획'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전시를 준비하는 비상상황'이라는 논리로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비슷한 거리 내 공원을 위치시켜 방공공원 개념의 이상적인 공원 배치과 함께 도시 외곽의 풍치지구를 연결하는 공원도로 건설로 계획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하지만 토지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계획은 대공원 18개소, 도로공원 1개소, 근린공원 23개소, 아동공원 86개소 도합 140개소, 면적은 13.81㎢로 축소되었다.[3] 마지막으로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 당시에는 부재하였지만, 1939년 세

1) 염복규(2016), 앞의 책, p.222
2)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87
3)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87



[그림 3-5] 1940년 경성시가지계획공원결정안
(출처 : 경성부토목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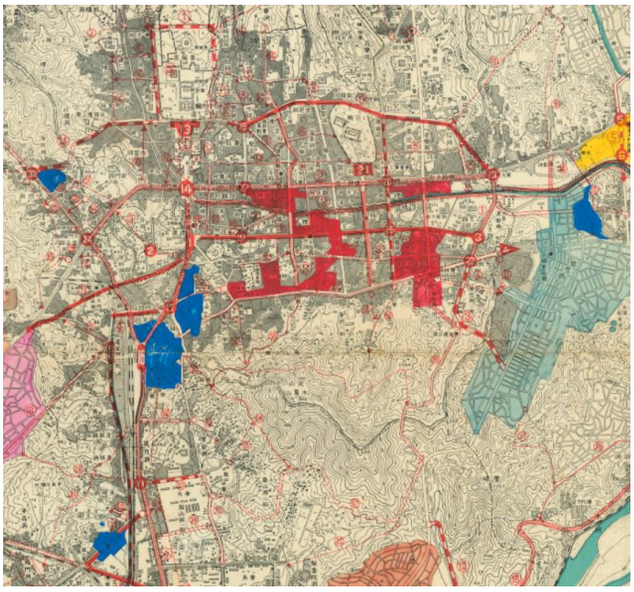
도로 계획이 새롭게 수립되었다. 도로 개수 사업과 별개로 진행된 세도로 사업은 방공이라는 명목을 빌어 실시된 도시 개조 사업이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주택이 밀집되어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능한 개소를 개량하고, 간선을 연결하여 유사시 피난하는데 있어 활용가치가 큰 장소를 골라 개수를 실시하는 것이었다.[1]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사업이 신속히 진행되었다는 점과 도시 형성과 사회에 미친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계획의 결과는 경성의 확장 · 도시공간의 용도 구획과 더불어 계층별 위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의도를 담고 있다.[2]

제 2 절 서울의 도시계획

1. 산업화 이전(1945-1961)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1946년 8월 16일 서울특별자유시로 발족하고 10일 후에 서울특별시로 승격되었다. 1949년 8월 행정구역 확장과 함께 인구 200만 명 대도시의 기틀을 형성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을 269.8㎢로 확장하였다.[3] 하지만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서

1) 안상민 · 이사다 준이치로 · 김주야, 2019, 「1940년대 방공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성)의 도시 개조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 p.111-148, p.132 재인용
2) 염복규, 2001, 「1933-1943 일제의 '경성시가지계획'」, 한국사론 Vol.46, p.248
3) 「서울市區大擴張」, 동아일보, 1949.4.13.



[그림 3-6] 1950년대 도시계획사업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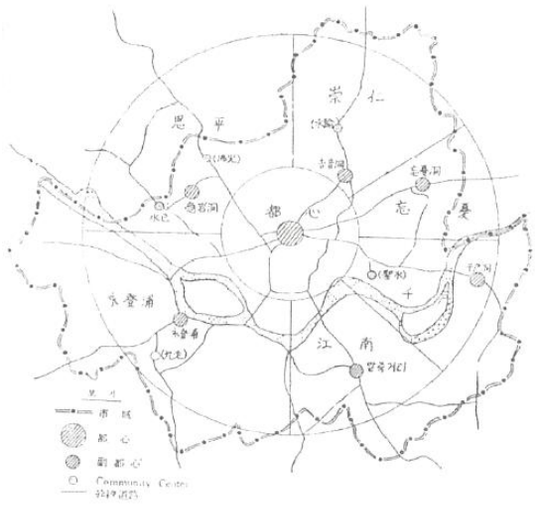
울은 파괴되었고, 이를 재건하기 위해 도시재건계획을 수립하였다.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1952년 서울의 도시재건계획과 가로망계획 및 용도지역계획을 입안하였다.[1] 도시재건계획은 '서울 도시계획 가로변경 · 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변경'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가로 및 광장계획을 포함하는 전재복구 구획정리사업이었다. 먼저 가로 및 광장계획을 살펴보면 39개 가로를 신설하고, 기존가로 6개를 폐지했으며, 18개의 기존 가로 너비를 크게 넓혔다. 대표적으로 광화문네거리-중앙청 가로 너비 100m로 확장, 광화문네거리-서울역 가로 너비 50m로 확장, 종묘앞-필동(현 세운상가) 가로 너비 50m로 확장 등의 사업을 통해 서울의 계획가로망이 더 길고 넓어졌다. 또한 한국전쟁으로 시가지가 파괴된 것을 계기로 이전에 비해 약 5.2배의 광장 면적을 계획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재정형편으로 인해 완전히 실현되지 못하면서 1962년 8개의 광장 넓이가 크게 축소되었다. 두 번째로 구획정리사업은 1952년 제1·2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이름으로 진행되었다. (그림 3-6 참조[2]) 전쟁으로 피해가 심한 도심지역과 주요 간선도로변의 건물을 재건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으로 토지구획정리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지역은 도로 협소 및 부정형 토지로 인하여 시가지로서 기능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토지이용의 정형화를 목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은 30개동(약 1.6㎢) 총 19개 지구에 걸쳐 진행되었다. 소규모의 사업지구가 불연속적으로 위치하여 사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토지이

1)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94
2) 붉은 색은 제1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파란 색은 제2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용의 정형화를 통해 도로와 공원용지를 확보하며 서울의 도시구조는 옛 조직에 그리드형 조직이 삽입된 결과를 낳았다. 용도지역계획은 일제시기보다 감소된 135.2㎢로 책정하였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증가한 반면 주거지역은 감소하였다. 또한 경성시가지계획에서 미지정지로 남겨놓았던 약 30.6㎢를 녹지지역과 혼합지역으로 추가하였다. 이는 조선시가지계획령(1934)에 바탕을 두었지만 도로확장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과 용도지역계획 등을 수립한 서울 도시계획의 효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산업화 이후(1962-1970)

1960년대는 서울의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하여 국가차원에서 경제개발계획이 시행되었다. 대도시가 국가성장의 중추역할을 하면서 서울은 실질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1963년 서울시는 도시계획구역 면적이 713㎢로 확대되며 재정비계획을 진행하였다. 서울시 재정비계획 목표연도는 1980년이고, 계획인구는 500만 명, 인구밀도는 ha당 121명으로 계획하였다.[1] 이 계획은 도시공간구조계획과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계획을 포함하였다. 먼저 도시공간구조계획은 도심기능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으로 은평, 숭인, 구로, 뚝섬지구로 구분하여 기능을 분산하였다. 4개 지구는 입지상 부도심개발에 적합한 위치에 놓여있어 생활편의시설과 상업지역을 지정하고, 교통수단을 고려한 터미널을 계획하였다. 또한 4개 지구는 주택지를 끼고 있어 도시구조상 경공업을 유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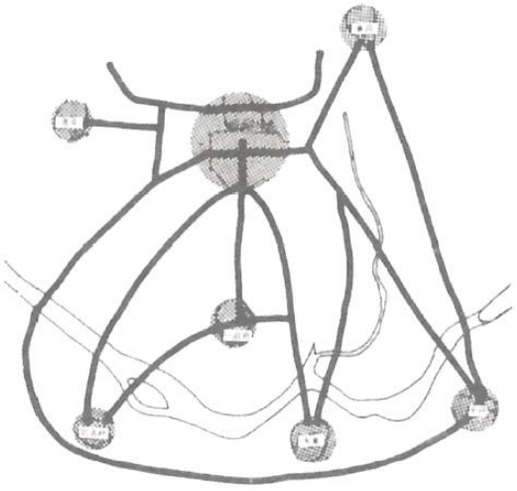


[그림 3-7] 1963년 부도심 세력권
(출처 : 『서울 도시계획연혁』, 2016)

1)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95

는 준공업지역을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주택지는 공업지개발과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중밀도로 계획되었다. 토지이용계획은 반경 5㎞는 중심 시가지로, 15㎞는 교외저밀도 주거지로, 25㎞는 녹지대로, 45㎞는 주변 지역으로 하는 환상지대를 구상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인구 추정은 200만 명으로 하고, 1차:2차:3차 산업비율은 2:40:58로 표준도시를 가상하였다. 용도지역계획은 도심을 중심으로 기능별로 11개 부도심을 형성하도록 계획하였다.[1)]

서울시는 1966년 인구 500만 명이 거주하는 현대 도시 건설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1985년으로 종합적 장기계획의 성격을 지닌 도시기본계획(마스터플랜)은 시민들에게 공개된 최초의 계획이었다.[2)]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공간구조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도시시설계획을 포함하였다. 먼저 도시공간구조는 도심과 용산을 중심으로 하고 창동 · 천호 · 강남 · 영등포 · 은평을 부도심으로 하는 1도심 5부도심체계를 설정하였다. 도심 및 부도심 주변부의 주택지는 고층화를 유도하였고, 가로망은 도심을 중심으로 부도심과 연결되는 방사형태로 계획하였다. 다음으로 인구배분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기능분산을 목적으로 토지이용을 계획하였다. 토지이용은 크게 주거가능면적과 주거불가능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주거불가능지역은 녹지지역으로 계획하였다. 총면적 713.24㎢ 중 451.21㎢를 주거가능면적으로, 나머지 면적은 녹지지역에 포함되었다. 주거가능면적은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다시 세분화되며 계획되었다. 교통계획은 도심과 부도심간의 연계, 위성도시와의 연결도로와 다핵도시건설에



[그림 3-8] 1966년 기본구조계획
(출처 : 『서울 도시계획연혁』, 2016)

1)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95
2)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96

적합한 보조간선도로 확보를 목표로 도로율을 약 20%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이는 순환선 4개 노선, 고속도로 7개 노선, 방사선 13개 노선, 지하철 4개 노선과 부간선, 시내고속도로, 연안도로로 구상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시시설인 주택공급, 공원·녹지, 상수도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택공급계획은 주택부족수를 35만 호로 추정하여 주택계획수 42만 호, 주택건설목표 33만 동을 설정하였다. 이 중 서울시는 20만 동을 건설하고 나머지는 민간회사가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공원·녹지는 1인당 녹지면적을 53㎡로 설정하여 총면적 26.20㎢를 계획하였다. 또한 상수도는 공급인구를 450만 명, 1인당 급수량을 300ℓ로 설정하여 일일 급수량을 1,350,000㎥/일로 계획하였다.[1] 이 시기에 들어서서 서울의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시작되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최초의 독자적인 서울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사에 하나의 전환이 되었다.

제 3절 소결

본 장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1912-1970년 사이의 도시계획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1910년대 식민지 초기 경성은 시구개정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가로의 직선화, 확폭, 신설등을 진행하는 가로정비 사업이었다. 사업은 1·2·3차에 걸쳐 1936년까지 진행되지만, 초기 10년 동안 대부분의 사업이 진행되었다. 일제는 문명이라는 명목 하에 기존 도성의 도시구조를 해체하고 격자형 도시구조를 시각화하였다. 1920년대는 문화정치의 영향 하에서 관영·민영 도시계획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1921년 창설된 경성도시계획연구회는 도시 확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였다. 물론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하여 실행되지 못하였지만, 이 계획안은 도로망, 구획정리, (용도)지역제를 포함하며 경성시가지계획의

1) 서울특별시(2017), 앞의 책, p.197

바탕을 이루었다. 1930년대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공포하며 법적 효력을 가진 최초의 도시계획이 진행되었다. 1910년대부터 이어져오던 시구개정사업이 경성시가지계획으로 대체되었고, 1920년대에 세운 가로망, 토지구획정리, 용도지역제의 구체적인 사업이 차례로 공고되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도시계획사업이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대는 일제가 전시상황에 돌입하며 도시계획은 방공계획의 목적 하에서 진행되었다. 경성에서는 풍치지구와 공원이 결합한 방공 공원과 화재에 대비한 방공 세도로 사업이 이루어지며 서울의 도시구조는 다시 한 번 많은 변화를 겪었다.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1950년대에는 전재복구계획이 이루어졌다. 우선 도성 내에 위치한 가로와 소규모 사업지구가 복구되었고, 이후 경성시가지계획에서 완공하지 못한 지역의 일부 사업이 진행되었다. 1960년대는 도시계획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토 공간 조직화에 기여하였다.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1963년 서울시 재정비계획, 1966년 최초의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세웠다. 시역확장과 함께 새로운 도시공간구조, 토지이용, 교통계획, 도시시설 계획을 통하여 장기적인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개발과 함께 도시계획이 진행되며 도시의 평면적 확장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도시계획의 변화 과정은 시유지인 공동묘지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다음 장(4장, 5장)에서 살펴볼 묘지계획 및 제도 · 공동묘지 공간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 분석한 도시계획의 시기 구분을 통해 공동묘지의 폐지 과정을 자세히 고찰하였다.

[표 3-1] 도시계획 변천

	일제시기				대한민국 정부시기	
시기 (연도)	대경성 이전		대경성 이후		산업화 이전	산업화 이후
	1912-1920년	1921-1933년	1934-1939년	1940-1944년	1945-1961년	1962-1970년
주요 사건	시구개정	경성도시계획운동	조선시가지계획령 경성시가지계획	방공계획	도시재건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
내용	식민지화 초기의 도시계획	경성시가지계획의 토대	시구개정사업이 시가지계획으로 대체	전시 체제로 인한 도시계획	한국 전쟁 피해 복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국토공간 조직화
도시 계획 및 사업	1912-1918 시구개수 제1기공사	1919-1928 시구개수 제2기공사 1921 조사계·도시계획연구회 1926 경성도시계획 구역설정서 1929-1936 시구개수 제3기공사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1936 경성시가지계획 1937-1940 토지구획정리사업 1939 용도지역·지구계획	1938-1944 공원·녹지계획 1939-1944 방공 세도로 사업	1952 가로변경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1952 중앙토지구획정리사업	1962 도시계획법 제정 1963 서울시 재정비계획 1966 서울도시기본계획

제 4 장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

제 1 절 일제시기

1. 형성기(1912-1920)

형성기는 묘지규칙의 시행으로 경성부 관영 공동묘지가 신설되는 시기이다. 1900년대 초 도시계획은 주로 도성내부의 도시구조를 변화시키는 시구개수사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도성 밖은 경인선의 연장과 군사용 목적의 신용산역 건설이 중점 사업이었다. 조선시대는 도성 내 묘지 설치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시구개수사업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지만, 도성 밖 남대문 정차장 건설, 신용산 군사기지 건설 사업 과정에서 묘지 분쟁이 일어났다. 20세기 초 도성 밖에 산재한 분묘는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물이 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일제는 공동묘지 통제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특히 식민주의의 핵심이 토지 침탈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일제는 조선에서 토지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를 수탈하였고, 일본인의 토지소유권 확보에도 기여하였다.[1] 이 시기 빈번하게 북망산이 폐지되었고, 묘지규칙도 이러한 토지의 법적 수용의 흐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 *1903년 남대문 정차장 건설 예정 지역을 둘러싸고 한일 정부간의 분쟁이 생겼는데, 이 지역 안에 분묘 1,600여 기가 있었던 것이 특히 문제가 되었다. 1905년에는 일본군이 신용산에 군사기지를 만들기 위해 가옥 · 토지 · 묘지를 수용했다. … 또 1907년에도 동대문 밖 둔지미 등지에 일본군이 군용 토지를 점령하고 분묘 이전을 강요했다.[2]*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경성을 식민지 수도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토지정책을 시행하였다. 특히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묘지는 일제에게 중요한 수탈의 대상이었다.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123호 묘지규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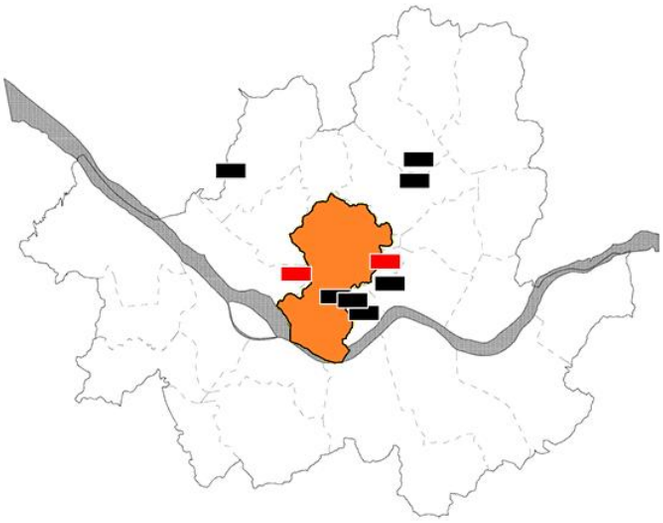
1) 이항아, 2014, 「공동묘지, 식민지 경성을 잉태하다」, 한국공간환경학회 추계학술대회, p.350-351
2) 송현동, 앞의 책, p.89

을 공포하였다. 일제가 인정하지 않는 장소에 공동묘지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이 묘지규칙의 핵심내용이었다.[1] 총독부의 묘지규칙 제정 이유는 종래의 미신 타파, 범죄와 분쟁 예방, 민력의 육성, 분묘의 위생적 관리 등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토지 침탈이 목적이었다.[2] 1913년 총독부는 마스터플랜 없이 경성부 관영 공동묘지 19개소를 발표하였다.[3] 1년 만에 19개소가 신설되었다는 것은 공동묘지가 새롭게 형성되었다기보다 기존 북망산을 제도적으로 변경하였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경성부 내에 선정된 공동묘지 이외의 묘지들이 많았지만, 일제는 묘지규칙을 통해 새로운 묘지 증가를 억제하였다. 이후 19개 공동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묘지를 폐지시키고 토지를 수탈하였다. 묘지규칙 공포와 공동묘지 신설을 통해 조선인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매장할 수 있었던 북망산과 달리 국가에 신고를 하고, 정해진 장소에만 매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일제는 사자(死者)까지 엄격한 규율을 통해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성부의 크기가 축소되었고, 관영 공동묘지도 6개(동일개소 3개소)[4]-수철리묘지, 신사리묘지, 이태원묘지, 미아리묘지, 신당리묘지, 아현리묘지-로 축소되었다.[5](그림 4-1 참조) 경성부는 1914년부터 6개 공동묘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묘적대장을 작성하고 일부 묘지를 정리하였다.[6] 1915년 아현리묘지에 약 4,700원을 투자하여 기존분묘 정리와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태원묘지도 공사를 실시해 그 해 말에 완성되었다.[7] 경성부가 아현리묘지에 상당한 예

---

1) 묘지규칙 제2조
2)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14, 『(국역) 경성부사3』, 서울책방, p.338
3) 「京城府內 공동묘지사용지역」, 매일신보, 1913.9.7.
4) 19개 공동묘지 선정 과정에서 이태원묘지(7, 8번)는 '한지면 한강'과 '이태원 장문동' 지역 두 곳에 위치하였고, 1914년 이태원모범묘지(21번)가 추가로 신설되었다. 이후 경성부고시에서 "이태원동, 한강동, 보광리 소재 경성부 묘지를 이태원묘지라고 칭한다"라고 서술한 점을 통해 세 곳 모두 이태원묘지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미아리묘지(1, 2번)는 '숭인면 미아리' 지역 내 두 곳에 위치하였다. 동일 고시에서 "고양군 숭인면 미아리 동록(東麓) 소재 경성부묘지를 미아리묘지라고 칭한다"라고 서술한 점을 통해 두 곳 모두 미아리묘지로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2014), 앞의 책, p.52
6)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2014), 앞의 책, p.162
7)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2014), 앞의 책, p.302



[그림 4-1] 1914년 경성부 공동묘지 위치

산을 투자한 이유는 내지인묘지의 부지를 정리하고, 화장장 및 설비를 마련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1] 이를 통해 묘지의 입지와 관리의 측면에서 총독부는 조선인묘지와 내지인묘지를 철저하게 구분하여 운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묘지규칙 시행 1년 후 일제는 도쿄 아오야마 묘지를 모방하여 귀족부터 차부(車夫)까지 함께 매장하는 '모범묘지'를 신설하였다. 한지면 이태원의 국유임야 약 40정(12만평)을 양도받아 이태원 묘지가 새롭게 설치하였고, 1916년부터 사용이 허가되었다.[2] 1919년 3·1운동 이후 일제는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략을 선회하고 우선적으로 묘지규칙을 개정하였다. 핵심 개정 내용은 사설묘지 및 가족묘지를 허용하는 조항이었다. 선산을 소유한 부유층은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빈민들은 여전히 관영 공동묘지를 사용해야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후 공동묘지는 약 10년의 기간을 거치며 도시의 대표적인 사자(死者)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

1) 「共同墓地整理 : 내지인은 阿峴, 조선인은 梨泰院, 墓籍申告는 二月十五日까지」, 매일신보, 1915.1.21.
2) 「模範墓地 設置計劃」, 매일신보, 1914.6.21.

2. 정비기(1921-1933)

정비기는 경성도시계획연구회가 창설되며 묘지정리계획을 통해 도시 내 공동묘지 운영의 기반을 형성한 시기이다. 1920년대는 경성도시계획연구회 단체가 형성되고 최초로 도시계획을 위한 조사가 진행되었다. 경성부는 행정구역 확장을 목표로 하여 교통 · 인구 등의 조사를 통해 1926년 『경성도시계획 구역설정서』를 간행하였다. 이 계획안의 핵심 내용은 4개 교외노선의 등장이다. 기존 행정구역 밖인 청량리, 왕십리, 삼각지, 신당리로 향하는 교외노선을 계획하여 행정구역 확장에 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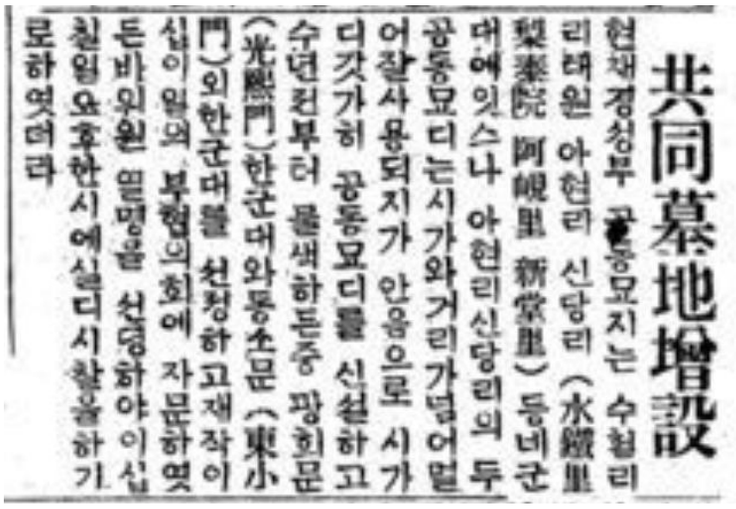
共同墓地=整理計劃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데는 이삼년이 걸너어

[그림 4-2] 공동묘지 정리계획 (출처 : 동아일보, 1923.2.10.)

1910년대를 거치며 공동묘지가 사자의 공간으로 확고하게 자리았고, 1920년대에는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묘지정리계획을 세웠다.[1] 계획의 내용은 *"지금까지 내무계의 관할에 있던 것을 이번에 위생계에서 사무를 인계하여 이상적으로 묘지의 대정리를 행하기 위하여 여섯 군대를 모두 실제로 조사해본 결과 심히 난잡히 매장한 위치가 많아서 그것을 모두 정리"* 한다는 내용이었다.[2] 다시 말해 현재 공동묘지는 기존 북망

1) 「墓地整理計畫」, 동아일보, 1921.11.24. ; 「墓地改善豫算」, 동아일보, 1923.2.10.

산을 제도적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하여 내부 공간이 난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정비하여 근대적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이었다. 이후 경성부는 예산을 마련하고 일부 공동묘지를 정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共同墓地增設

현재경성부 공동묘지는 수철리 리태원 아현리 신당리 (水鐵里 梨泰院 阿峴里 新堂里) 등네군데에잇스나 아현리신당리의 두 공동묘디는시가와거리가넘어멀어잘사용되지가 안음으로 시가디갓가히 공동묘디를 신설하고 수년전부터 물색하든중 광희문 (光熙門)한군대와동소문 (東小門)외한군대를 선정하고재작이십이일의 부협의회에 자문하엿든바위원 몃명을 선정하야 이십칠일요후한시에실디시찰을하기로하엿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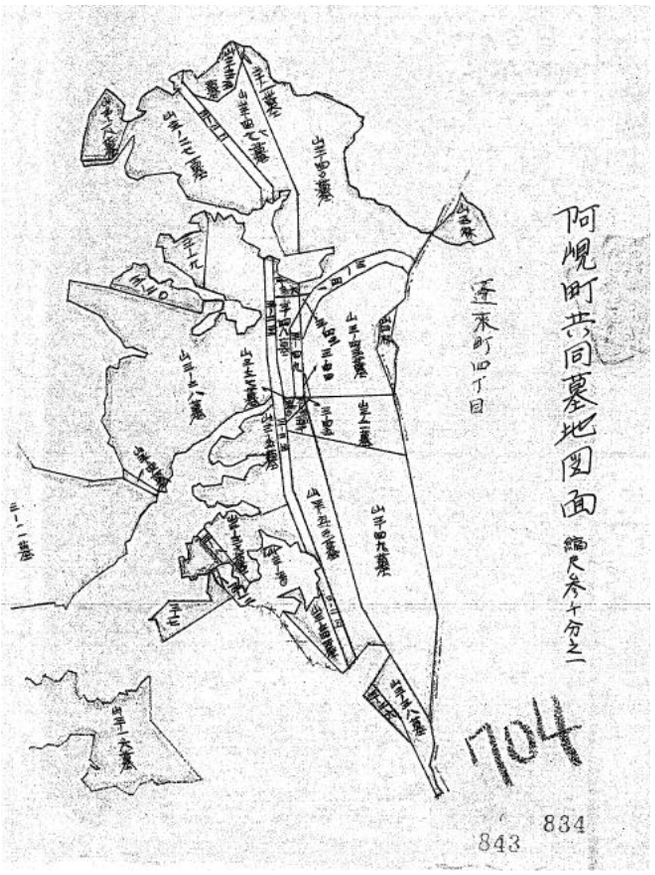
[그림 4-3] 공동묘지증설 (출처 : 동아일보, 1926.09.24.)

하지만 1920년대 중반 경성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도시 확장이 계획되면서 묘지계획의 방향도 선회하였다. 도성과 가까운 공동묘지가 만장에 가까워지며 추가 묘지를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우선 도시계획에 의한 교외노선의 등장으로 경성의 동부지역과 남서부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었고, 신당리묘지와 아현리묘지는 이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며 폐지가 계획되었다. 내지인묘지는 사용면적과 분묘수가 현저히 적어 공동묘지 이장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장이 계획된 것이다.[1] 이후 1926년 묘지증설계획을 세우고 후보지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2] 1928년 인접면 조사 과정에서 묘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접면의 경우 1인당 묘지 사용면적이 경성부에 비해 1.5배 넓지만, 실제 묘지에 안치한 면적은 경성부의 0.23-0.33배 정도였다. 따라서 경성부 확장시 새로운 묘지는 인접면에 위치시키지만 가능한 협소하게 계획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성도시계획조사서에 따르면 경성부와

2) 「共同墓地 整理計劃」, 조선일보, 1921.11.19.
1) 박태호(2003), 앞의 책, p.43 재인용
2) 「共同墓地增設」, 동아일보, 1926.9.24.

인접면 묘지의 총면적은 88만 평에 달하기 때문에 충분한 묘지면적이 확보되어 있음을 언급하였고, 일대의 정리를 통한 묘지미화가 이루어진 공원묘지 조성의 필요성을 서술하고 있다.[1] 이에 따라 경성부는 부역 확장과정에서 묘지면적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 내 묘지를 폐지하고 외곽에 새로운 묘지를 신설하였다. 1926년 일제는 묘지증설계획을 통해 내지인묘지인 홍제동묘지와 조선인묘지인 미아리묘지와 망우리묘지를 신설하였다.

우선 1929년 고양군 은평면 홍제내리에 6만8천 평 규모의 공동묘지가 신설되었다.[2] 홍제동묘지는 내지인묘지로 신당리묘지와 아현리묘지의 폐지 이후 도시 외곽에 신설된 공동묘지였다. 홍제동묘지 신설 직후, 신당리묘지는 유연묘 965기 중 내지인 분묘 883기는 홍제동묘지로, 조선인 분묘 82기는 수철리묘지로 이장하였고, 무연묘 3천5백기는 수철리묘지로 이장한다는 공고와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3] 이후 사라진 공간은 전원도시로 계획되어 고급주택지로 전환되었다.



[그림 4-4] 아현리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1932년 아현리묘지도 시구개수사업이 진행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묘지의 개장 및 폐지가 진행되었다.[4]

1) 이연식 · 최인영 · 김경호 번역, 2016, 『(국역)경성도시계획조사서』, 서울역사편찬원, p.62-63
2) 「共同墓地候補地는 弘濟內里로 決定」, 동아일보, 1927.8.21.
3) 「新堂里所地」 公同廟薦葬」, 동아일보, 1928.8.20.
4) 「阿峴墓地廢止」, 동아일보, 1932.5.13.

이 과정에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아현리묘지는 폐지되었지만 이후 공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즉 총독부 주도의 공간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빈민들의 거주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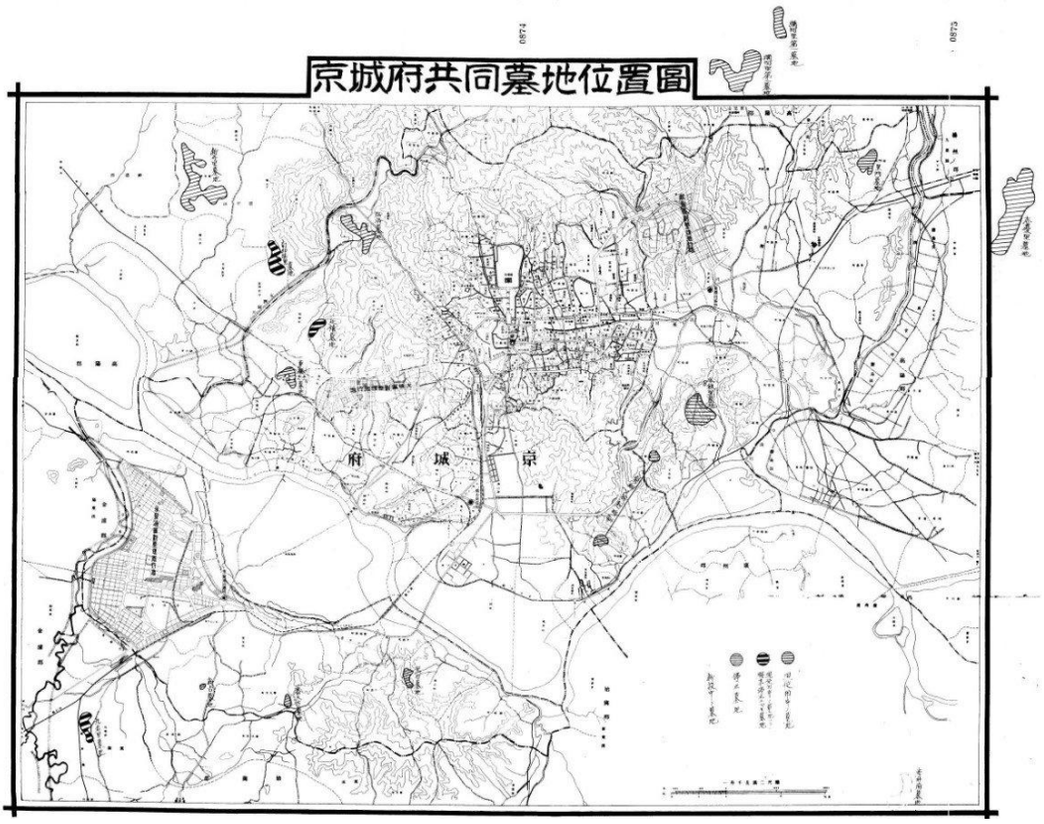
[그림 4-5] 망우리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한편, 내지인묘지와 달리 도성과 가까운 조선인묘지-이태원묘지, 수철리묘지-는 이미 만장에 가까워 새로운 공동묘지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따라 경성부는 도심지 외곽에 14만평 규모의 미아리묘지(1930)[1]와 경기도 소유임야를 매수하여 52만평 규모의 망우리묘지(1933)[2]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수철리묘지와 이태원묘지의 이용을 분산시키도록 계획하였다. (그림 4-5 참조)

이 시기 경성부는 조선인묘지보다 반발이 적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 내지인묘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주시킴으로써 동 · 서 방향의 도시 확장 기점을 확보하였다. 또한 1910년대와 마찬가지로 조선인과 내지인은 각기 다른 공동묘지에 매장시키며 산 자보다 더 철저하게 분리하였다. 내지인을 매장하는 홍제동묘지는 새로운 방식의 공원묘지[3]로 설치하는 반면, 조선인을 매장하는 미아리묘지는 보통 공동묘지로 설치하여 민족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계획한 것을 알 수 있었다.

1) 「彌阿里共同墓地開始」, 조선일보, 1930.5.20.
2) 「地下에도 住宅難!」, 동아일보, 1933.9.8.
3) 박태호(2003), 앞의 책, p.44 재인용

3. 계획기(1934-19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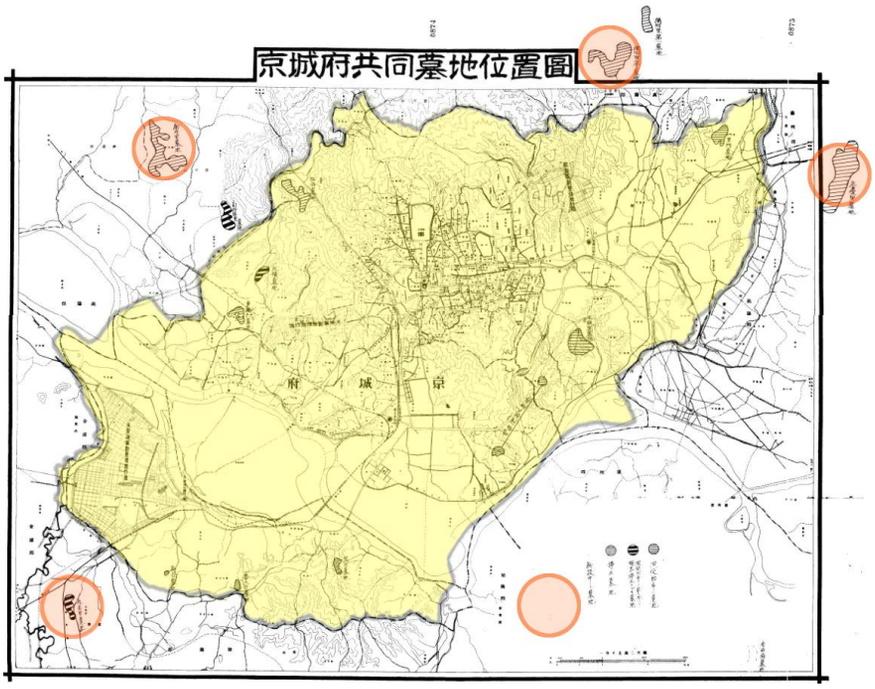
[그림 4-6] 1941년 경성부 공동묘지 위치도 (출처 : 국가기록원)

계획기는 경성부 관할구역의 확장되면서 방사형 묘지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1930년대는 조선시가지계획령 제정과 조선총독부의 대경성계획(大京城計劃)에 따라 경성부 관할구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새로운 지역을 포함한 경성은 시가지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도로망, 토지구획정리사업, 용도 지역제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교외노선을 따라 동부지역의 돈암과 남서부지역으로 영등포, 대현, 한남지역 등이 토지구획정리사업지로 결정되며 경성부는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경성부역 확대로 인해 1913년에 선정된 19개 공동묘지 중에서 6개를 제외한 관영 공동묘지가 다시 포함되었고, 4개 공동묘지-흑석묘지, 번대묘지, 신길묘지, 구로묘지-가 추가로 편입되었다.[1] 경성부는 새롭게

1) 이숙미 · 오충현, 앞의 논문, p.34-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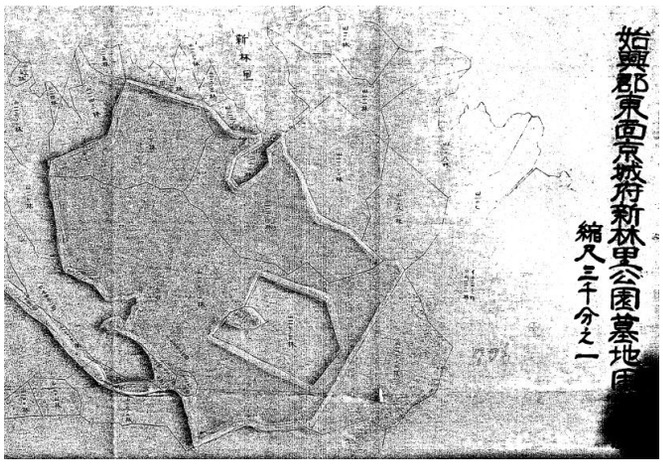
편입된 공동묘지를 정리하기 위해 조선의 묘지관습을 연구하고 근대도시의 묘지정책을 깊이 있게 검토하였다. 경성부는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1939년 새로운 방사형 묘지계획을 수립하였다.[1] (그림4-7 참조) 이는 경성부 외곽지역에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방사선상의 원거리에 5개 공동묘지를 배치하는 내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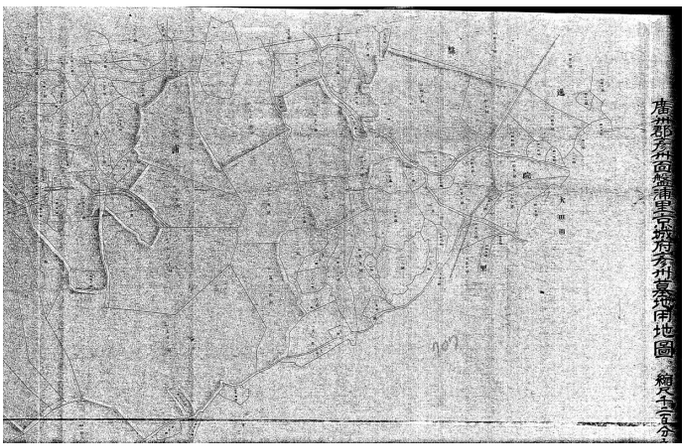
[그림 4-7] 방사형묘지계획 5개 공동묘지 위치

방사형 묘지계획은 17개의 공동묘지 중 3개소-신사리묘지, 미아리묘지, 망우리묘지-의 공동묘지를 확장하고, 2개소-구로리묘지, 언주면묘지-를 신설하여 다섯 곳의 묘지를 경성부 외곽에 배치하는 계획이었다.[2] 이에 따라 경성부는 광주군 언주면에 약 10만평 부지를, 시흥군 동면에 약 11만평 부지를 매수하여 묘지를 설정하였다.[3] (그림 4-8, 4-9 참조) 새로운 묘지계획은 공동묘지가 권역별로 도시 경계부에 위치하였고, 총 면적은 일인당 한 평으로 산출하여 약 100만 평 규모로 계획되었다.

1) 박태호(2003), 앞의 책, p.48-49 재인용
2) 「生存한때는住宅難 死後)에는墓地難」, 조선일보, 1939.3.28.
3) 「共同墓地新設」, 조선일보, 1939.3.18.



[그림 4-8] 신림리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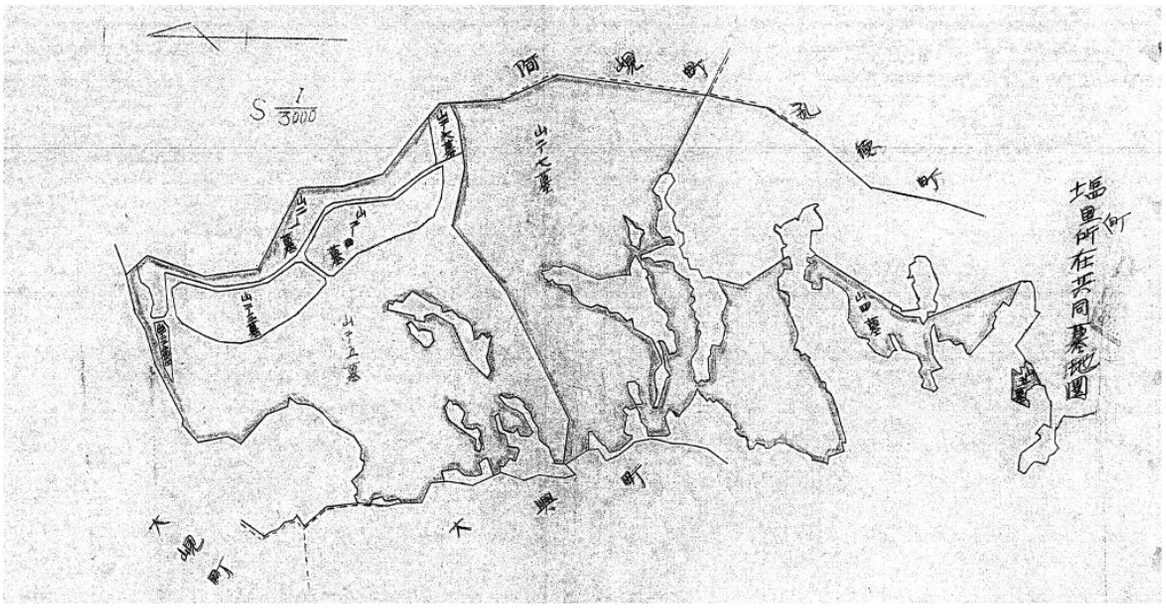
[그림 4-9] 언주면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이 시기 공동묘지와 관련된 사회문제는 토막민의 문제였다. 이들은 주로 공동묘지나 야산 주변에 토막촌을 형성하며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경성부는 토막촌을 철거하였지만, 그들은 다른 공동묘지 주변에 새로운 촌락을 형성하면서 토지 소유주와 마찰을 일으키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경성부는 1930년 경성시가지계획에서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세민지구(細民地區)'를 형성하여 이들을 포섭하고 새로운 인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지연되면서 세민지구 형성도 무산되었다. 1930년대 토막민은 빈민, 전재민, 수재민 등의 이름으로 바뀌며 공동묘지에 촌락을 형성하였고 1970년대까지 공동묘지와 관련된 사회문제를 지속적으로 일으켰다.

방사형 묘지계획의 진행과 동시에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된 이태원제1묘지와 염리묘지는 폐지되었다. 먼저 도심 남부지역에 위치한 이태원제1묘지[1]는 약 4만5천여 기의 분묘가 매장되었고, 1931년 매장이 금지되었다. 이 지역은 도시개발이 예정되었고, 1937년 한남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며 개장이 진행되었다. 1936년부터 유연묘 4,778기는 미

1) 공동묘지 운영 초기 경성부는 이태원동, 한강동, 보광리 묘지를 이태원묘지로 통칭하였지만, 이후 이태원1묘지와 이태원2묘지로 나누어 관리하였다. 이태원1묘지는 이태원동과 한강동에 위치한 공동묘지로 추정된다.

아리묘지와 망우리묘지로 이장하고, 무연묘 28,338기는 화장 후 신사리묘지와 망우리묘지에 합장하며 1937년 이태원제1묘지가 폐지되었다.[1)]



[그림 4-10] 염리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1939년에는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라 서부경성발전이 가속화되었다. 도심 서부지역에 위치한 염리묘지는 대현토지구획정리지구에 일부가 포함되며 개장이 진행되었다.[2)] 염리묘지가 포함된 북아현정·대현정·노고산정에서 3,000여기의 분묘를 개장하여 신사리묘지로 이장한다는 자료가 일부 남아있지만,[3)] 나머지 분묘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기 경성부는 도시계획이라는 명목하에 도성과 가까운 조선인묘지를 강제로 폐지시켰다. 그들은 '문명'이라는 논리로 공동묘지를 도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근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그 속도와 노골성을 고려해볼 때, 일제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생산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4)] 한편, 조선인의 입장에서도 이미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된 공동묘지의 폐지는 새로운

1) 「希望대로 埋,火葬」, 동아일보, 1936.5.8. ; 박태호, 앞의 책, p.48-49 재인용
2) 「鹽里墓地도 改葬」, 조선일보, 1939.3.16.
3) 「逐出되는白骨 西部京城發展의 癌三千餘基墳墓改葬 北阿峴町大峴町老姑山町內에서 整理」, 조선일보, 1939.2.15.
4) 정일영(2013), 앞의 논문, p.111-112

도시 이미지 형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공동묘지 폐지와 도시개발에 큰 저항을 일으키지 않았다.

4. 통제기(1940-1944)

통제기는 묘지정책의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묘지통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이다. 1937년 중일전쟁과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로 인하여 일제의 도시계획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경성의 발전을 도모했던 경성시가지계획이 방공을 중심으로 개편되며 방공 공원과 방공 세도로 사업으로 이어졌다. 이는 경성에 새로운 도시구조를 형성하였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전시체제라는 이데올로기를 통해 방공계획이 시행되었지만, 이외의 도시계획 및 사업은 인력과 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연되었다.

> *기타(묘지)는 벌써 만원상태를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위치와 거리가 한결같지 않아 여러 가지로 이용하기에 불편한데 인구가 자꾸만 늘어가는 이때에 이것을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도시 발전상으로 보아서 여간 큰 지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경성부에서는 대경성의 발전에 비추어서 묘지백년의 대계를 세우기 위하여 묘지통제계획을 세우고 이상 열 일곱 곳을 정리하기로 되었다.*[1]

1939년 5개 공동묘지의 확장 및 방사선상으로 배치하는 묘지계획 이후 경성부는 1940년 5개를 제외한 나머지 묘지를 3-4년간에 순차적으로 철폐하는 묘지통제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성부는 매장 여유 공간이 부족하고, 시가지계획 수행 과정에 지장을 초래하며, 도시 미관을 고려하였을 때, 공동묘지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2] 다수의 묘지를 폐지한 만큼 5개 공동묘지의 확장을 통해 경성부의 사자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묘지 계획을 세우고 방사형으로 묘지를 위치시키며 권역별 분산배치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였다.

---

1) 「京城府墓地統制計劃 明年度에 完成豫定」, 조선일보, 1940.6.13.
2) 박태호(2003), 앞의 책, p48 재인용

京城府墓地統制計畫
明年度에完成豫定
現在十七個所、五個所로統合

[그림 4-11] 경성부 묘지통제계획
(출처 : 조선일보, 1940.6.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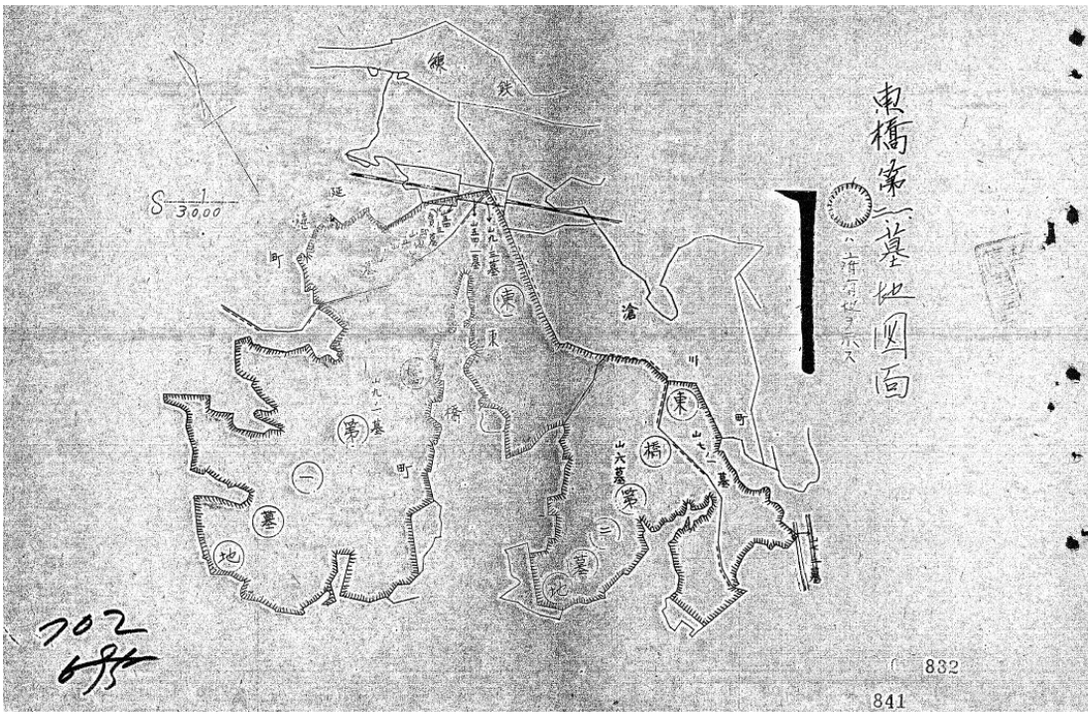
이 시기 도시계획과정에서 나타난 묘지문제는 사회문제로 확장되며 토막민 문제 등의 폐해를 낳았다. 묘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제는 묘지통제계획과 더불어 묘지규칙을 개정하였다. 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해야할 점은 매장(埋葬)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특히 일본에서 도시 내 묘지 면적은 일인당 한 평으로 산출하였지만, 당시 조선의 묘지면적은 일인당 아홉 평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다.[1] 이에 따라 5개의 공동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묘지를 폐지하고, 사설묘지를 불허하는 방식으로 묘지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즉 일제는 죽은 자의 공간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화하여 묘지의 격증과 묘지 범죄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한 것이었다.

하지만 1941년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여 묘지통제계획과 공원화계획은 지연되었다. 일제가 전시체제에 돌입하며 국군묘지(현 국립묘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묘지계획이 일부 진행되는 상황에서 1930년대와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된 공동묘지-동교리묘지, 연희묘지-는 계획대로 폐지되었다. 그러나 1945년 광복이 이루어지며 일제의 묘지계획 및 제도와 공간 개조 사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동교리제1·2묘지는 총 11,150기의 분묘가 매장되며 만장에 가까워

1) 「墓地規則改定에對하여」, 동아일보, 1940.2.17.

지고, 도시계획 수행상의 이유로 1942년 6월 9일부터 매장을 금하였다. 이후 1942년 8월 29일부터 동교리묘지의 분묘개정과 10월 말까지 기신청된 유연묘 619기는 신사리묘지로 이장이 진행되었지만, 무연묘는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1]



[그림 4-12] 동교리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같은 해 경성부 고시 제211호에 의거 경성부 발전상 연희묘지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매장이 중단되었고, 얼마 후 폐지되었다.[2] 하지만 분묘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1946년 연희묘지가 언급된 신문 기사를 통해 실제 분묘 이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3] 이후 한국 전쟁 작전상황도와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의 배경이 연희초교 주변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1942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서서히 이장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1942년 이후 주민들은 잔여묘지가 남아있던 연희묘지를 대

1) 「東橋里의 제1·2묘지 十月末까지 屆出移葬하라」, 매일신보, 1942.8.30.
2) 京城彙報, 1942, 10월호, p.26 / 박태호(2003), 앞의 책, p.49 재인용
3) 「奇蹟!不運한玉童子 生埋葬八時間만에地下에서呱聲 西大門署서犯人逮捕取調中」, 동아일보, 1946.5.21.

신해 신사리묘지 또는 남가좌동묘지를 이용하였다.

경성부는 묘지통제계획을 통해 경성 내 공동묘지를 모두 폐지하고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계획의 내용에서 특히 인상적인 점은 내지인묘지와 조선인묘지의 분리가 사라졌다는 점이다. 경성부 관영 공동묘지를 17개에서 5개로 압축하는 과정에서 내지인묘지인 홍제리묘지의 폐지를 계획하였지만, 이전과 달리 새로운 내지인묘지 신설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다시 말해 5개 공동묘지 모두 보통묘지에서 내지인묘지만 해당되었던 공원묘지로 변경하며 묘지미화를 계획하였다.

> *“ ‘묘지는 인생 최후의 쉼터로써 시설을 정비하여 유가족은 물론 일반사람들에게 조상에게 경애하는 것이 인류 사회의 중요한 일’ 이라고 규정하고 묘지구획의 정리와 조경시설로 공원화(公園化)하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선의 선진도시로써 면모를 갖춘 공원묘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1]

당시 총독부는 묘지미화를 통해 일반인의 이용을 늘리고 황폐화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공동묘지의 내부공간에 관하여 내선일체(內鮮一體)라는 새로운 개념이 적용된 것이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쟁으로 인한 재정 문제로 결국 계획은 실행되지 못하였다.

제 2 절 대한민국 정부시기

1. 혼란기(1946-1961)

혼란기는 광복 이후 미군정, 한국 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을 겪고 운영상의 혼란을 거듭하여 묘지계획이 부재한 시기이다.[3] 광복 이

---

1) 京城彙報, 1942, 6월호, p.29 / 박태호, 앞의 책, p.49 재인용
2) 정일영(2016), 앞의 논문, p.222-224
3) 박태호(2003), 앞의 책, p.49

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주택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고, 행정공백기에 전재민, 피난민은 방공지역과 소개도로에 판잣집을 지으며 도시 전역이 슬럼화되었다. 이에 따라 서울은 전재복구를 위해 가로 및 광장계획과 구획정리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였다. 전재복구 이후 1950년대 후반에는 천변, 소개도로를 중심으로 도성 내에 형성된 판자촌을 철거하고 도시 외곽으로 이주시키는 도시계획 사업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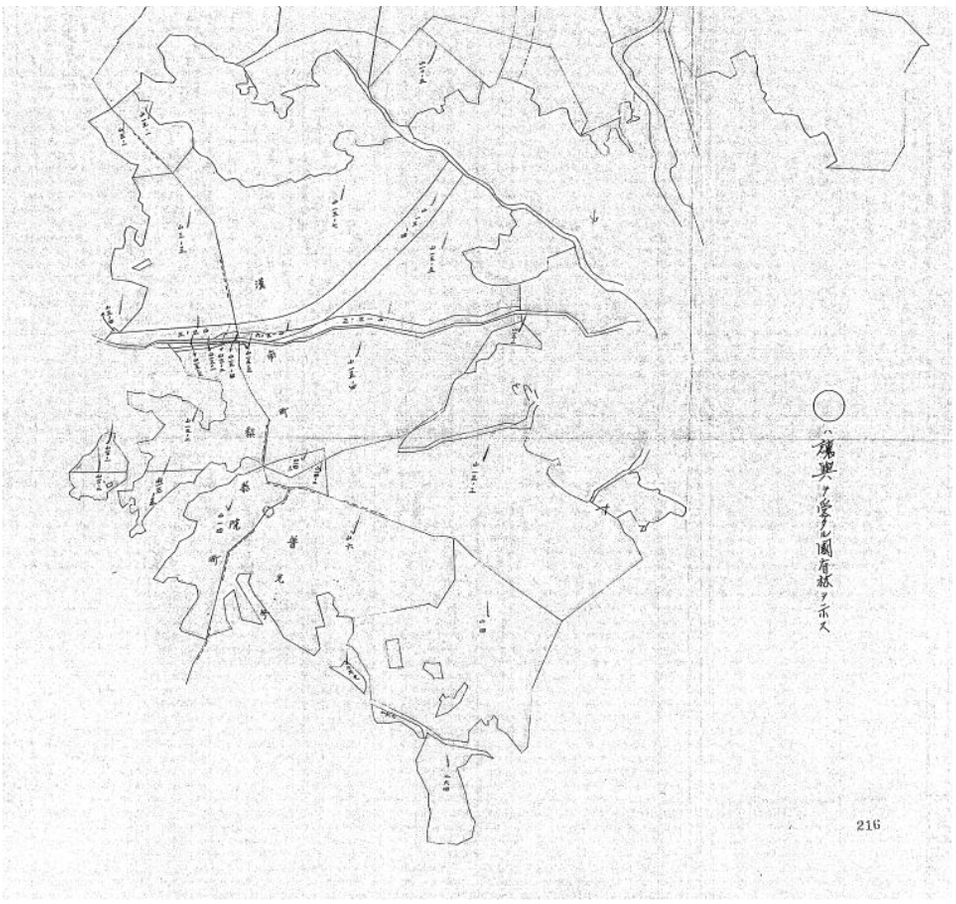
혼란기는 묘지계획이나 정책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던 시기인 반면, 가장 많은 공동묘지-이태원제2묘지, 홍제동묘지, 수철리묘지, 미아리제2묘지, 이문리묘지-가 폐지된 시기이다. 1950년대 초 전재민, 피난민들이 무허가 주택지를 짓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묘지가 폐지되었고, 서울시가 토지를 불하함으로써 빈민주택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1950년대 말 서울시가 도심지 무허가 판자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공동묘지를 폐지시키고 철거민들을 이주시켰다. 이 시기 공동묘지의 폐지는 대부분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상한 주택 공급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지된 것이었다. 한편, 다른 시기와 달리 묘지계획의 부재로 대체 공동묘지가 신설되지 못하였다.

가장 먼저 1950년 일본인 전용묘지인 홍제동묘지가 폐지되었다.[1] 광복과 함께 일본인은 유골함을 챙겨 본국으로 돌아갔고, 약 10만 평의 공동묘지에 1,370여기의 개인분묘, 153개의 단체묘지[2]와 쓰러진 비석 등이 3-4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3] 시당국은 일본인 유골이 국제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회부·외교부와 회의를 거쳐 1,500여 묘지 중 파손된 800여 묘지에 대해 유골상자를 만들어 합장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내지인 공원묘지로 신설된 홍제동묘지가 폐지되었고 이 지역은 한국인을 위한 화장장과 유골 안치장으로 계획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전쟁의 발발로 계획은 무산되었고 전후 복구과정에서 빈민주

1) 「日人墓地를 整理」, 동아일보, 1950.3.30.
2) 남아있는 분묘 수가 자료에 따라 750-1,500기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오차범위가 큰 것은 이 시기 공동묘지에 대한 조사가 미흡한 점을 보여주고 있다.
3) 「弘濟洞特別墓地 市民使用을 計劃」, 연합신문, 1949.3.30.

택지가 형성되었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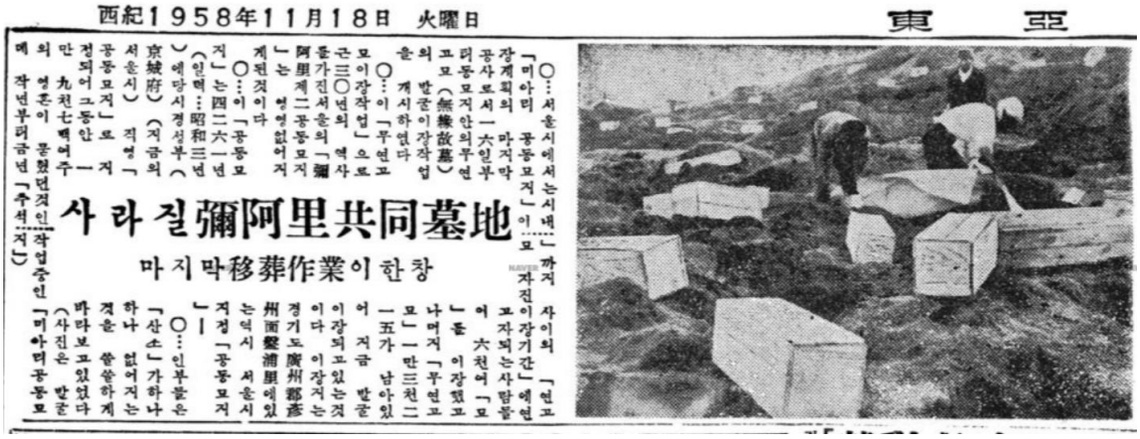
다음으로 수철리묘지가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철리묘지는 경성부 시기 부민들과 더불어 사회저명인사들도 다수 묻히던 묘지로 그 비중이 작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 및 이장여부를 기록한 자료가 부재한 상황이다. 3만 2천기가 넘는 분묘와 약 7만 평의 대규모 묘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의아하지만 현재로써는 폐지과정을 추측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2)] 박태호에 따르면 수철리묘지가 광복 이후에도 남아있다는 정황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1950년대 혼란기를 틈타 생긴 판자촌에 의해 잠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고 있다.[3)] 그 흔적은 1980년대까지 금호동 일대에 자리잡고 있었던 달동네 지역으로 추정된다.



[그림 4-13] 이태원제2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1) 박태호(2003), 앞의 책, p.50

1949년 보광동에 위치한 이태원제2묘지는 서울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일부가 도시구획정리지로 편입되고, 나머지는 전재민 주택지로 계획되며 폐지가 예정되었다. 약 2,000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던 이태원제2묘지는 1950년 2월 3일까지 분묘 이장을 공고하였고,[1]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유연분묘가 개장되었다.[2] 하지만 6월 한국 전쟁의 발발로 인하여 묘지의 폐지가 중단되었고, 실제 이장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후 경성으로 몰려든 전재민 · 피난민이 이태원제2묘지에 판자촌을 형성하며 공동묘지는 사라지게 되었다.


西紀1958年11月18日 火曜日 東亞

사라질 彌阿里共同墓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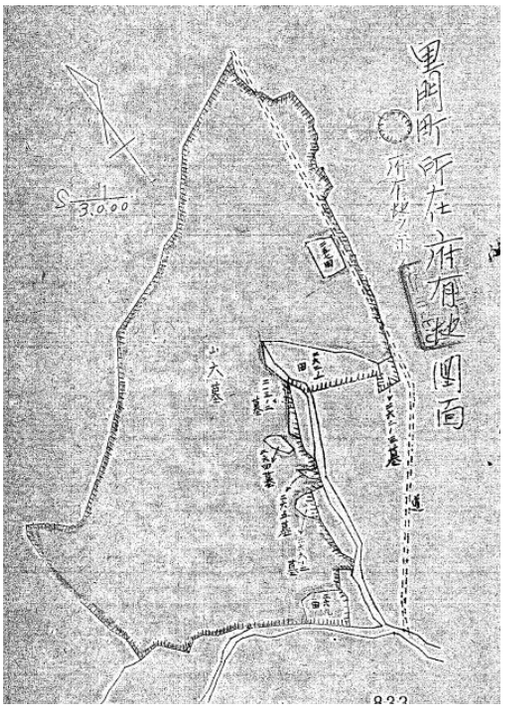
마지막移葬作業이한창

[그림 4-14] 사라질 미아리공동묘지 : 마지막 이장작업이 한창
(출처 : 동아일보, 1958.11.18.)

1957년 조선인묘지의 한 축을 담당했던 미아리제2묘지는 주변에 인가가 늘어나며, 도시계획에 따른 미관상의 이유와 공중위생의 이유로 폐지가 결정되었다. 이장 후보지 선정 문제와 묘주들의 반대로 이장이 지연되었지만, 결국 1958년 12월 13일 이장이 완료되었다. 미아리제2묘지는 약 19,700기의 분묘가 매장되어 있었는데[3] 6,000여의 유연분묘는 자진 이장하였고, 13,700기의 무연분묘는 반포묘지로 이장되었다.[4] 서

2) 박태호(2003), 앞의 책, p.53
3) 박태호(2003), 앞의 책, p.48-49
1) 「利泰院墓地를 整理하고 住宅地로 사용」, 조선일보, 1949.11.30.
2) 「利泰院墓地撤去」, 한성일보, 1949.12.3.
3) 「彌阿里共同墓地移轉에 難關」, 경향신문, 1957.9.28. : 이 신문자료에 따르면 8만기의 분묘와 3만기의 무연고묘를 반포묘지로 이장계획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4) 「사라질 彌阿里共同墓地」, 동아일보, 1958.11.18.

울시는 공동묘지의 이장 이후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여 일대를 후생주택지로 만들 계획이었다. 미아리묘지는 폐지되었지만, 행정공백기를 겪으며 공간계획은 1/3정도만 진행되었다.



[그림 4-15] 이문리묘지 도면
(출처 : 국가기록원)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북쪽인 이문동 270번지 일대는 이문리묘지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1958년[1] 이 지역은 청계천 복개사업과정에서 밀려난 판자촌 주민들의 정착지로 선정되었다.[2] 이러한 공간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문리묘지가 폐지되면서 망우리묘지로 일부 이장되었고 나머지 분묘의 처리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시기 공동묘지 폐지의 특징은 도시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국 전쟁으로 나타난 전재민, 피난민의 구호를 목적으로 한 도시계획의 결과였다. 시유지인 공동묘지는 전재민과 피난민에 의한 빈민주택지가 형성되고 전재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상이용사주택사업 등이 진행되며 사라졌다. 또한 한국 전쟁 이후 형성된 도심지의 판자촌을 철거하고, 공동묘지에 토지구획사업을 통해 대규모 주택지를 형성하였다. 이 시기에 형성된 공간은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저층 고밀 주거단지의 특징을 보여주었다.

1) 박태호(2003), 앞의 책, p.51
2) 『그와 나 사이를 걷다 : 망우리 사잇길에서 읽는 인문학』에 따르면 이문리묘지는 1937년에 폐지되었고, 망우리 공동묘지로 이장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외국어대학교가 1954년에 개교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이문리묘지가 1937년에 완전히 폐지되었다기 보다, 193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전환기(1962-1970년)

전환기는 전재 복구 이후 도시계획법 신설과 함께 「매장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제정 및 묘지현대화계획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행정공백기를 지나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을 통해 도시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1963년 서울은 급증하는 인구와 추후 시가지 확장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시역을 확장하였고, 새롭게 포함된 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되며 주택 · 교통 · 환경 등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서울이다 (20)

하루平均 50柱를 燒却

大人한사람 2백30원, 올收入 2백70만원목표
35年동안 63만餘, 지난해만도 1만9천餘처리

市立모두합쳐 6개所

總面積230만餘坪에 14만餘柱安置
忘憂里는 2年뒤면빈자리없을程度

共同墓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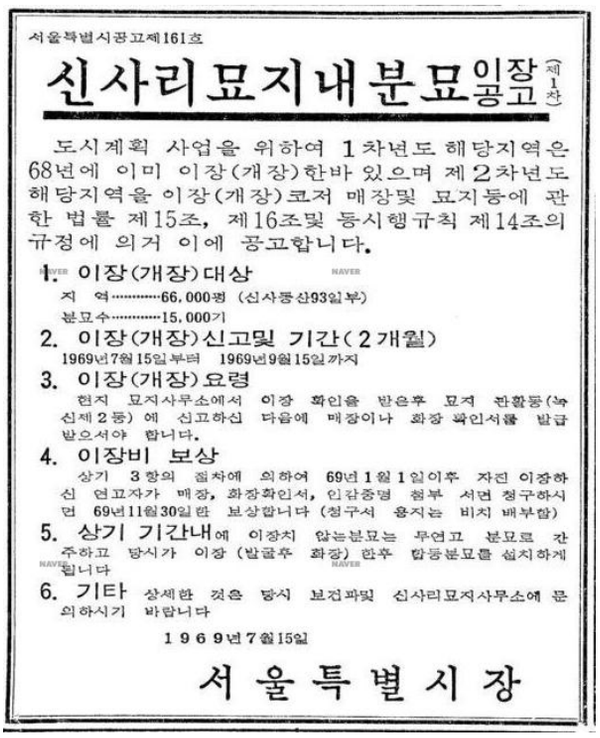
火葬터

[그림 4-16] 이것이 서울이다 共同墓地
(출처 : 매일경제, 1967.09.23.)

1960년 이후 행정이 정상화되면서 묘지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었고, 1961년 장사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 후 매장 · 화장 · 개장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서울시장 및 도지사의 허가를 통해 묘지 · 화장장 ·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1966년에는 근대화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으로 묘지미화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묘지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시도한 것이다.[1] 이후 1967년 묘지현대화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풍수 개념을 통한 명당 고르기 방식의 매장방식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서울시 내 묘지가 차지하고 있는 약 115만 평의 토지를 일반대지로 전환시켜 도시를

1) 「幽宅도 近代化하나 有料公園墓地계획」, 경향신문, 1966.7.2.

개발하는 계획이었다.[1] 1968년에는 장사법이 개정되고, 다음 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매장 · 화장 · 개장의 기준 규정을 신설하고, 묘지 · 화장장 · 납골당설치 금지구역을 명문화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경제개발과 더불어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며 묘지계획 및 제도도 많은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미아리제1묘지, 남가좌동묘지, 신사리묘지가 폐지되고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먼저 남가좌동묘지는 택지조성사업과 수재민 이주지역으로 결정되며 공동묘지 폐지가 계획되었다.[2] 이 과정에서 남가좌묘지 공간은 소멸되었지만 폐지 및 이장에 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1963년 미아리제1묘지는 증가하는 인구에 수반한 주택난의 해결과 도시계획에 따른 택지조성 및 국민 보건상 위해를 끼칠 우려로 인하여 폐지되었다.[3] 이는 서울시역 확장과 맞물리며 매장 등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시행규칙 제1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개장을 시작하였다. 미아리제2묘지에는 약 3만5천 기 분묘가 매장되어있었는데, 천8백 기의 유연고묘만 자진 이장하였고, 대부분은 무연분묘였다.[4] 1963년 4월 12일부터 무연분묘는 벽제면 시립묘지로 이장하였다. 이후 공동묘지는 공간계획에 따라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5] 신사리묘지는 서울 서부개발을 위해 1968년부



서울특별시공고제161호

신사리묘지내분묘이장공고 (제1차)

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1차년도 해당지역은 68년에 이미 이장(개장)한바 있으며 제2차년도 해당지역을 이장(개장)코저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및 동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에 공고합니다.

1. 이장(개장)대상
지 역……66,000평 (신사동산93일부)
분묘수……15,000기
2. 이장(개장)신고및 기간(2개월)
1969년7월15일부터 1969년9월15일까지
3. 이장(개장)요령
현지 묘지사무소에서 이장 확인을 받은후 묘지 관할동(녹신제2동)에 신고하신 다음에 매장이나 화장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4. 이장비 보상
상기 3항의 절차에 의하여 69년1월1일이후 자진 이장하신 연고자가 매장, 화장확인서, 인감증명 첨부 서면 청구하시면 69년11월30일한 보상합니다 (청구서 용지는 비치 배부함)
5. 상기 기간내에 이장치 않는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당시가 이장 (발굴후 화장) 한후 합동분묘를 설치하게 됩니다
6.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보건과및 신사리묘지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69년7월15일

서울특별시장

[그림 4-17] 신사리묘지내 분묘이장공고
(출처 : 조선일보, 1969.07.15.)

1) 「어러울공동묘지현대화 예산뒷받침 없어」, 매일경제, 1970.3.3.
2) 「66市政決算」, 동아일보, 1966.12.29.
3) 「구로동, 미아리 시립 공동묘지 내 분묘이장 공고료 지출」, 1963, 서울정보소통광장, p.55
4) 「비맞으며 彌阿里共同墓地移葬」, 동아일보, 1963.4.6.

터 3개년 계획으로 4만5천여 기의 분묘를 개장하였다. 1·2차 계획으로 3만 기의 분묘를 개장하여 용미리묘지 · 벽제리묘지로 이장하였다. 하지만 3차 계획은 예산안 부족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였고 1만5천여 기에 대한 분묘의 처리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다.[1] 이후 신사리묘지 부지는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며 주택단지로 조성이 계획되었다. 재정 부족으로 계획이 진척되었지만, 차츰 사업이 진행되며 신사리묘지 공간은 주거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신사리묘지의 폐지 및 이장으로 일제시기 경성오부에 형성된 공동묘지는 망우리묘지를 제외하고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전환기의 묘지계획은 표면상으로 공동묘지의 현대화를 추구하였지만, 실상은 장애가 되는 묘지를 축소시키고 도시 외곽으로 밀어내어 공동묘지의 합법적 관리를 목표로 하였다. 1966년 묘지공원화계획은 묘지에 공원을 만들거나 공원에 묘지를 만드는 것 이면에, 시가지에서 한 시간 이내에 위치한 묘지를 통폐합하여 도시미관과 토지 이용상에 장애를 없애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2] 1967년 묘지현대화계획은 묘지공간의 현대화가 아닌, 기존 묘지를 폐지하고 현대적인 도시공간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이는 일제시기 공동묘지 폐지에 관한 대안을 마련하였던 묘지계획이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오히려 공동묘지 폐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산업화 이후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는 공동묘지 폐지 및 이장을 의미하였던 것이다.

제 3 절 소결

공동묘지의 탄생 및 소멸은 도시계획 및 묘지계획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3장에서 분석한 도시계획 시기 구분을 기반으로 공동묘지 변화를 이끌어낸 묘지계획 및 제도에 관한 계기적 사건을

---

5) 「九老·彌阿共同墓地 高陽郡碧蹄面에 移轉」, 동아일보, 1963.2.12.
1) 「주저앉은공동묘지이장 예산등 확보안돼」, 매일경제, 1970.4.3.
2) 「‘墓地公園의 設置라’고 이런 新用語에 어리둥절」, 매일경제, 1966.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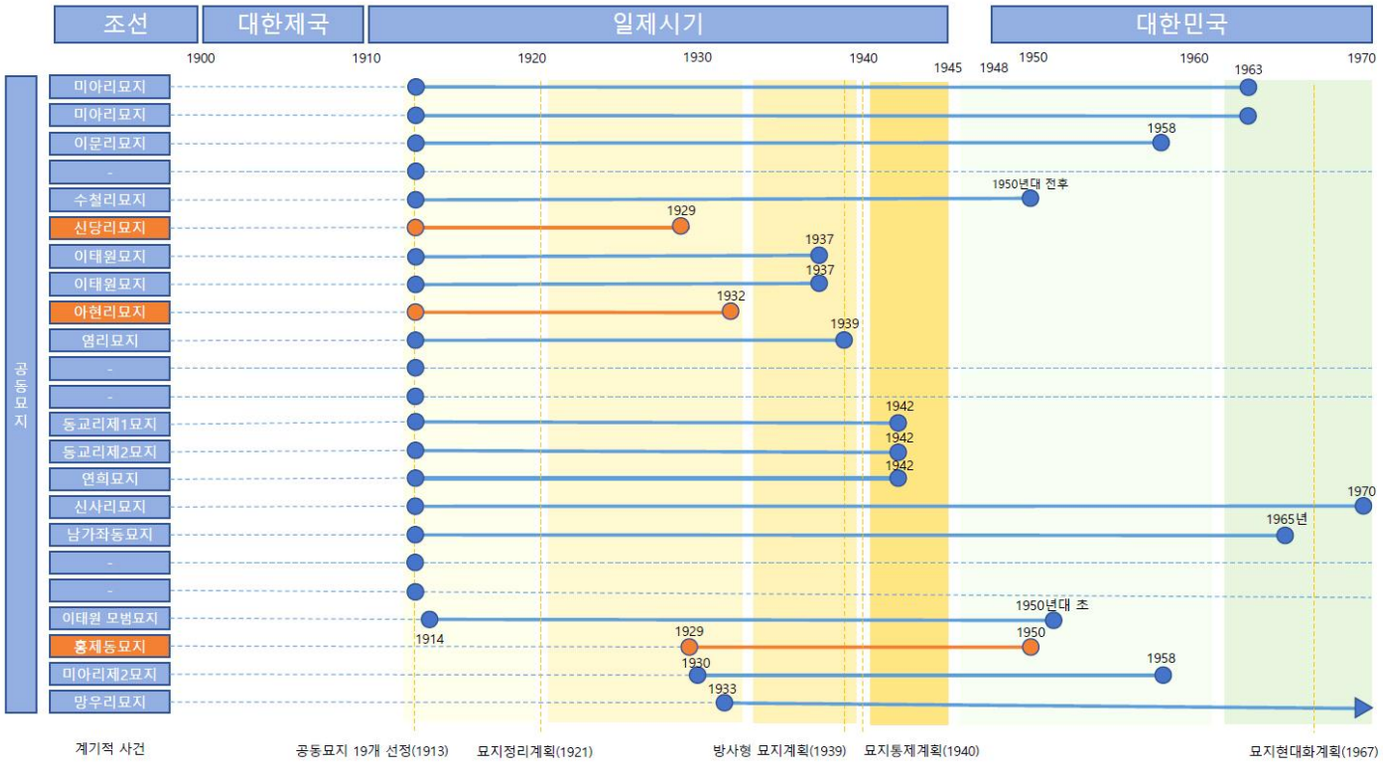
정리하였다. 형성기(1912-1920)는 묘지규칙 제정을 통해 19개의 공동묘지를 선정하고, 선정에서 제외된 묘지를 폐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기이다. 먼저 1912년 묘지규칙은 공동묘지의 탄생시켰고, 공동묘지를 제외한 전근대 묘지-북망산 또는 집장지-는 법적 · 제도적 지위를 박탈당하였다. 초기 공동묘지는 일제의 강제적 도입으로 인해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하여 부민의 대표적인 사자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정비기(1921-1933)는 창립된 경성도시계획연구회가 묘지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공동묘지 조사 및 정비를 진행하는 시기이다. 공동묘지는 새롭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북망산을 제도적으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제는 공동묘지를 무질서하고 비위생적인 공간이자 정비가 필요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1921년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묘지정리계획' 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1920년대부터 경성부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묘지계획 방향도 변하였다. 공동묘지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1926년 묘지증설계획을 수립하였다. 경성부는 신당리묘지와 아현리묘지를 폐지하고, 도시 외곽에 내지인묘지인 홍제동묘지와 대규모 조선인묘지인 미아리제2묘지 · 망우리묘지를 신설함으로서 사자 공간의 수요를 충족시켰다. 계획기(1934-1939)는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방사형 묘지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이다.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을 통해 도시가 확장되면서 관영 공동묘지가 17개소로 증가하였다. 경성부는 새로운 묘지계획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도시 외곽 방사선상에 공동묘지 5개를 위치시키는 방사형 묘지계획을 실행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태원제1묘지와 염리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되며 폐지가 진행되었다. 통제기(1940-1944)는 방사형 묘지계획에서 제외한 나머지 묘지를 폐지시키는 묘지통제계획이 수립된 시기이다.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라 근대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공동묘지를 폐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묘지규칙의 개정으로 매장이 허가제로 변하면서 죽은 자의 공간에 대한 관리 및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으로 묘지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도시계획사업

지에 포함된 동교리제1·2묘지와 연희묘지가 폐지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혼란기(1945-1961)는 광복 이후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났지만 한국 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을 겪으며 공동묘지에 관한 계획이 부재한 시기이다. 광복 이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묘지계획 및 정책을 세울 여력이 없었고, 행정공백기에 전재민과 피난민들이 공동묘지에 무허가 판자촌을 형성하며 수철리묘지, 홍제동묘지, 이태원제2묘지가 폐지되었다. 또한 1950년대 말 전쟁 복구과정에서 도심지 철거민의 정착촌 형성을 위하여 미아리제2묘지와 이문묘지가 추가로 폐지되었다. 전환기(1962-1970)는 활발한 도시계획이 진행되며 묘지를 일반대지로 전환하는 묘지현대화계획을 시행하는 시기이다. 1960년대에 들어서며 행정이 안정되며 장사법과 도시계획법이 제정되었고, 1966년 묘지공원화계획, 1967년 묘지현대화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는 산재되어있는 서울 내 묘지를 도시 외곽(경기 북부지역)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이었고, 남은 토지를 도시개발지로 활용하는 공동묘지 이장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미아리제1묘지, 남가좌동묘지, 신사리묘지가 폐지되고 공동묘지는 재차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본 장을 통해 도시 내 죽음의 경관을 대표하는 공동묘지의 탄생과 소멸이 도시계획과 묘지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서울은 식민지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타국의 수도와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묘지계획 및 제도의 변화에도 반영되었고, 결과적으로 현재 서울의 죽음의 경관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표 4-1]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

항목	일제시기				대한민국 정부시기	
시기 (연도)	형성기 (1912-1920년)	정비기 (1921-1933년)	계획기 (1934-1939년)	통제기 (1940-1944년)	혼란기 (1945-1961년)	전환기 (1962-1970년)
계기적 사건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 취체규칙	묘지정리계획	방사형 묘지계획	묘지통제계획	-	묘지현대화계획
내용	19개 공동묘지 선정 및 권역별 배치	난잡한 공동묘지 조사 및 정비	5개 공동묘지의 방사형 배치 및 공원묘지로 변경	5개 이외의 공동묘지 폐지	광복과 한국 전쟁으로 묘지정책 부재	도시 내 묘지를 일반대지로 전환
	다수의 북망산 폐지 및 이장	도시계획 장애로 일본인묘지 폐지	도시계획 장애로 조선인묘지 폐지	도시계획 장애로 공동묘지 폐지	빈민의 정착으로 공동묘지 폐지	도시계획 장애로 공동묘지 폐지
	-	공동묘지 신설 (홍제, 미아, 망우)	공동묘지 신설 (신림, 언주)	-	-	공동묘지 신설 (벽제, 용미, 내곡)
주요 사건	1912 묘지규칙 신설 1913 공동묘지 선정 1914 경성부 축소 1919 묘지규칙 개정	1921 경성도시계획연구회 창립 1921 묘지정리계획 1926 묘지증설계획	1934 조선시가지계획령 1936 경성시가지계획 1937 중일전쟁 1939 방사형 묘지계획	1940 묘지통제계획 1940 묘지규칙 개정 1941 태평양전쟁 1943 묘지규칙 개정	1945 광복 1950-1953 한국전쟁	1961 장사법 신설 1962 도시계획법 신설 1967 묘지현대화계획 1968 장사법 개정



[그림 4-18] 공동묘지 폐지 시기 (파란색은 조선인묘지, 주황색은 내지인묘지)

[표 4-2] 공동묘지 기초자료
(6, 9, 21번은 내지인묘지, 나머지는 조선인묘지)

	묘지이름	면적(평)	설립	매장 금지	폐지	분묘수	유연고 / 무연고	이장 위치 (유연고 / 무연고)	폐지 원인
1	미아리묘지	30,790	1913	1963	1963	35,000	1,800 / 33,200	– 벽제리묘지	도시계획
2	미아리묘지	43,158		1913	1963				도시계획
3	이문리묘지	33,242	1913	1942	1958	–	–	–	도시계획
4	–	12,925	1913	–	–	–	–	–	–
5	수철리묘지	72,328	1913	1937	1950 전후	42,000	–	–	–
6	신당리묘지	121,771	1913	1929	1929	4,500	965 / 3,500	홍제동·수철리묘지 수철리묘지	도시계획
7	이태원묘지	21,306	1913	1931	1937	45,000	4,778 / 28,338	미아리·망우리묘지 신사리·망우리묘지	도시계획
8	이태원묘지	12,788		1913	1931				도시계획
9	아현리묘지	41,406	1913	1929	1932	–	–	–	도시계획
10	염리묘지	34,535	1913	1938	1939	–	–	신사리묘지	도시계획
11	–	26,121	1913	–	–	–	–	–	–
12	–	10,657	1913	–	–	–	–	–	–
13	동교리제1묘지	27,315	1913	1937	1942	11,150	619 / –	신사리묘지 –	도시계획
14	동교리제2묘지	10,357		1913	1937				도시계획
15	연희묘지	90,500	1913	1942	1942	–	–	–	도시계획
16	신사리묘지	139,620	1913	–	1970	45,000	20,000 / 24,756	– 용미리·벽제리묘지	도시계획
17	남가좌동묘지	92,237	1913	–	1965	–	–	벽제리묘지	도시계획
18	–	6,421	1913	–	–	–	–	–	–
19	–	3,908	1913	–	–	–	–	–	–
20	이태원제2묘지	85,134[1]	1914	1936	1950 초	2000	–	–	도시계획
21	홍제동묘지	68,000	1929	1945	1950	1370	– / 1523	–	도시계획
22	미아리제2묘지	140,000	1930	–	1958	19,700	6,000 / 13,700	반포묘지	도시계획
23	망우리묘지	519,060	1933			45,000			×

1) 이태원묘지 총 면적은 119,228평이고, 7번·8번 이태원묘지는 각각 21,306평, 12,788평이다. 따라서 이태원모범묘지는 85,134평으로 추정된다.

제 5 장 공동묘지 공간의 변화

제 1 절 일제시기

1. 정비기(1921-1933)[1)]

1) 신당리묘지(1929)

[그림 5-1] 1907년 신당리묘지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그림 5-2] 1909년 신당리묘지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신당동은 신령을 모시는 무당이 모여 마을을 이루고 있어서 신당(神堂)으로 불렸다가, 갑오개혁 때 발음이 같은 신당(新堂)으로 바뀌며 현재 신당동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2)] 신당리묘지는 광희문(수구문)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3년 내지인 전용묘지로 설치되었다. 관영 공동묘지는 북망산을 제도화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설치 이후 현황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시설-도로, 관리사무실, 구획-을 정비해 나갔다. 1927년 공동묘지 현황에 따르면 신당리묘지의 낮은 이용률로 인해 사용 분묘수

1) 1913-1920년 사이에 사라진 공동묘지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상황
2) https://ko.wikipedia.org/ (검색일 : 2020.12.1.)

가 적고 잔여 면적이 많이 남아있었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상의 이유로 1922년부터 신당리묘지의 이전이 논의되었고, 1929년 홍제동묘지로 이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며[2] 신당리묘지가 폐지되었다.[3]

전통적으로 도성 밖은 안정감이 보장되지 않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거주하기 불편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일정 시간 이후 도성의 진입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선호되지 않았고, 특히 신당리묘지가 위치한 광희문 밖 일대는 경성의 대표적인 빈민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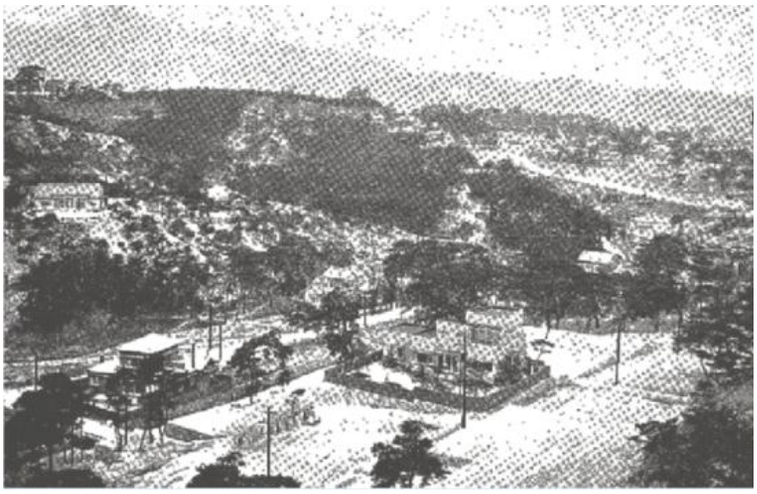
> *그러나 문밧게 사는 사람이 전부가 빈민이라는 것은 안이지만 그 중에도 서울의 빈민촌으로 대표가 될 만한 곳은 수구문(光熙門)밧 신당리(新堂里)를 손곱아도 과히 험의 적은 말은 안일 것이다.*[4]

하지만 1920년대 후반 경성의 인구증가, 도시환경 악화와 투기자본의 등장은 도시계획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동부 발전책과 함께 청량리, 왕십리를 향하는 교외노선이 등장하였다. 하수도, 대중교통 노선 등 생활 편의시설이 정비되며 신당리는 근대도시로 조금씩 변화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묘지 공간은 이상적인 교외주택지인 경성문화촌으로 계획되었다. 1920년대 일본은 에벤에저 하워드(Ebenezer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에 영향을 받아 교외에 이상적인 주택을 짓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흐름이 한국에도 이식된 것이다. 기존에 진행된 민간 주도의 주택지 개발은 도성 내 구릉지에 조성한 준 격자형 주택지이고, 1만 평을 넘지 않는 소규모였다.[5] 하지만 신당리는 일제의 도시개발회사가 주도하여 개발 규모가 약 10만 평에 달하고, 도성 밖의 평탄한 지역에 기하학적 도시 형태를 연상시키는 주택지로 조성되었다. 또한 건물은

---

1) 京城府衛生課, 1928, 『京城府衛生施設概要』, p.21 / 박태호(2003), 앞의 책, p43 재인용
2)「新堂理는 水鐵里로 移轉」, 중외일보, 1928.9.19.
3)「新堂墓地移葬期」, 동아일보, 1928.8.21.
4) 유승희, 2013, 「식민지기 경성부 동부 교외 지역의 실태와 도시개발」, 역사와 경계 68호 / 이경아, 2019, 『경성의 주택지』, 정암총서, p.200 재인용
5) 이경아(2019), 앞의 책, p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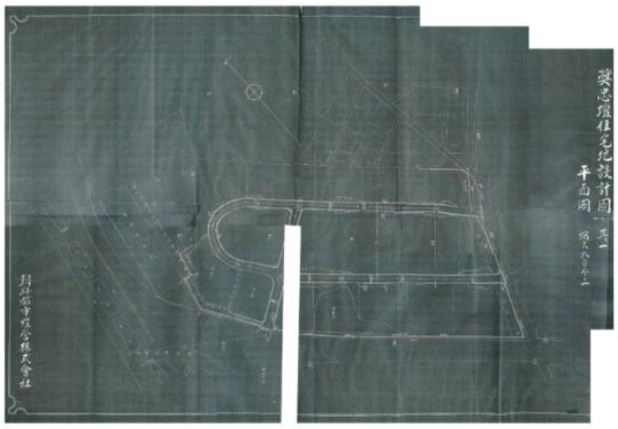
목재 대신 벽돌이나 콘크리트로 건축하여 도시적인 외관과 서양식 내부 공간의 모습을 재현하였다. 입주민 대부분은 일본인이나 상류층 조선인들이었고,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학교나 어린이 놀이터 같은 시설이 함께 건립되었다. 구체적으로 신당리묘지 공간은 1928년 경성부가 동양척식주식회사 간부인 도덕장(島德藏)에게 매도하며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었다.[1] 경성부는 14만평의 땅을 평당 3원 20전으로 총 466,882원 88전에 매각하였고[2], 추가로 이 부근에 도로 2개소 개설을 약속하였다. 도덕장은 무학정토지경영회사를 설립하여 공동묘지가 이전한 땅에 문화주택단지를 계획하였다.[3] 문화주택지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고, 상 · 하수도 및 전기부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공기가 맑고 경치가 좋은 이상적인 주택지를 칭하는 것이었다. 무학정토지경영회사는 무학정주택지 사업을 통해 1930년부터 1932년까지 3차에 걸쳐 주택지를 개발하였고, 분양을 완료하였다. 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상하수도가 갖추어졌으며 경치가 좋다는 이유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4] 1·2차 주택지는 평당 16-28원에 분양되었고, 나머지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매입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5] 이후 신당리는 무학정 주택지를 기점으로 주변에 앵구주택지, 용곡주택지, 장충단주택지 등의 고급주택단지가 형성되



[그림 5-3] 무학정주택지
(출처 : 『伸び行く京城電氣』, 1935)

1) 「土窟二百戶 住民將安之」, 동아일보, 1928.6.3.
2) 「新堂里墓地問題擴大 府會計長이大阪에」, 조선일보, 1929.3.17.
3) 「光熙門外貧民窟 受天命의困境切迫」, 동아일보, 1928.7.30.
4) 청계천박물관, 2018, 『남소문동천』, 서울책방, p.134
5) 이경아 · 전봉희, 2006, 「1920-30년대 경성부의 문화주택지 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2(3), p.193

었고, 주변 지역은 1942년 신당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며 도시 전체가 변화를 맞게 되었다. 1936년 대경성전도(표 5-1 참조)를 살펴보면 신당리묘지 내 내지인 매장지역은 방사형 도시구조의 무학정주택지가 건설되었고, 조선인 매장지역은 80×30m의 격자형 도시구조의 단독주택지가 형성되었다. 이후 남산 주유도로(현 다산로) 우측지역은 1942년 신당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격자형 도시구조가 완성되면서 계획도시로서 신당리 모습을 갖추었다.



[그림 5-4] 장충단주택지 평면도
(출처 : 국가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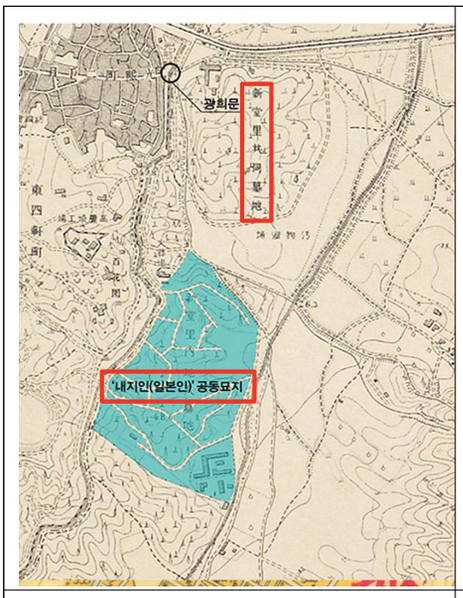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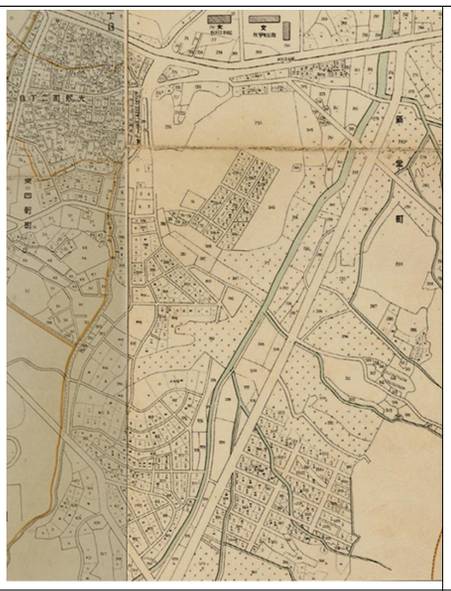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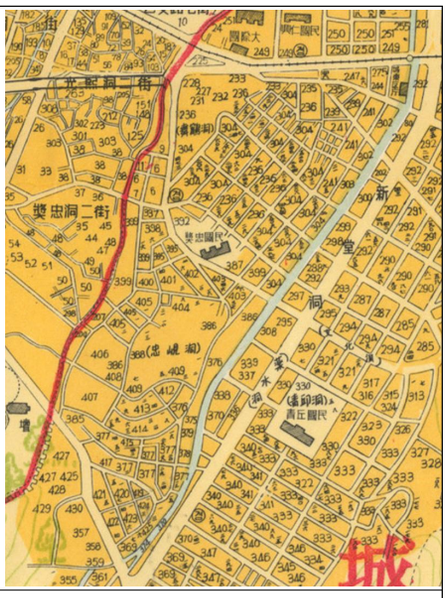
[그림 5-5] 앵구주택지 분양안내도
(출처 ; 『남소문동천』, p.62)

신당리 도시개발사업이 항상 원만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일제는 근대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명분하에 문화주택지 건설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기존 토지소유자에게 땅을 헐값에 사들이고, 토막민을 몰아내는 등의 약탈행위를 저질렀다. 토지소유자가 된 도덕장이 소유권을 앞세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막촌을 강제로 철거한 것이다.[1] 이 과정에서 반대 시위를 하던 토막민이 사망하며 문제가 커지자 경성부는 성북동에 이주시키는 조건으로 농성이 마무리되었다. 또한 초기 경성부가 약속한 2개소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잔금 지불시기를 두고 도덕장과 경성부가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도로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건설하고 잔금을 치루는 방식으로 합의하였다.[2]

1) 「光熙門外土窟에 不絶하는 風波」, 동아일보, 1928.10.24.
2) 「新堂里問題 完全이 解決」, 조선일보, 1930.11.23.

신당리묘지는 몇 차례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계획도시로 완전히 탈바꿈하였다. 특히 무학정토지경영회사가 진행한 무학정 주택지사업은 주택 공급의 부족과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성의 새로운 전원도시 탄생을 의미하는 민간 주도 도시계획이었다. 이 과정에서 공동묘지는 계획도시로 이행하기 위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가장 먼저 개발이 이루어졌고, 뒤이어 주변지역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즉 총독부에게 신당리묘지는 사자의 공간이기보다 일제가 필요로 하는 공간을 생산하기 위한 빈 땅에 불과한 것이었다.

[표 5-1] 신당리묘지 공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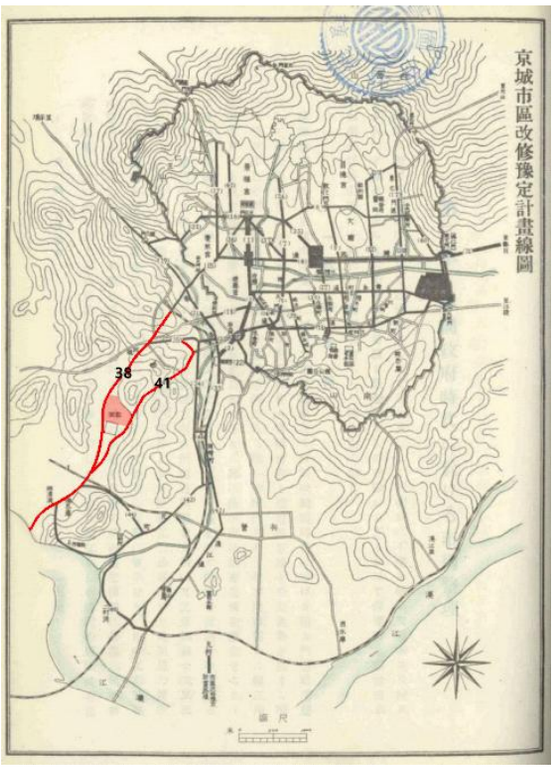
		
1922 경성도	1936년 대경성전도	1968년 입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2) 아현리묘지(1932)

아현(阿峴)은 '애오개'의 한자어인데, 만리현과 대현 사이의 작은(아이)고개라는 의미의 '애고개'가 변형되어 붙여진 지명이다.[1] 아현

1) 서울역사박물관, 2010, 『언덕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현 · 염리 1 : 아현 일대 공간구성과 도시민의 생활사』, 서울역사박물관, p.26

리묘지는 서소문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1913년 내지인 전용묘지로 신설되었다. 아현리묘지가 위치한 지역은 화장장, 경성 형무소와 분뇨처리시설과 같은 도시기반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 총독부는 공동묘지를 분뇨처리시설과 함께 위치시킴으로써 공동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었고, 이는 부민들이 공동묘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였다. 신당리묘지와 마찬가지로 아현리묘지는 일본인의 낮은 이용률로 인해 잔여 면적이 많이 남아있었지만, 1932년 도시계획상의 이유로 아현리묘지가 폐지되고 홍제리묘지로 이장되었다.[1)]



[그림 5-6] 일제시기 경성도로도
(출처 : 『조선토목사업지』, p.1022)

아현리는 1919-1929년에 진행된 제2기 시구개수사업에 포함된 지역이었다. 이 일대에 신설되는 신작로는 도심부에서 마포 지역을 지나 영등포 지역까지 연결되었다.[2)] 아현리묘지는 38번과 41번 노선 사이에 위치하여 도시사업의 장애물로 여겨졌고, 이후 폐지되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폐지된 신당리묘지와 달리 아현리묘지는 이후 공간계획이 부재하였다. 오히려 경성부는 아현리묘지 공간을 토막민의 집단수용지로 지정하며 공동묘지 폐지가 이루어졌다.[3)] 1920년대 주로 동북지역에 집중되었던 토막민은 1930년 이후 경성 전역에 퍼졌다. 이에 따라 일제는 도시미화를 목적으로 산재되어있는 토막민을 집단수용하였다. 1927년 조사에서 아현정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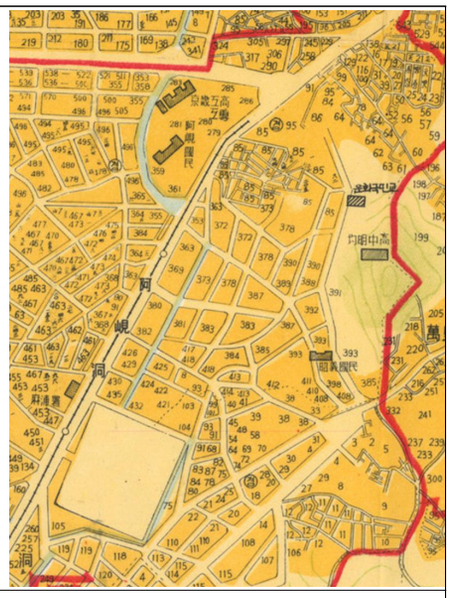
1) 「阿峴墓地廢止」, 동아일보, 1932.5.13.
2) 서울특별시 마포구, 1992, 『마포 : 어제와 오늘』, 마포구, p.273
3) 『京城市街地計劃風致地區指定資料調書』, 1937년 ; 「京城市內土幕民 阿峴 移住 計劃」, 동아일보, 1934.3.18.

막민은 약 20명에 불과하였지만 토막민 수용지가 건립된 이후 1940년 조사에서는 7,630명으로 집계되었다.[1] 이 지역이 토막민의 집단 수용지로 채택된 배경을 살펴보면 일부지역에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토막촌이 형성되었고, 경성의 산업장과 교통망이 연결되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며, 공동묘지 부근이 부락을 형성하기 용이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아현리 일대는 1930년대 경성의 도시빈민 주거지로 변모하였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2] 또한 아현리묘지 공간은 1933년 소의초등학교와 고등소학교(현 환일고등학교 추정)가 신설되었다.[3] 이 학교는 주로 만리동과 중림동 관사에 근무하던 일본인 고위층 자제나 한국인 중에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은 집의 자제들이 많이 다녔던 것으로 추측된다.[4] 이후 아현리는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에서 한강과 가까운 구릉지이고 마포·영등포 공장지대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주택지로 개발되었다.[5]

[그림 5-7] 아현리묘지 지역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1) 「櫛比한摩天高閣 荒涼한貧民土幕」, 동아일보, 1927.8.31.
2) 서울역사박물관(2010), 앞의 책, p.36 재인용
3) 「阿峴墓地 廢地, 속히 이장을 희망」, 동아일보, 1932.5.13.
4) 서울역사박물관(2010), 앞의 책, p.192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앞의 책, p.275-276

[표 5-2] 아현리묘지 공간 변화

		
1924년 조선교통지도	1940년 대경성명세도	1968년 입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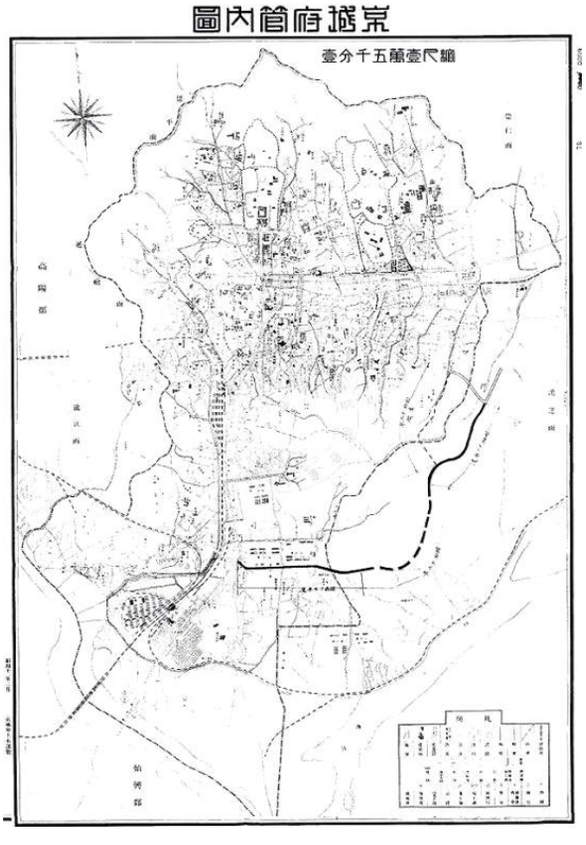
2. 계획기(1934-1939)

1) 이태원제1묘지(1937)

조선시대 이태원 지역은 농촌에 가까웠지만, 1906년에 조성된 용산기지로 인해 주변 지역인 이태원 마을이 서서히 발전하였다. 이태원묘지는 도성과 가까이에 위치하며 이태원동, 한강동(한남리), 보광리에 산재하였다. 이 중 이태원제1묘지는 한강동과 이태원동에 위치한 공동묘지를 통칭하는 것으로 사료된다.[1] 공동묘지는 1920년대도 여전히 조선인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지만,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점차 조선인들의 대표적인 사자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특히 도심부와 가까운 이태원묘지는 높은 이용도로 인해 잔여지가 부족하여 확장이 필요하였다. 경성부는

1) 1950년대에 폐지된 이태원제2묘지가 보광리 소재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이태원제1묘지는 한강동, 이태원동으로 추측하였다.

1931년부터 이태원묘지의 매장을 금지하고[1] 1933년도 망우리묘지의 설치 이후 1935년부터 이장을 착수하였다. 31,116기의 분묘 중 4,778기의 유연분묘는 미아리와 망우리묘지로 이장되었고, 28,338기의 무연분묘는 망우리묘지에서 화장하고 합장한 후 '이태원묘지 무연분묘 합장비'를 세우고 위령제를 거행하였다.[2] 이로써 1937년 이태원제1묘지는 도시개발과 함께 사라지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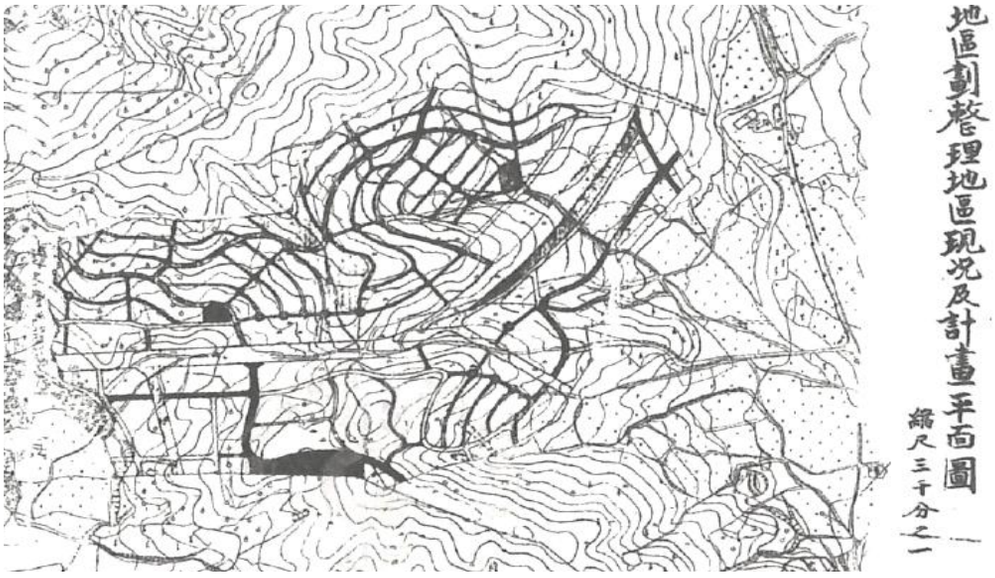


[그림 5-8] 1937년 남산주회도로
(출처 : 국가기록원)

신당동 전원주택지 조성 사업 이후 삼각지에서 신당리까지 이어지는 남산주회도로의 개통은 한강리 도시사업의 촉매제가 되었다. 193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남동은 부유지인 공동묘지가 위치하고, 토지 소유자 대부분도 일본인임을 파악하였다.[3] 이태원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는 극히 드물었지만 군사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이 토지를 매입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과 더불어 배후에 남산을 등지고 전면은 한강에 접한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한남동은 최적의 주택지라 불리며 일본인을 위한 문화주택지구로 상정되었다.[4]

1939년 이태원제1묘지가 사라진 공간은 한남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며 12만 4천 평의 대규모 토지가 고급주택지로 개발되었다. 구체적

1) 「利泰院大滿員!이태원대만원! 黃泉客황천객 謝絶사절」, 동아일보, 1931.3.26.
2) 박태호. 앞의 책, p.47
3) 서울역사박물관, 2010, 『이태원 : 공간과 삶』, p.37-39
4) 「住宅地 利泰院주택지 될 이태원」, 동아일보, 1935.8.17.



[그림 5-9] 한남 토지구획정리지구 평면도 (출처 : 국가기록원)

[표 5-3] 한남 토지구획정리지구 면적
(출처 : 서울 토지구획정리백서, 2017)

정리 전 (단위 : ㎡)		정리 후 (단위 : ㎡)	
대지	36232.4	일반지	274187.3
전(田)	110479.3	도로	92875.8
임야	33269.4	구거	337.2
묘지	196109.4	공원	13140.5
도로	26636.7	체비지	25451.6
기타	8887.3	시장	1256.8
		학교	4365.3
합계	411614.5	합계	411614.5

으로 한남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격자형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지형에 맞추어 비정형 도시 형태와 고저차를 이용한 택지가 계획되었다.[1] 중일전쟁(1937)과 태평양전쟁(1941)으로 인하여 모든 부문에서 총독부의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남 토지구획정리지구는 예외를 인정받아 사업이 추진되었다. 총독부의 재원이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총독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수익자부담금 징수를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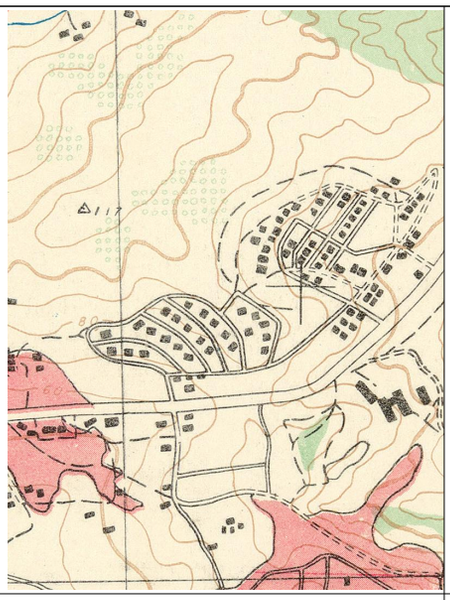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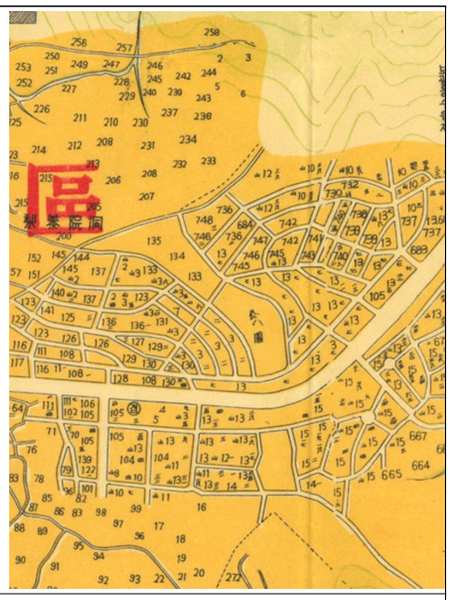
1) 김주야, 2009,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식민도시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계획계 Vol.25(4), p.175

경성부는 인구 증가로 인하여 주거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한남지구 밖에 없다는 논리로 사업의 정당성을 획득하였다. 또한 사업을 통해 경성부뿐만 아니라 부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주장하였다.[1] 하지만 한남의 입지, 사업 시기, 사업 방식을 살펴보면 일본인을 위한 고급 주택단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본인 유산층의 전원도시화가 공적인 시가지계획사업으로 실현된 것이다. 한편, 의도와 달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이후 일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은 소수였고, 광복 이후 서울의 부촌 주택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림 5-10] 이태원제1묘지 지역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112&aid=0000027759, 검색일 : 2020.12.03)

1) 「南山迂廻路新拓 發展 京城東部」, 동아일보, 1935.1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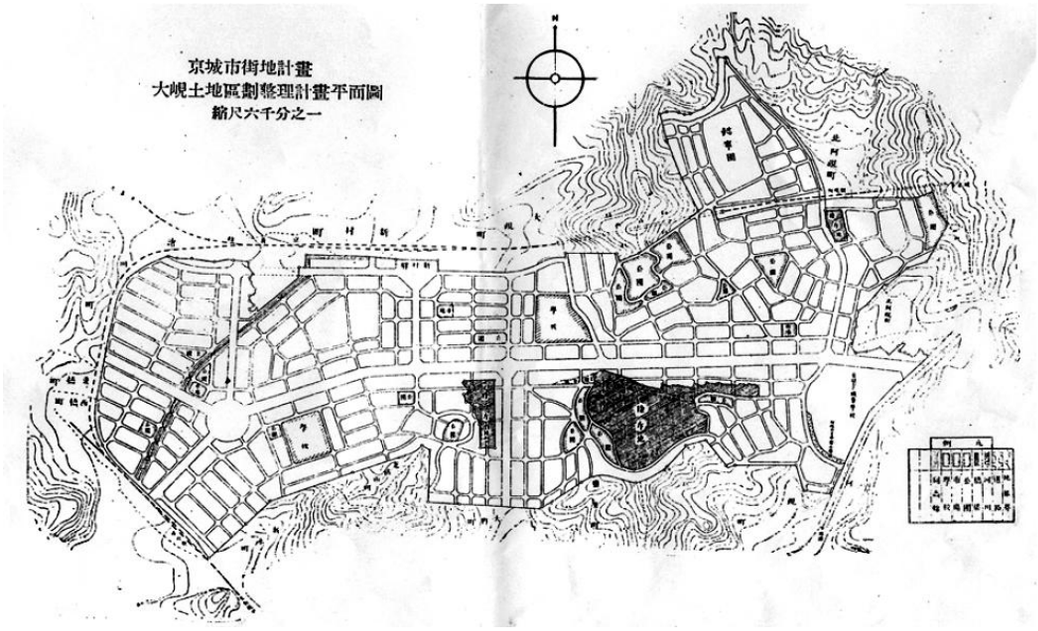
[표 5-4] 이태원제1묘지 공간 변화

		
1924년 조선교통지도	1957년 서울특별시지도	1968년 입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2) 염리묘지(1939)

조선시대 후기부터 염리묘지는 아현리묘지와 함께 도성 좌측 성저십리에 위치한 묘지였다. 1914년 경성부 축소과정에서 염리묘지는 경기도 소속으로 변경되었지만, 1936년 경성부에 재편입되었다. 이후 1939년[1] 염리묘지는 경성시가지계획에 따른 서부개발지에 포함되며, 도시계획상의 이유로 일부가 폐지되었다.[2] 도시개발은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염리묘지의 분묘 처리에 관한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도시계획지에 포함되지 않은 묘지 지역은 토막민들의 집단 거주지로 이용되었고[3], 광복 직후 전재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주거지로 전환되었다. 이

1) 박태호(2003), 위의 책, p.51 에 따르면 염리묘지가 1957년 서교구획정리사업지에 포함되며 개장되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신문기사 자료에 따르면 1939년 대현토지구획정리지구에 의해 염리 묘지가 최초로 개장되었다.
2)「鹽里共同墓地 廿八日 改葬염리공동묘지 입팔일까지 개장」, 동아일보, 1939.8.31.
3) 「歲暮風景點 其五세모풍경점 기오」, 동아일보, 1934.12.19.



[그림 5-11] 대현 토지구획정리지구 평면도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지역도 현재 분묘 처리에 대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염리동은 마포와 가까워 하역된 물건을 도성 내로 반입하는 육로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며 살기 시작한 것은 백 년도 채 되지 않았다. 일제시기 초기에는 주로 빈민층의 집단 거주지였으나, 1936년 경성시가지계획에서 아현리와 함께 주거지역에 포함되어 도시개발이 계획되었다. 1937년 대현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1939년 염리묘지 일부 지역이 개장되었다. 사업의 준공기한은 1940년이었지만,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낮게 측정된 공사비용으로 인해 택지조성이 제외되었다. 또한 고저차가 심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100×40m의 격자 형태로 도시를 계획하며 공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1943년 결국 사업이 완료되었다. 사업은 완료되었지만 절반 이상의 토지인 7만 평이 매각되지 않으며 사업이 실패하였다. 그러나 조선주택영단이 2만 8천여 평을 구입하였고, 광복 이후 문화주택이 들어서며 염리묘지는 서서히 주택지로 전환되었다.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염리묘지 공간은 주로 빈민층의 주거지로 활용되었다. 염리동 산 8번지에는 50여동의 주택을 마련하여 피난민 200세대를 이주시켰고, 광복 직후 전재민들을 위한 전재민 주택이 현 숭문중고등학교 주변에 지

어졌다.[1] 임갑동 씨에 따르면, “개바위 일대에 집을 짓다가 인골을 발견하는 일은 흔한 일이었다”고 한다.[2] 염리묘지의 일부는 도시계획을 통해 이장되었지만, 나머지는 한국 전쟁에 의해 이장 공고도 받지 못한 채 빈민들의 주거지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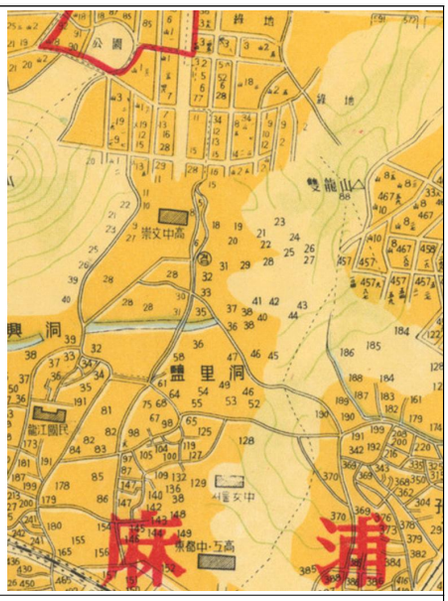
[표 5-5] 대현 토지구획정리지구 면적
(출처 : 서울 토지구획정리백서, 2017)

정리 전 (단위 : ㎡)		정리 후 (단위 : ㎡)	
대지	407923.3	대지	1188695.4
전(田)	432596.0	도로	276018.8
답(畓)	21441.3	구거	8973.2
철도용지 · 철도선로	37434.7	체비지	58457.2
임야	550879.4	시장	5826.6
묘지	140310.7	파출소	478
도로	3184.5	기타	5122.6
구거(溝渠)	1593.4	공원	34504.2
미등록지	31535.4		
합계	1626898.7	합계	1578076.0

[그림 5-12] 염리묘지 지역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1) 서울역사박물관(2010), 앞의 책, p.198
2) 서울역사박물관(2010), 앞의 책, p.195

[표 5-6] 염리묘지 공간 변화

		
1922년 경성도	1940년 대경성명세도	1968년 입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3. 통제기(1940-1944)

1) 동교리제1·2묘지(1942)

동교동은 조선시대에 성저십리에 위치하여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조그만 마을이었다. 일제시기 이전부터 동교리제1·2묘지는 연기면과 서강면 일대 주민의 북망산으로 이용되었다. 하지만 도시계획상의 이유로 매장이 금지되었고, 1942년 6월 공동묘지가 폐지되었다. 이후 10월까지 11,150기의 분묘 개장이 진행되며 619기의 유연묘는 신사리묘지로 이장되었다. 현재 무연분묘 처리 기록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이고, 무연묘가 이장되며 동교리제1·2묘지가 폐지되었다.

동교동은 일제시기를 거치며 강과 가깝고 지대가 낮고 평평하여 농사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이점 때문에 밭이나 양돈을 하는 지역으로 전환되었다.[1] 그와 동시에 경의선 뒤쪽으로는 동교리제1·2묘지가 위치하였고 상여꾼, 장의사의 마을이 유지되고 있었다.[2] 하지만 일제의 경성시가지

계획을 시작으로 1942년 동교리묘지가 폐지되면서 도시개발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일제의 재정 부족으로 도시개발이 시행되지 못하다가 광복과 함께 모두 무산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공동묘지 주변 지역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동교리제1·2묘지 동쪽 지역은 1940년대에 대현토지구획정리지구로, 남쪽 지역은 1960년 서교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며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한편, 공동묘지 지역은 전재민, 피난민이 이주하며 무허가 주택지를 형성하였다.[1] 이러한 도시 형성과정으로 인하여 공동묘지 지역은 현재까지 유기적인 도시구조로 남아있다. 1950년 서울시는 주택문제의 해결책으로 일정 지역의 무허가 건물의 철거를 보류하였지만,[2] 차츰 주변 지역이 개발되고 홍익대학교 신설로 인하여 개발 압박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동교리묘지 지역은 1970년대에 이르러 도로를 넓히는 등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무허가 주택지에서 비교적 세련된 단독주택지로 전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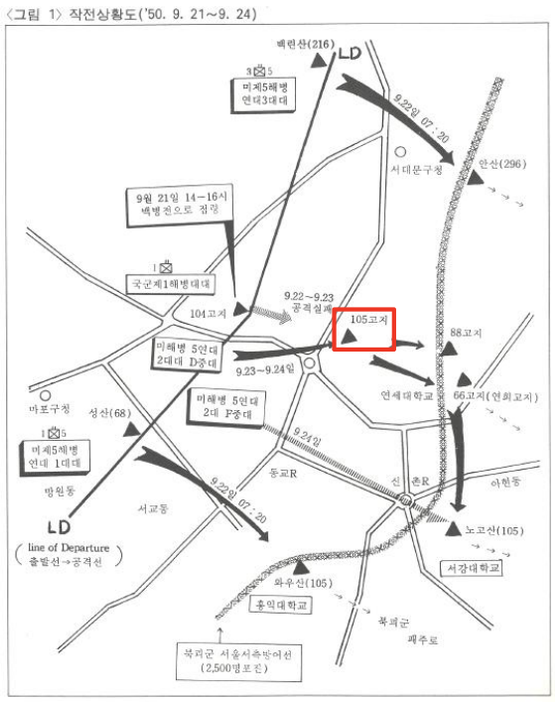
[표 5-7] 동교리제1·2묘지 공간 변화

1914년 경성부전도	1941년 경성부공동묘지입지도	1970년 새서울약도

1) 「養豚地區指定」, 동아일보, 1947.7.31.
2) 서울역사박물관, 2018, 『홍대 앞 : 서울의 문화발전소』, 서울역사박물관, p.342
1) 「無許可建物撤去保留 住宅地를 三萬坪을 提供」, 조선일보, 1947.9.20.
2) 「無許可建築地帶設定」, 동아일보, 1950.11.12.

2) 연희묘지(1942)

연희동은 조선시대 이궁이었던 연희궁이 위치한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지명이다. 1913년 조선인묘지로 신설된 이후 연희묘지는 한동안 유지되었지만, 경성시가지계획지구에 포함되면서 위생상 · 발전상으로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되었다. 1942년 연희묘지의 매장을 금지하였고, 얼마 후 공동묘지는 폐지된 것이다. 현재 분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부재한 상황이다. 다만 일제의 재정 부족과 광복으로 분묘 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한국 전쟁 과정에서 연희묘지는 주요 격전지인 105고지 지역에 위치하며 많은 분묘가 사라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연희묘지를 배경으로 한 염상섭의 소설 『만세전』이 1960년대에 출판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1942년부터 이 시기까지 서서히 분묘의 이장 및 공동묘지 폐지가 진행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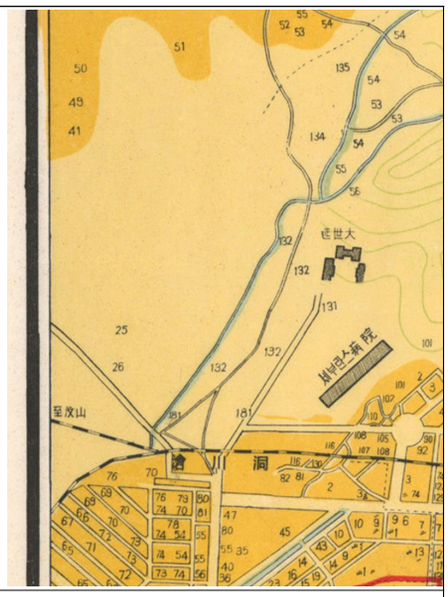
[그림 5-13] 6.25동란 마포지역 작전상황도
(출처 : 『마포 : 어제와 오늘』, p.113)

전통적으로 연희묘지 주변지역은 넓은 평지지역이고, 강과 가까워 좋은 논으로 유명하였다. 주민들은 약 360세대 정도로 작은 마을이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지만, 경성시가지계획구역에 포함되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1] 공동묘지 지역은 도시계획상 장애로 판단되어 폐지되었고, 주변지역과 함께 준공업지대로 계획되며 개발이 예정되었다. 하지만 광복으로 인해 도시계획은 무산되었다. 한국 전쟁 이후 연희동은 전재민, 피난민이 모여들며 무허가 주택지가 형성되기

1) 「새町會새氣滔巡廳記」, 조선일보, 1938.12.21.

시작하였다. 이후 1960년대 중반 연희동은 기존 주택지와 인접하고, 성산지구 공업지와 근접한 주택지 및 준공업지대에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무질서한 건축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근대 도시화를 위한 주택지 및 공업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이 시행되었다.[1] 이에 따라 연희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1967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선정되며 근대 도시화를 위한 교외 주택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연희묘지가 있던 연희로 동쪽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지 못하며 무허가 주택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개별 필지별로 주택이 증 · 개축되면서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는 자취 및 하숙촌으로 전환되었다.[2] 이러한 도시 형성 방식의 차이로 인해 연희동은 지금까지 연희로를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다른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5-8] 연희묘지 공간 변화

		
1914년 경성부전도	1936년 대경성전도	1968년 입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1)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2017, 『서울 토지구획정리백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p.364

2) 연세로 동북쪽(현 서울외국인학교 부근)은 연희전문학교와 관련된 외국인이 거주하며 고급주택지들이 산재되어 자리 잡고 있었다.

제 2 절 대한민국 정부시기

1. 혼란기(1945-1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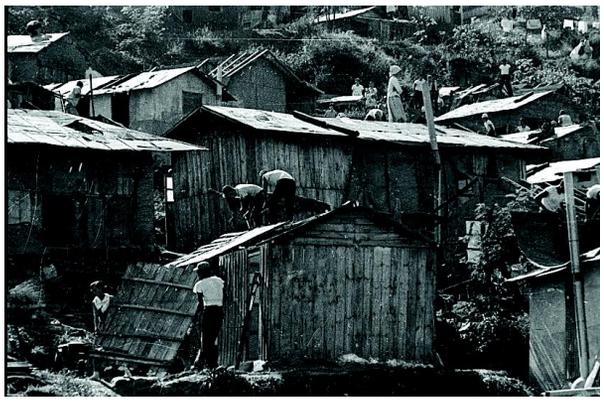
1) 이태원제2묘지(1950년 초)

조선시대 성저십리에 위치한 보광동은 도성과 달리 한적한 시골이었으며, 한강 주변(현 오산중학교 부근)에만 일부 마을이 발달하였다. 하지만 일제시기 신용산 주변에 군사용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보광동으로 강제 이주되며 웃말에도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였다.[1] 그러나 여전히 주변은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몇 개의 마을을 중심으로 집들이 모여있는 시골마을의 모습이었다. 마찬가지로 우사단길 주변도 호박밭과 이태원제2묘지가 혼재된 시유지였다. 하지만 광복 이후 서울시의 급속한 발전과 시역 확장으로 인하여 1949년 이태원제2묘지가 도시구획정리지에 편입되었고, 1950년 2월 공동묘지의 폐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6월 한국 전쟁의 발발로 공간계획은 무산되었다.

보광동의 본격적인 주택지 형성은 크게 1955년 이전 천막촌 및 전재민주택 건설과 1955년 이후 상이용사주택 건설로 구분된다. 전쟁 이후 공동묘지 지역은 전재민, 피난민들의 집단 거주지로 변하였다. 판자집을 짓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다수의 묘지를 파내고 정리한 것이다.[2] 또한 후암동이나 해방촌 등 도심지 철거민들과 태풍 이재민이 정착하여 천막촌을 이루었다.[3] 판자촌이 위치한 지역은 국유임야로 경사가 있기에 축대를 쌓고 계단식으로 빈민주거지를 형성하였다. 이후 서울시가 시공유지인 공동묘지 토지를 구별로 약 10여 평씩 불하하면서 영세한 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

1) 서울역사박물관, 2008, 『보광동, 1-1』, 서울역사박물관, p.24
2) 서울역사박물관(2010), 앞의 책, p.64
3) 「無色한 觀光의해」, 경향신문, 1961.02.15.



[그림 5-14] 1962년 이태원제2묘지 지역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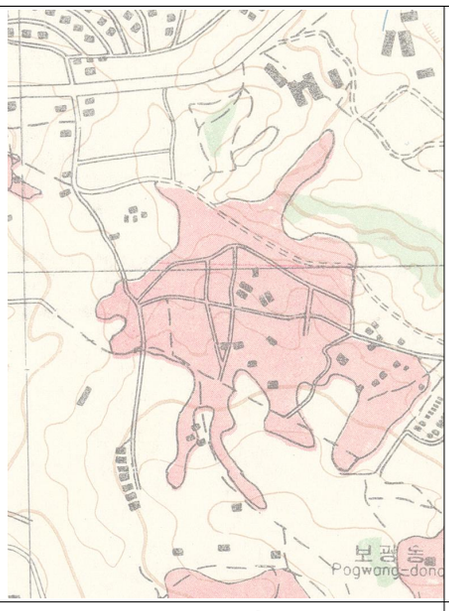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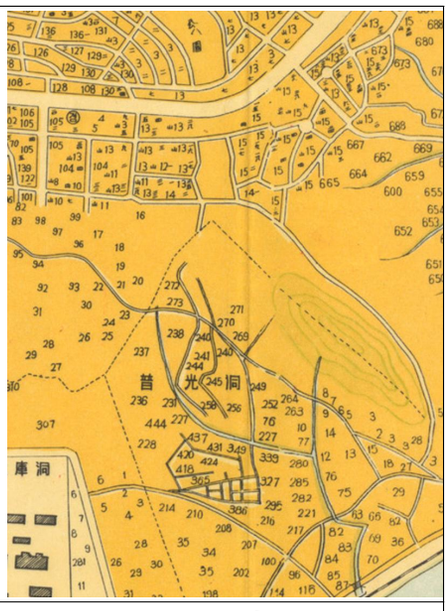
[그림 5-15] 1964년 이태원제2묘지 지역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이후 판자촌은 한남동 무허가건물양성화 사업으로 인하여 점차 주택지의 모습을 갖추었으며, 대한주택영단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원조자금을 통해 전후 희망주택과 재건주택을 건설하였다.[1] 이에 따라 우사단 주변은 국가제의 공간으로서가 아닌 빈민주택지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후 1955년에는 상이용사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이 건설되었다. 건축자재는 미군이 지원하고, 육군 공병대가 투입되어 건설되었다. 1958년 상이용사주택이 완공되며 100동, 200세대 규모의 단지가 들어섰다. 우사단로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며 이곳은 저녁 무렵 물건을 교환하는 시장이 형성되었다. 낮에는 아무 것도 없지만, 저녁 무렵 사람이 몰려들어 도깨비시장이란 이름이 붙여졌고, 1970년까지 매춘이 일어는 유흥가로 자리잡았다. 이후 1980년대 후반 우사단로 주변 공영주택에는 단독주택 또는 빌라가 건설되며 새로운 경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1) 서울역사박물관(2010), 앞의 책, p.84

[그림 5-16] 이태원제2묘지 지역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표 5-9] 이태원제2묘지 공간 변화

		
1924년 조선교통지도	1957년 서울특별시지도	1968년 입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2) 미아리제2묘지(1958)

조선시대까지 미아리 지역은 성저십리에 속하여 도성보호와 국왕 호위의 역할을 하는 장소였다. 하지만 일제시기 공동묘지 지역으로 지정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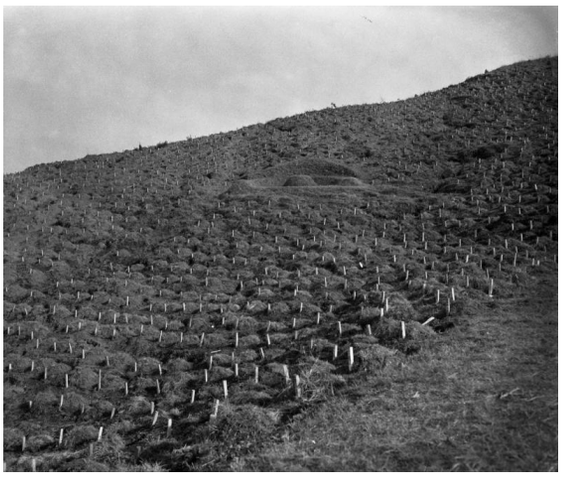
고, 1930년 제2묘지까지 신설되며 미아리는 죽은 자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39년 방사형묘지계획에 미아리묘지가 포함되며 사자의 공간으로 백년 미래가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미아리는 묘지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터전이 되었고, 사자와 이별하는 장소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광복과 한국 전쟁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겪으며 미아리가 변하기 시작하였다. 전재복구 과정에서 미아리는 다시 산 자의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미아리제2묘지는 방사형 묘지계획 이후 지속적으로 이전건의 운동이 진행되었다. 1950년 국회에서 이전 건의안이 가결되었지만,[1] 한국 전쟁으로 계획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한국 전쟁 이후 서울로 몰려드는 피난민, 전재민의 증가로 도심지 내 천변, 다리 밑, 소개도로는 무허가 판자촌으로 뒤덮이게 되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서울시는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간선도로변 판자촌을 철거하고, 이들을 국공유지인 미아리, 구로동과 번동로 쫓아내기 위해 정착촌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미아리제2묘지에 매장된 1만9천여 기의 분묘 중 6천여 기는 자진 이장기간에 이장하였고, 나머지 무연고묘 1만3천여 기는 반포묘지에 합장하면서 미아리제2묘지는 폐지되었다.

1959년 본격적인 난민정착사업을 위해 선정된 전재복구사업지 중 한 곳이 미아리제2묘지였고, 이곳에 모범적인 중류주택을 건설하는 택지조성계획이 세워졌다. 서울시는 토지 32만 평을 제공하여 미아동 산 111번지에 600가구, 산 75번지에 900가구 이주를 목표로 1957년까지 약 1,000가구의 정착을 계획하였다.[2] 난민정착사업은 택지 공급뿐만 아니라 '정착을 위한 시범 사업지'로 지정되며 경제공동체 운영 시스템을 적용하였다.[3] 난민들이 정착지 조성을 위한 기획과 노동력을 제공하고 서울시가 감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4] 주로 전재민과 피난민,

---

1) 「미아리 공동묘지, 국회서 이전 건의 가결」, 자유신문, 1950.4.7.
2) 김우철, 2018,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서울역사편찬원, p.128-129
3) 김우철, 앞의 책, p.125
4) 김우철, 앞의 책, p.128-129



[그림 5-17] 1958년 미아리공동묘지
(출처 : 서울기록원)

[그림 5-18] 미아리 난민정착지
(출처 : 서울역사박물관)

상이용사 군인이 집단이주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또한, 1957년 8월 17일 양동지역의 대형 화재로 인해 집을 잃은 화재민 200세대, 1958년 9월 9일 이촌동 수재민, 서울시 도심지 무허가 판자촌에 거주하는 난민들도 미아리로 이주하였다. 공간 조성원칙을 살펴보면, 평지는 100평 내지 150평을 기준으로 하고 산지는 200평에서 300평 조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매년 80,500평의 사업이 계획되었지만 예상과 달리 첫 해 3만 평, 2,934가구분의 사업만 진행되었고, 건설과정에서 공간 조성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손정목에 따르면 1960년에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인해 행정이 마비되었고, 이 일대에 무허가 판자집이 난립하여 사업이 중지된 것이라고 서술하였다.[1] 자유당에서 추진하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여 33만 평 중 17만 평의 택지조성만 진행되고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공동묘지가 폐지되고 형성된 난민주택 및 정착사업은 서울 변두리 공영주택 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아리를 포함한 정릉동, 회기동 등은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야산지대나 농촌이었지만 주택단지와 함께 기반시설이 설치되며 새로운 주택지로 변모하였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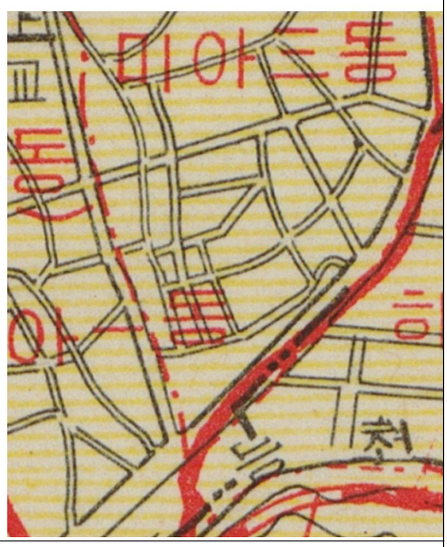
33만 평에 달했던 대규모 난민정착지사업지는 급박한 상황 하에서

1)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한울
2) 김우철, 앞의 책, p.147

포괄적인 도시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파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다. 기존 공동묘지 길과 등고에 따라 도로가 형성되고, 블록 내에 주거단지가 형성되며 유기적인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19] 1959년 미아리 위생시설 조사도
(출처 :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p.162-163)

[표 5-10] 미아리제2묘지 공간 변화

		
1957년 서울특별시지도	1970년 새서울약도	1974년 개정서울특별시전도

2. 전환기(1962-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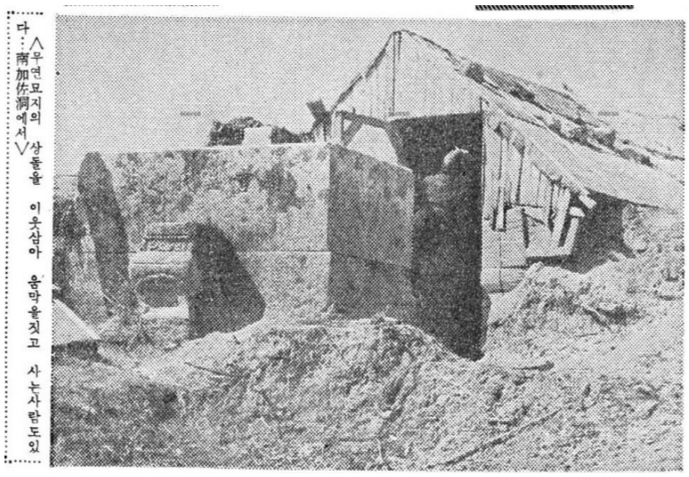
1) 남가좌동묘지(1965)

가재울(현 남가좌동 · 북가좌동)은 조선시대에 무예시험을 보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일부 지역에 한적한 마을을 이루는 시골이었다. 마을 주변에 형성되었던 북망산은 일제시기에 남가좌동묘지로 지정되어 은평면 고양군, 남면 일원, 공제원 부근의 주민들이 사용하였다. 1941년 남가좌동묘지는 도시발전상 장애라는 이유로 묘지통제계획에 따라 폐지가 예정되었다. 하지만 태평양전쟁과 광복으로 계획이 무산되었고, 매장이 가능했던 남가좌동묘지는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1] 1949년 남가좌동이 서울시에 편입되고, 1960년대에 교통이 연결되고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공동묘지는 빠르게 폐지되었다. 남가좌동묘지는 이장과 폐지에 대한 자료도 없이 산 자의 공간으로 전환된 것이다.

조선시대에 가재울은 주변이 모두 논밭이었고, 일제시기 경성부가 확장하는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도시개발이 진행되지 않았다. 1950년대까지 남가좌동은 원주민 2,200명이 거주하는 조용한 마을이었지만, 1949년 서울시에 포함되어 도시개발 가능성을 가진 지역이 되었다. 남가좌동은 1960년대 초 사라호 태풍으로 인한 이촌동 수재민과 환송동포들의 이주지로 선정되고 응암동 난민주택사업이 진행되며 인구가 크게 늘기 시작하였다.[2] 1966년대 김현옥 시장이 도시미화에 예산을 집중하며 이주민, 빈민들이 모인 판자촌 지역은 19,500평의 택지조성사업이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약 500동의 주택 공급이 계획되었지만 재정 부족으로 5,000평과 170동의 주택을 짓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3] 이와 함께 사천교가 개통되고 교통이 편리해지며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

1) 「彌阿里共同墓地移轉에 難關」, 경향신문, 1957.9.28.
2) 「天幕二五O個 二村洞水災民에」, 동아일보, 1958.9.13.
3) 「금년엔 百70棟만」, 경향신문, 196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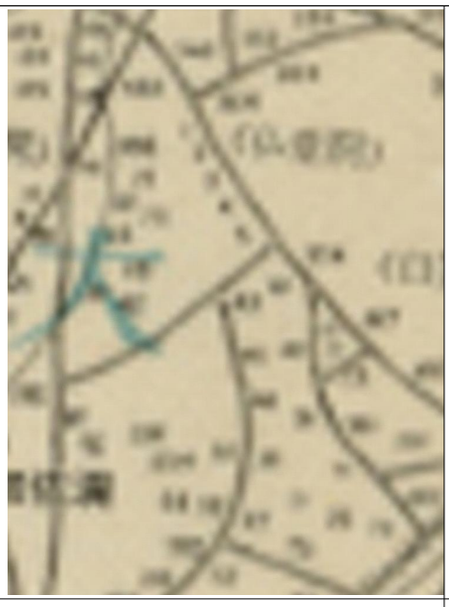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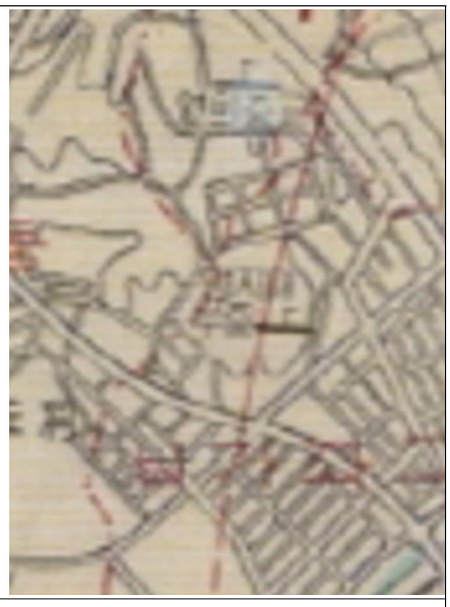


[그림 5-20] 무연묘지위에 집짓는 사람들
(출처 : 동아일보, 1964.3.16.)

[그림 5-21] 교외로 뻗어가는 주택가
(출처 : 동아일보, 1965.3.12.)

이 지역은 대부분 시유지로 이주정착지 주변으로 판자촌이 형성되었다. 또한 후암동 철거민들이 이주하여 공동주택이 건설되었고, 모래내시장이 형성되었다. 모래내시장의 활성화는 가좌동이 주거지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시장 형성 이후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판잣집이나 흙벽돌 주택의 신축이 이어졌다. 남가좌동은 수재민과 도시빈민의 정착촌이었기 때문에, 유기적인 도시 형태를 갖고 있다. 즉 공간계획을 통해 형성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와 토지 분할이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2m 내외의 좁은 길들로 구성되어 있고, 주택 배치는 좌향이 크게 고려되지 않고 대지를 따라 구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지만 1960년대가 지나며 무질서하게 난립하던 판잣집과 서민주택은 세검정과 연희동에 이르는 간선도로 개통과 홍제천의 복개공사 이후 점차 현대식 주택으로 전환되었다. 남가좌동은 공동묘지로 인하여 주택지로서 좋지 않은 위치로 여겨졌으나, 도시미화를 통해 시민아파트가 들어서며 주택가로서의 위치를 굳히게 된 것이다. 또한 교통의 편의성으로 인해 주택가뿐만 아니라 상점가로도 각광을 받으며 남가좌동은 점차 근대도시로 전환되었다.[1)]

[표 5-11] 남가좌동묘지 공간 변화

		
1950년대 중반 서울시가지도	1964년 최신서울특별시전도	1974년 개정서울특별시전도

2) 신사리묘지(1970)

신사리의 옛 지명인 고태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속어로 조선시대부터 공동묘지와 처형장으로 활용되었다. 1913년 공동묘지 신설 과정에서부터 신사리묘지가 포함되며 경성오부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1941년 방사형 묘지계획의 5개 공동묘지에 포함되며 경성부 외곽에 유지되었지만, 1970년 서울 서부개발지에 포함되며 폐지가 진행되었다. 신사리묘지는 경성부에서 가장 멀리 위치하고, 세 번째로 큰 규모라는 특징 때문에 오랫동안 유지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1968년부터 3년 동안 4만5천 기 분묘를 이장하려 했지만, 마지막 1년 동안 분묘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3만여 기만 개장되었다. 그 중 2만여 기의 분묘를 용미리묘지 · 벽제리묘지로 이장하였다. 약 2만 5천여 기의 분묘 중 일부는 합장하였고, 처리되지 않은 1만5천 기 분묘에 대해서는 현재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이다. 1970년 신사리묘지를 마지막으로 망우리

1) 「弘恩동」, 매일경제, 1969.11.15.

묘지를 제외한 공동묘지가 모두 폐지되었다.

신사동은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1949년 서울시역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한국 전쟁과 전후복구 과정에서 개발이 지연되었다. 이후 1960년대 서부개발 과정에서 신사리 묘지 지역은 일부가 역촌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었고, 나머지 지역이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지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공동묘지가 대부분의 토지를 차지하고 있었던 신사리지역이 주거지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1968년 4만 평의 택지를 조성하여 공공용지 3%를 제외한 나머지를 50-60평의 대지로 분할하여 평당 1만원씩에 분양을 계획하였다.[1] 초기에는 망원지역 수해 이재민들, 행당동 뚝섬 경작민과 용산 철거민들이 이주 · 정착하였고, 이후 1969년 주택단지, 공원, 시장 및 학교가 건설되며 신사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공간이 되었다. 지리적 여건과 인프라의 부족으로 인하여 타 지역보다 땅값이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것이다. 번화가는 평당 6만원, 대로변은 평당 3만-4만원, 주택지는 1만 5천-2만원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었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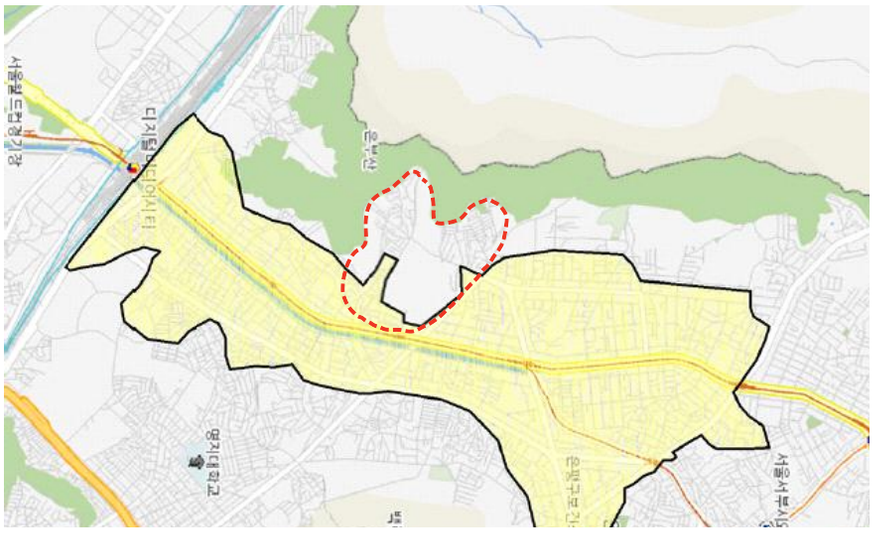
[표 5-12] 역촌 토지구획정리지구 면적
출처 : 서울 토지구획정리백서, 2017

정리 전 (단위 : ㎡)		정리 후 (단위 : ㎡)	
대지	224338.2	일반지	1910595.1
전(田)	633814.3	도로	196.767
답	1459378.4	수로(구거 포함)	61774.2
임야	339583.4	공원	9866.1
묘지	35851.3	체비지	70000
도로	26627.1	시장	9917.3
기타	6285.7	학교	70233.5
		기타	273743.6
합계	2725878.4	합계	2602896.8

역촌토지구획정리사업은 대규모 사업이었지만, 사업지구에 포함된 묘지 면적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신사동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공동묘지 폐지가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격자형 도시 형태 모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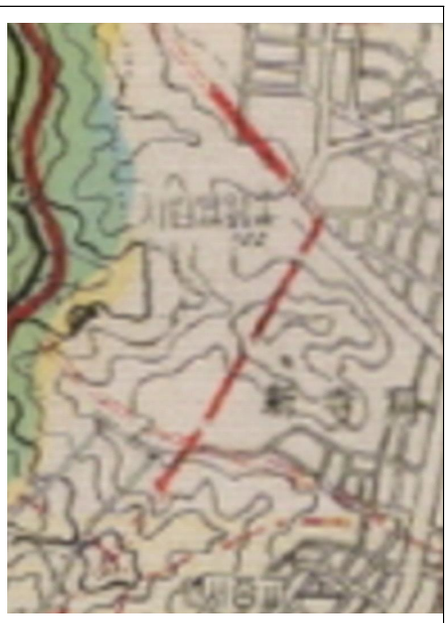
1) 「宅地十七萬坪造成」, 동아일보, 1968.1.6.
2) 「鷹岩洞」, 매일경제, 1969.9.4.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2] 역촌 토지구획정리지구
(출처 : 토지구획정리백서, 2017)

[표 5-13] 신사리묘지 공간 변화

		
1914년대 경성부전도[1]	1964년 최신서울특별시전도	1974년 개정서울특별시전도

1) 왼쪽 아래 주황색 사각형이 경성부전도에서 공동묘지를 표시한 기호

제 3 절 소결

이번 장은 각 시기별로 두 개의 공동묘지를 선정하여 공간 변화를 살펴봄으로서 공동묘지 폐지의 원인에 대해 자세히 고찰하고자 하였다.[1] 총 10개의 공동묘지는 모두 도시계획상의 이유로 폐지되었고, 주택지로 전환되었다. 주택지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원인은 북망산의 입지로부터 연유한다. 일제는 1913년 공동묘지를 새롭게 형성하는 대신, 기존 북망산 중에 일부를 공동묘지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묘지를 음택(陰宅)이라 칭하며 주택만큼이나 풍수적으로 좋은 위치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북망산의 입지는 기존에 형성된 마을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멀리 떨어지지 않은 낮은 언덕에 위치하였다. 따라서 도시 확장과정에서 공동묘지는 자연스럽게 주택지로 공간 생산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비기(1921-1933)에는 신당리묘지와 아현리묘지가 폐지되었다. 1929년 신당리묘지는 1920년대 교외노선의 등장과 함께 폐지되었다. 이 지역은 무학정토지경영회사가 민간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본인과 조선인 상류층을 대상으로 고급주택지를 건설한 것이다. 1932년 아현리묘지는 시구개정사업지에 포함되며 공동묘지가 폐지되었지만, 이후 공간계획이 부재하였다. 이후 경성부는 도성 내에 위치한 토막민을 분산시키는 정책지로 아현리묘지 지역을 선정하며 토막민 집단 수용사업을 진행하였고, 주변에는 무허가 주택지가 형성되었다. 계획기(1934-1939)에는 이태원제1묘지와 염리묘지가 폐지되었다. 1937년 이태원제1묘지 공간은 신당리에서 삼각지로 이어지는 남산주회도로 개통으로 인해 도시계획이 가속화되었다. 이 지역은 경관이 좋고, 도로가 연결되며 최적의 주택지로 선정되었고, 조선주택영단은 공동묘지를 개장하고 한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주택지는 일본인과 조선인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주택지가 건설되었다. 1939년 염리묘지는 일부가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에 포함되며 폐지되었다. 이 지역은 중산층 조선인을 한양도성 외곽으로 이주시키기 위하여 일반주택

1) 혼란기와 전환기는 면적이 크고 분묘수가 많은 공동묘지 두 개를 선정하였다.

지가 건설되었다. 토지구획정리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1940년대 토막촌이 형성되었다가, 한국 전쟁 이후 전재민에 의한 무허가 주택지로 전환되었다. 통제기(1940-1944)에는 동교리제1·2묘지와 연희묘지가 폐지되었다. 경성시가지계획에서 두 묘지가 포함된 지역은 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개발이 예정되면서 공동묘지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광복과 한국 전쟁을 겪으며 공간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고, 전재민, 피난민들에 의해 무허가 판자촌이 형성된 것이다. 이후 국가가 토지를 불하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형성되었다. 혼란기(1945-1961)에는 이태원제2묘지와 미아리제2묘지 공간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1950년대 초에 폐지된 이태원제2묘지는 한국 전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묘지 폐지가 결정되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공간계획이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전재민에 의해 무허가 주택지로 빠르게 변모하였고, 국가가 토지를 불하하며 빈민주택지가 형성되었다. 또한 1950년대 중반 이후 일부 공간에 상이용사 주택지를 건설하며 도시가 형성되었다. 1958년 미아리제2묘지는 미아리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폐지되었다. 미아리제2묘지는 한국 전쟁 이후 도심지를 뒤덮은 판자촌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이주지로 선정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지 주변으로 빈민들이 무허가주택지를 형성하면서 사업은 중단되었다. 전환기(1962-1970)에는 남가좌동묘지와 신사리묘지 공간을 분석하였다. 1965년 남가좌동묘지는 이촌동 수재민 이주지역으로 선정되고 응암동 난민정착사업이 진행되며 공동묘지가 폐지되었다. 도시민의 유입으로 공동묘지 폐지가 가속화되었고, 남가좌동 지역은 완전히 주택지로 전환되었다. 1970년 신사리묘지는 서부개발지에 포함되며 폐지되었다. 신사리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1960년대 역촌토지구획정리지구에 일부가 포함되었고, 나머지 지역이 1968년에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지로 선정되며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신사리묘지를 끝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는 23개 공동묘지는 망우리묘지를 제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표 5-14] 공동묘지 공간 형성

	시기 (연도)	공동묘지	공간형성 방식 (공간계획사업)	공간형성 주체	이후 공간	거주민
일제시기	정비기 (1921-1933)	신당리묘지 (1929)	민간도시개발사업 (무학정 주택단지)	무학정토지경영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고급주택지	일본인 상류층 조선인
		아현리묘지 (1932)	토막민 집단 수용사업	화광교원	빈민주택지	토막민
	계획기 (1934-1939)	이태원제1묘지 (1937)	한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선주택영단	고급주택지	일본인 상류층 조선인
		염리묘지 (1939)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성부	일반주택지 빈민주택지	중산층 조선인 토막민
	통제기 (1940-1944)	동교리제1·2묘지 (1942)	자연발생 (토지 불하)	-	빈민주택지	전재민·피난민
		연희묘지 (1942)	자연발생 (토지 불하)	-	빈민주택지	전재민·피난민
대한민국 정부시기	혼란기 (1945-1961)	이태원제2묘지 (1950년대 초)	자연발생 (토지 불하)	-	빈민주택지 상이용사아 주택지	전재민·피난민 상이용사
		미아리제2묘지 (1958)	미아리 택지조성사업	서울시 난민정착위원회	일반주택지 빈민주택지	중산층 철거민
	전환기 (1962-1970)	남가좌동묘지 (1965년)	남가좌 택지조성사업 응암동난민정착사업	서울시	일반주택지 이주정착지	중산층 수재민
		신사리묘지 (1970)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신사동 택지조성사업	서울시	일반주택지 이주정착지	중산층 수재민

제 6 장 공동묘지 변화 결과 및 고찰

본 장에서는 공동묘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계획(3장)의 시기 구분을 기본 틀로 삼고, 공동묘지 계획 및 제도(4장)와 공동묘지 공간(5장)의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공동묘지 폐지 원인을 분석하고, 공동묘지 폐지의 일반적 경향과 서울의 특수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표 6-1 참조)

[표 6-1] 공동묘지 변화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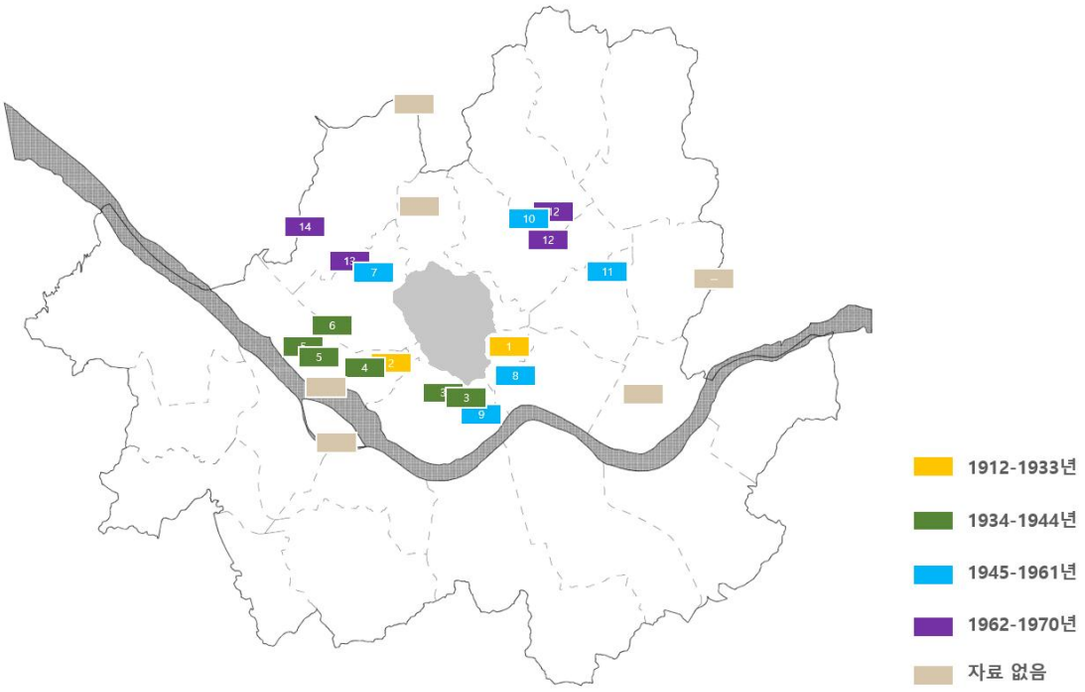
항목	일제시기				대한민국 정부시기	
시기 구분 (연도)	형성기 (1912-1920)	정비기 (1921-1933)	계획기 (1934-1939)	통제기 (1940-1944)	혼란기 (1945-1961)	전환기 (1962-1970)
도시계획	시구개정	경성도시계획운동	조선시가지계획령 경성시가지계획	방공계획	도시재건계획	서울도시기본계획
묘지계획 및 제도	묘지규칙 제정	묘지정리계획 묘지증설계획	방사형묘지계획	묘지통제계획	-	묘지현대화계획
공동묘지 폐지[1]	-	**신당리묘지** **(1929)** **아현리묘지** **(1932)**	**이태원제1묘지** **(1937)** **염리묘지** **(1939)**	**동교리제1묘지** **(1942)** **동교리제2묘지** **(1942)** **연희묘지** **(1942)**	홍제묘지 (1950) 수철리묘지 (1950년 전후) **이태원제2묘지** **(1950년대 초)** 이문리묘지 (1958) **미아리제2묘지** **(1958)**	미아리제1묘지 (1963) **남가좌동묘지** **(1965년)** **신사리묘지** **(1970)**

1) 진하게 표시된 공동묘지는 5장에서 분석의 대상이 된 공동묘지이다.

제 1 절 서울 공동묘지 변화의 일반적 경향

1. 도시계획을 통한 공동묘지 폐지

본 연구를 통해 근대 이후 신설된 공동묘지가 모두 도시계획에 의해 폐지되었음을 고찰하였다. 관유지였던 공동묘지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서울 공동묘지의 명멸(明滅)이 도시계획은 밀접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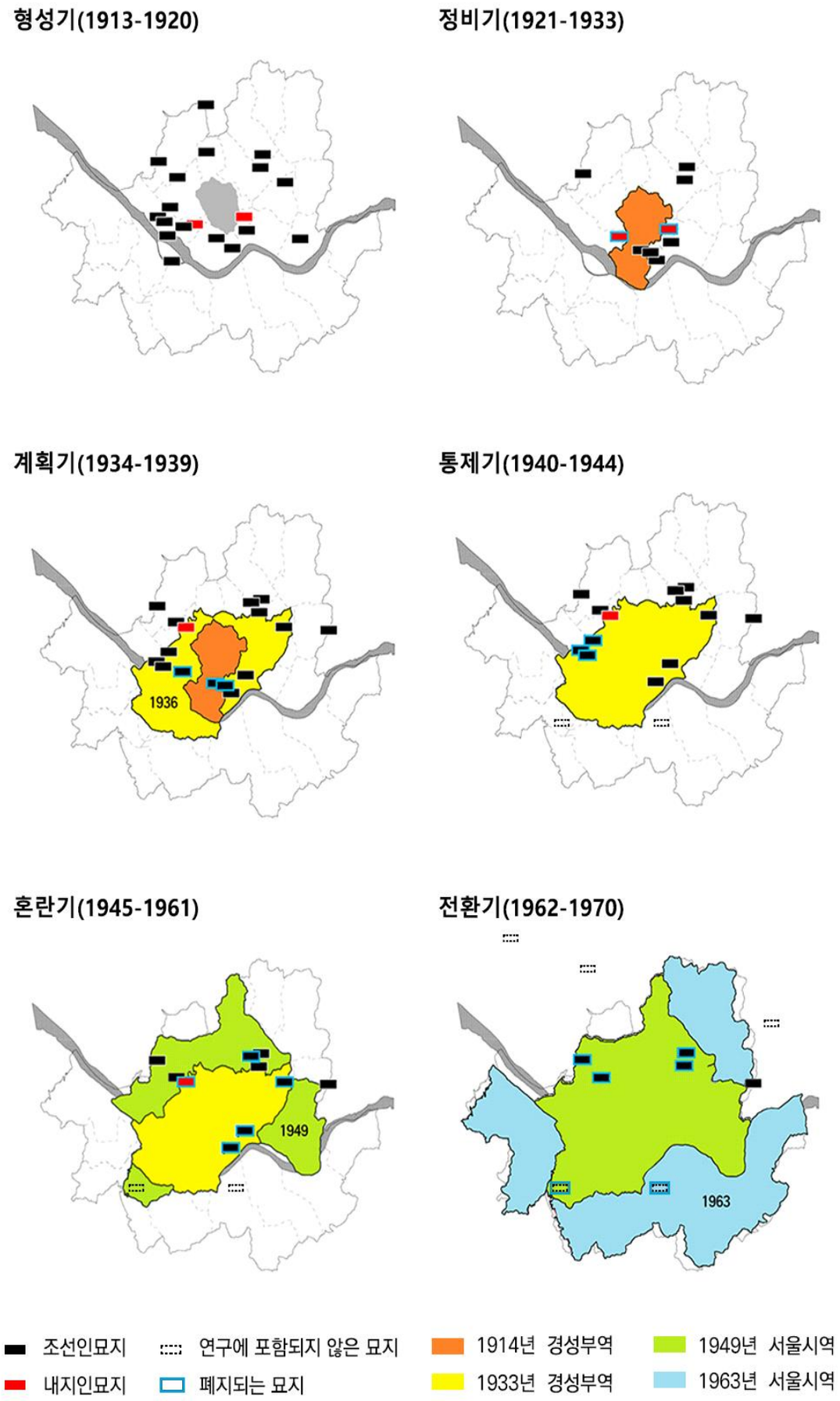
[그림 6-1] 공동묘지 폐지 순서

본 연구에서 서울 도시계획 과정을 총 4단계(대경성 이전-대경성 이후-산업화 이전-산업화 이후)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23개의 공동묘지는 망우리묘지를 제외하고 모두 폐지되었다. 도시계획에 따른 공동묘지 폐지 순서를 살펴보면 경성 및 서울의 도시계획구역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6-1 참조)

1920년대 일제는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신당리묘지와 아현리묘지가 위치한 동 · 서로 도시가 확장되었다. 1936년 대경성 계획에 따라 한양도성에서 영등포로 이어지는 서남부지역으로 경성부역이 확장되며 주변 공동묘지-이태원제1묘지, 염리묘지, 동교리제1·2묘지, 연희묘지-가 폐지되었다. 이후 광복 및 서울시역 확장과 더불어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공동묘지-홍제묘지, 수철리묘지, 이태원제2묘지, 미아리제2묘지, 이문리묘지-가 파편적으로 폐지되었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 서울시역 확장과 함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서울 북부지역의 도시개발이 진행되었고, 공동묘지-미아리제1묘지, 남가좌동묘지, 신사리묘지-가 폐지되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공동묘지가 국가의 통제를 받는 도시계획시설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히 하였고, 서울 근대화과정에서 공동묘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폐지되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도시계획에 의한 공동묘지 폐지는 도시와 묘지의 관계를 결정하였다. 도시화 과정에서 서울시역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공동묘지는 항상 통폐합되어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다. (그림 6-2 참조) 구체적으로, 1914년 경성부 축소 이후 경성 및 서울은 1936년, 1949년, 1963년 세 번에 걸쳐 영역이 확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도심지(한양도성)와 가까이 위치한 공동묘지부터 차례로 폐지되고, 도시 경계부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유지되었다. 다시 말해, 공동묘지는 일관되게 도시 경계부에 위치한 것이다. 이러한 일관된 입지관계는 묘지계획의 결과라기보다 도시계획에 의해 공동묘지의 입지가 수동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도시 확장 과정에서 도시 내로 편입된 공동묘지 공간이 근대적 공간으로 생산되면서 도시 외곽의 공동묘지만 유지된 것이다. 요약해보면, 근대화 · 도시화 과정에서 공동묘지는 국가 주도의 도시계획에 영향을 받아 폐지되었고, 그 영향으로 서울 공동묘지가 항상 도시 외곽에 위치하였음을 고찰하였다.

2. 묘지계획을 통한 공동묘지 권역별 배치



[그림 6-2] 공동묘지의 시기별 변천과정

공동묘지 폐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수동적으로 결정되었지만, 공동묘지의 확장이나 신설은 묘지계획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일제시기 묘지계획은 서울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 기조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림 6-2 참조) 1914년 경성부 축소 이후 권역별로 최소한 하나의 공동묘지가 위치하며 입지가 세심하게 다루어졌다. 6개 공동묘지는 4개의 조선인묘지(동일개소 3개소)와 2개의 내지인묘지로 구분하였으며, 조선인묘지는 동·서·남·북 권역(수철리 · 신사리 · 이태원 · 미아리)으로, 내지인묘지는 동·서 권역(신당리 · 아현리)으로 배치되었다. 즉 현대 도시계획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의 권역별 배치가 시행된 것이다.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여러 공동묘지가 폐지되었지만, 도시화에 따른 경성부 인구 증가로 그 수요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수요와 배치에 관한 연구를 통해 묘지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공동묘지를 신설하였다. 1939년 경성부는 경성부 외곽지역에 5개 공동묘지를 배치하는 방사형 묘지계획을 통해 권역별 배치 기조를 유지하였다. 요약해보면, 공동묘지의 폐지는 도시계획에 의해 수동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공동묘지의 신설은 양적 측면과 권역별 배치를 고려한 묘지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고찰하였다.

3. 일반주택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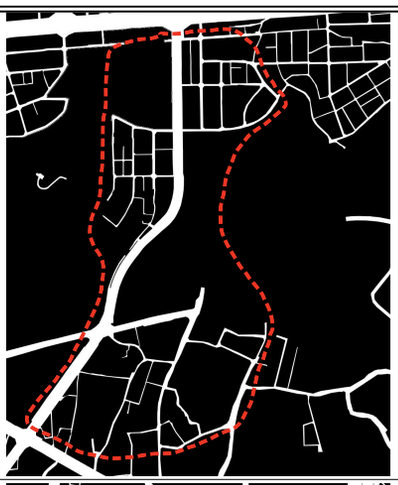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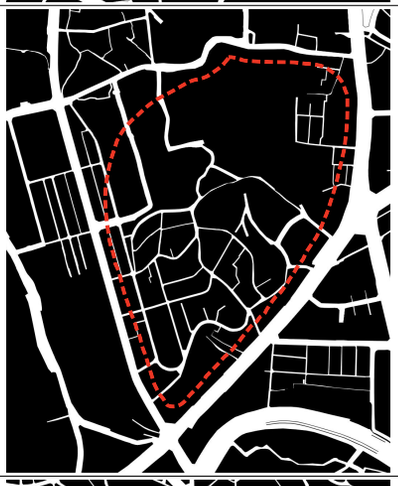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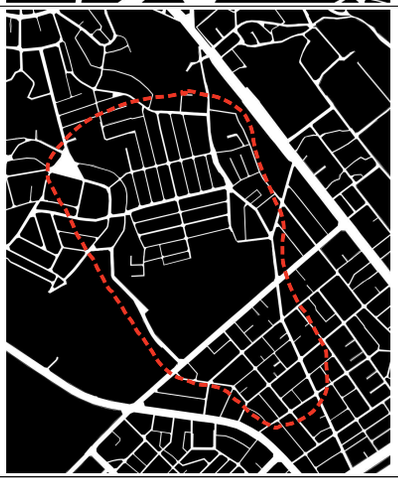
[표 6-2] 일반주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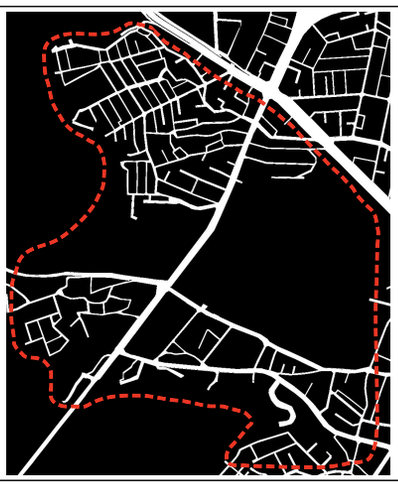
공동묘지	공간형성 방식	공간형성 주체	공간계획	거주민	공간 형성시기
염리묘지 (1939)	대현 토지구획정리사업	경성부	일반주택지	중산층 조선인	1940년대
미아리제2묘지 (1958)	미아리 택지조성사업	서울특별시 난민정착위원회		철거민 중산층	1950년대 말
남가좌동묘지 (1965년)	남가좌 택지조성사업 응암동 난민정착사업	서울시		수재민 중산층	1960년대
신사리묘지 (1970)	역촌 토지구획정리사업 신사동 택지조성사업	서울시		수재민 중산층	1960년대

1940년대 · 1960년대 경성부와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해 폐지된 공동묘지 공간에는 일반주택지가 형성되었다. 공동묘지-염리묘지, 미아리제2묘지, 남가좌동묘지, 신사리묘지-는 1940년대와 1950년대 후반 이후 중산층과 각 시기에 나타난 수재민, 철거민을 수용기 위해 도시개발이 이루어진 것이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조성사업의 방식으로 일반주택지나 이주정착지로 개발되어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성시가지계획구역에 포함된 염리묘지 지역은 도시개발이 진행되며 일본의 계획가들이 의도한 바를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또한 서울 도시화과정에서 사람은 밀집하고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미아리제2묘지, 남가좌동묘지, 신사리묘지를 폐지시키고 일반주택지를 형성하였다. 표 6-3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들은 격자형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지역에 따라 블록 규모와 필지 규모 등이 결정되며 일반주택지로 개발되었다.

일반주택지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현저히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좁은 필지와 도로 폭의 도시가 형성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뉴타운지구에 신사리묘지를 제외한 세 지역이 선정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전환되었다. 이는 공동묘지 폐지 이후 공간 형성과정에서 밀도 계획의 실패로 인해 도시기반시설의 부족과 필지별 개발이 일어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주택지가 형성된 지역은 뉴타운 사업지로 선정되어 아파트단지로 대규모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묘지 공간계획은 기존 공동묘지 공간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나아가 현재 도시계획 방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찰하였다.

[표 6-3] 일반주택지 도시형태 (점선은 공동묘지 추정 지역)

	도시형태	블록규모	필지규모	도로 폭
염리묘지		100 × 40 m	75-115 ㎡	6 m
				3.5 m
		-	아파트단지 (아현 뉴타운지구)	-
미아리 제2묘지		100 × 50 m	130-170 ㎡	6 m
				3.5 m
		-	아파트단지 (길음 뉴타운지구)	-
남가좌동 묘지		95 × 50 m 75 × 25 m	125-140 ㎡ 170-210 ㎡	7 m
				4 m
		-	아파트단지 (가재울 뉴타운지구)	-

신사리묘지		70 × 25 m 80 × 16 m	100-120 m 165-200 ㎡	8 m 3.5 m
		-	-	-

제 2 절 서울 공동묘지 변화의 특수성

1. 묘지계획 부재로 인한 공동묘지 권역별 배치 해체

서울 공동묘지는 혼란기(1945-1961)를 거치며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혼란기는 1940년 묘지통제계획과 1949년 서울시역 확장의 영향으로 가장 많은 공동묘지-홍제묘지, 수철리묘지, 이태원제2묘지, 미아리제2묘지, 이문리묘지-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광복, 한국 전쟁, 4·19혁명과 5·16군사정변으로 행정이 마비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시는 묘지계획이 부재하였고, 새로운 공동묘지의 신설이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도시계획에 의해 다수의 공동묘지가 파편적으로 폐지되었지만, 독자적인 묘지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대체묘지가 신설되지 못한 것이다.

또한, 묘지계획 부재는 일제시기부터 유지된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 기조를 해체하기 시작하였다. 혼란기를 거치며 서울 남부지역에 위치한 공동묘지가 다수 폐지되고, 이는 서울 공동묘지 배치의 불균형으로 이어졌다. 이후 전환기에 행정이 복구되며 묘지계획이 새롭게 수립되면서 1963년 서울시역 확장 과정에서 서울 북부지역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경기도 지역에 대규모 공동묘지-용미리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

로 통폐합되었다. 하지만 서울 남부지역 공동묘지는 1970년대 강남 개발과정에서 대체묘지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서울 시영 공동묘지는 모두 서울 북쪽에 위치하고,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기조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림 6-2 참조)

[표 6-4] 일제시기 · 대한민국 정부시기의 묘지계획 차이

시기	정비에 관한 묘지계획	배치에 관한 묘지계획	내용
일제시기	묘지정리계획	방사형묘지계획 묘지통제계획	권역별 배치 기조를 유지한 채 공동묘지의 신설 및 확장이 이루어짐
대한민국 정부시기	묘지현대화계획	-	권역별 배치 기조를 유지하지 못한 채 파편적으로 공동묘지의 신설 및 확장이 이루어짐

2. 고급주택지 및 빈민주택지 형성

서울 공동묘지 폐지 이후 연구의 대상이 되는 10개 공동묘지 공간은 모두 주택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형성 시기, 거주민, 공간 형성 방식 등을 고려해보면 근대화 ·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주택지와 전혀 다른 공간이 형성되었다. 즉, 1930년대 · 1950년대 초에 폐지된 공동묘지는 고급주택지와 빈민주택지가 형성된 것이다.

주택지는 그 의도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형성되었는데, 하나는 공간계획사업을 통한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발생적인 공간 형성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토지를 불하하는 방식이었다. 우선 민간기업과 국영기

[표 6-5] 고급주택지 및 빈민주택지

공동묘지	공간형성 방식	공간형성 주체	공간계획	거주민	공간 형성시기
신당리묘지 (1929)	민간도시개발사업 (무학정 주택단지)	무학정토지경영회사 동양척식주식회사	고급주택지	일본인 상류층 조선인	193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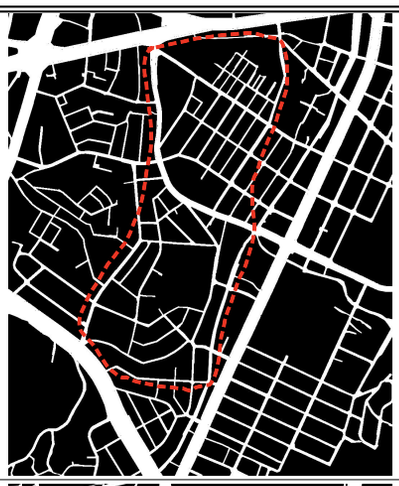
이태원제1묘지 (1937)	한남 토지구획정리사업	조선주택영단		일본인 상류층 조선인	1930년대
아현리묘지[1)] (1932)	토막민 집단 수용사업	화광교원	빈민주택지 (판자촌)	토막민	1930년대
동교리제1·2묘지 (1942)	자연발생 (토지 불하)	–		전재민·피난민	1950년대
연희묘지 (1942)	자연발생 (토지 불하)	–		전재민·피난민	1950년대
이태원제2묘지 (1950년대 초)	자연발생 (토지 불하)	–		전재민·피난민	1950년대

업의 주도로 폐지된 공동묘지는 공간계획을 통해 고급주택지로 전환되었다. 이 지역-신당리묘지와 이태원제1묘지-은 1930년대 일본인이나 상류층 조선인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신당리묘지는 민간개발사업이 진행되었고, 이태원제1묘지는 한남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이 형성된 것이다. 두 지역 모두 근대화·도시화과정에서 인구 밀집에 따른 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가 형성되었다기보다, 일제시기 권력집단(일본인)을 위한 고급주택지가 형성된 것이다. 다시 말해 공동묘지 공간이 권력집단을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활용된 것이다. 표 6-6을 보면, 이러한 지역은 격자형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등고에 따라 곡선형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필지가 일반주택지에 비해 대규모로 계획되며 지금까지 고급주택단지로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고급주택지의 독특한 특징은 지역 개발 과정에서 공동묘지 공간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신당리는 묘지 공간이 우선적으로 개발되었고, 이후 주변지역에 추가로 고급주택단지가 개발되었

1) 아현리묘지 시구개수사업에 의해 폐지되었지만, 도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후 도성 내 산재되어있는 토막민을 한 곳에 밀집시켜 통제하기 위한 공간 또는 경성부의 재원 부족으로 인한 토지 매각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용되었다. 그 결과 토막촌이 형성되었고, 이후 개별 필지별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형성된 빈민주택지의 거주민이 달라 빈민주택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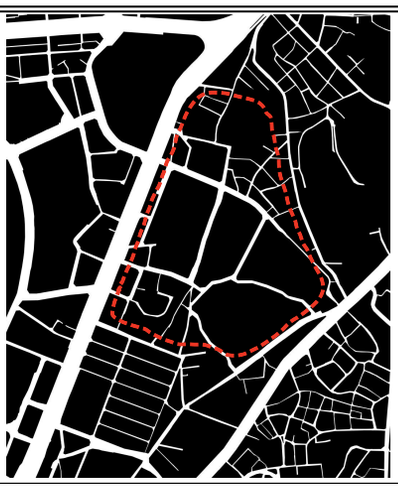
다. 이후 1940년대 신당 토지구획사업지로 선정되며 빈민촌이었던 신당리는 10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도시로 변모하였다. 공동묘지 폐지로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전원도시로의 입지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태원 또한 공동묘지 공간을 한남지구로 개발한 이후, 주변 지역에 외국인 주택단지, 대사관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 이미지가 새롭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 형성은 지금까지 서울의 부촌-청구동 주택단지와 한남동 단독주택지-으로 자리 잡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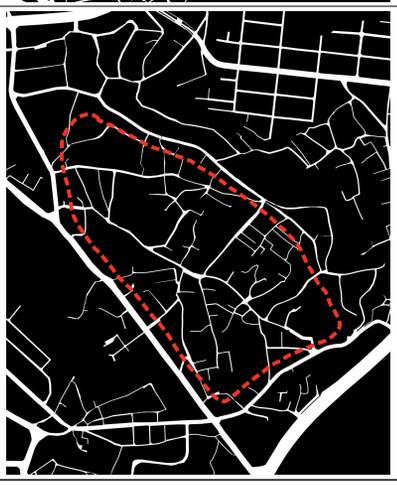
[표 6-6] 고급주택지 도시형태 (점선은 공동묘지 추정 지역)

	도시형태	블록규모	필지규모	도로 폭
신당리묘지 1929		80 × 30 m	120-170 ㎡ 235-250 ㎡	6-8 m
				4-6 m
		-	-	-
이태원 제1묘지 1937		65 × 25 m 곡선형태 부정형	160-180 ㎡ 390-425 ㎡	7.5 m
				4.5 m
		-	-	-

다음으로 일부 공동묘지-동교리묘지, 연희묘지, 이태원제2묘지-는 1950년대 한국 전쟁의 영향으로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다.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도시계획상의 이유로 폐지되었지만, 한국 전쟁의 발발로 공간계획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되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 새롭게 나타난 도시 빈민-전재민, 피난민-들이 공동묘지 위에 무허가 주택지를 형성하였고, 이후 서울시가 토지를 불하하는 방식으로 빈민주택지가 형성된 것이다. 빈민주택지는 공간형성 시기와 과정의 유사성으로 인해 비슷한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표 6-7을 보면, 유기적인 도시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소필지와 좁은 도로 폭이 밀집하여 자리 잡은 모습이다. 초기에는 필지 규모가 10평 내외였지만, 점점 증축 및 개축이 일어나면서 현재 60㎡ (약 18평)이상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 높은 건폐율을 유지한 도시 공간으로 남아있다.

[표 6-7] 빈민주택지 도시형태 (점선은 공동묘지 추정 지역)

	도시형태	블록규모	필지규모	도로 폭
아현리묘지 1932		-	65 - 95 ㎡ 140-155 ㎡	-
				3.5 m
		-	아파트단지 (공덕자이, 공덕레미안2차)	-

동교리묘지 1942		85 × 36 m	80-110 ㎥ 300-420 ㎥	10 m
				4 m
		–	90-110 ㎥ 200-280 ㎥	7 m
				3.5 m
연희묘지 1942		–	90-110 ㎥ 200-280 ㎥	7 m
				3.5 m
		–	–	–
이태원 제2묘지 1950년 전후		–	70-90 ㎥ 115-130 ㎥	6 m
				3 m
		–	아파트단지 (한남 뉴타운지구)	–

제 3 절 소결

본 장에서는 계획 및 제도와 공간 변화 분석을 통하여 공동묘지 폐지에 관한 결과를 고찰하였다. 이 과정은 크게 근대도시의 일반적 경향과 서울의 특수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절은 계획 및 제도에 대한 공동묘지의 변화 특성을 서술하고, 다음으로 공동묘지 공간 변화의 특성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근대도시의 일반적 경향은 도시계획을 통한 공동묘지 폐지, 묘지계획을 통한 대안 공동묘지 신설, 일반주택지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근대 이후 공동묘지가 효율적인 도시계획 및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기 시작하면서, 도시계획에 의해 폐지되었다. 하지만 묘지계획을 통해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와 양적 수요를 충족하는 등의 대안이 마련되었고, 경성부역 확장 과정에서 공동묘지는 권역별로 배치되었다. 이는 1914년 경성부 축소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까지 그 기조가 유지되었다. 또한 1940 · 1960년대 공동묘지 폐지 이후 일반주택지가 형성되었다. 도시화가 진행되며 공동묘지를 주택지로 전환하여 도시민의 주택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 공동묘지 변화의 특수성은 혼란기 묘지계획의 부재로 인한 공동묘지 권역별 배치 해체, 고급주택지 및 일반주택지 형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혼란기를 거치며 서울 행정능력이 마비되었고, 이는 묘지계획의 부재로 이어졌다. 가장 많은 공동묘지가 폐지된 시기에 묘지계획의 부재로 인하여 대체묘지를 형성하지 못하면서 공동묘지의 권역별 배치 기조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며 강남지역의 공동묘지가 대체묘지도 신설되지 못한 채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서울 시영 공동묘지는 경기 북부지역에만 위치하고 있다. 또한 1930 · 1950년대 공동묘지 폐지 이후 고급주택지와 빈민주택지가 형성되었다. 1930년대에 형성된 공간을 살펴보면, 공동묘지 폐지 이후 권력집단(일본인)을 위한 정치적 공간으로 이용되며 고급주택지가 계획되었다. 1950년대에 형성된 빈민주택지는 한국 전쟁으로 인해 도시빈민들이-전재민·피난민-공동묘지 위에 무허가 주택을 지은 결과였다. 이후 서울시에서 토지를 불하

하는 방식으로 피난민 · 전재민들이 정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직관적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사람은 밀집하고 공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공동묘지가 폐지된다는 결정론적 해석과 달리, 서울의 특수성이 공동묘지 부재 현상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고찰하였다. 다시 말해, 해외 근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서울 공동묘지 폐지는 일반적 경향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서울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현재 죽음의 공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는 여러 근대도시와 달리 일제시기와 한국 전쟁을 거친 서울의 독특한 도시사에 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제 7 장 종합 결론

제 1 절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서울 내 죽음의 공간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직관적으로 공동묘지의 폐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 밀집에 따른 공간의 부족으로 나타난 불가피한 결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근대도시의 공동묘지가 도시 내에 유지되며 산 자와 죽은 자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을 대비해보면,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 현상이 근대화 · 도시화의 결과라는 해석은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근대도시와 함께 나타난 공동묘지의 탄생 및 소멸 과정과 이후 공간 형성을 분석하여 공동묘지 폐지 원인을 고찰하였다. 특히 공동묘지가 위치한 지역의 고지도와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당시의 공동묘지가 어떻게 폐지되었고, 이후 어떠한 공간이 형성되었는지 그 특징과 변화를 연구하였다.

서울 공동묘지 폐지 현상은 근대도시의 일반적 경향과 더불어 특수성이 존재하였다. 근대화 · 도시화 과정에서 여러 근대도시의 집단묘지가 폐지되고, 도시 외곽지역에 공동묘지가 권역별로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서울도 마찬가지로 도시화 과정에서 다수의 북망산이 폐지되고, 공동묘지가 신설되었다. 또한 1940년대 · 1960년대 공간계획에 의해 공동묘지가 폐지되었다. 이는 인구밀집으로 인하여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공동묘지의 통폐합이 나타난 것이다. 이후 공간은 일반주택지가 형성되며 중산층을 위한 주거단지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1930년대 · 1960년대 공동묘지 폐지과정은 일반적 경향과 달리 서울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 1930년대 경성부는 일제시기 권력집단(일본인)을 위해 공동묘지를 폐지하고 고급주택지를 형성하였다. 공동묘지는 대단위 면적 · 국유지라는 특징을 가진 공간으로 개발이 용이하여 도시발전의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다. 또한 1950년대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재민, 피난민이 급증하여 공동묘지 위에 빈민주택지를 형성하였다. 이후 국가는 토지를

불하하면서 공동묘지는 자연스럽게 폐지되었다. 특히 이 혼란기(1945-1961)에 서울시 행정능력이 마비되며 인구 변화에 따른 공동묘지 면적을 가감하거나, 권역별 배치를 담당하는 묘지계획의 부재로 이어졌다. 그 결과 서울 공동묘지가 폐지되었지만, 대체 묘지가 신설되지 못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시영 공동묘지가 경기 북부지역에만 위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서울 공동묘지 부재 현상은 근대화 과정에서 도시화 과정에 따른 일반적 경향 이외에, 서울의 특수성인 식민지기와 한국 전쟁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이다.

다양한 시기, 주체, 거주민에 의한 공동묘지 폐지 현상은 지금까지 서울 도시 형태에 그 유산으로 뚜렷하게 남아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반주택지, 고급주택지와 빈민주택지의 도시 형태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산층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주택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또는 택지조성사업 방식을 통해 격자형 도시구조를 형성하였고, 유사한 필지 규모와 도로 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 지역은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하여 고밀의 저층주거단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 대부분 지역이 뉴타운지구로 선정되며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다시 한 번 전환되었다. 이와 달리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고급주택지는 권력집단이 꿈꾸는 전원도시의 모습으로 일반주택지에 비해 필지 규모가 넓은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한남동과 신당동 및 창천동 단독주택지는 서울 최고의 부촌으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빈민주택지는 전재민과 피난민들이 공동묘지 위에 집을 지었고, 서울시가 토지를 불하하는 방식으로 도시가 형성되었고, 도로 폭이 좁으며 유기적인 도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공동묘지 폐지 이후 여러 방식으로 새로운 공간이 생산되며 공동묘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다층적인 모습으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본 논문은 근대화 · 도시화 과정에서 일반적 경향에 따라 공동묘지의 폐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측면과 함께, 식민지와 한국 전쟁이라는 서울의 특수성이 현재 공동묘지 부재현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고찰하였다. 나아가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 현상은 독특한 근대화

과정과 함께 나타난 결과이자 서울 도시사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본 논문은 공동묘지의 계획 및 제도와 공간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서울 공동묘지 부재의 원인을 설명하였다. 근대도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동묘지는 도시계획과 묘지계획에 의해 탄생 및 소멸되었다. 이후 공동묘지는 시기, 공간 형성 주체, 거주민, 입지 등에 따라 다양한 공간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여러 근대도시와 달리 식민지기와 한국 전쟁은 현재 서울 공동묘지의 부재 현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 과정에서 서울 공동묘지의 반복적인 폐지 및 이장으로 인해 산 자와 죽은 자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죽음의 공간은 혐오시설로 자리 잡으며 도시 밖을 추방되었고, 지금까지 산 자들만 거주하는 도시로 전환되었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묘지계획에 대응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2012년부터 5년마다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양적 측면에 국한되어 있다. 또한 도시계획과 긴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서 산 자와 죽은 자의 공존이 아니라 죽은 자의 처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서울 근대화 과정을 보여주는 매체로 공동묘지를 설정하고, 공동묘지의 폐지과정과 이후 공간의 변천을 추적하여 공동묘지가 서울의 도시화에 어떠한 구성력을 갖게 되었는지 분석하였다. 근대도시와 함께 발명된 공동묘지라는 렌즈를 통해 서울의 독특한 근대화 과정을 탐색하는 새로운 시각을 검토하고, 우리가 경험한 근대성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동묘지의 폐지가 도시화에 의한 일방적 결과라는 결정론적 해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독특한 근대사의 특징을 반영한 결과라는 사실을 밝혔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

다. 또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서울 공동묘지의 명멸과 폐지 원인을 고찰한 최초의 연구로서 그 가치가 있다.

물론 도시와 묘지는 방대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고, 문헌자료 뿐만 아니라 정성적, 정량적 연구를 통해 공동묘지 폐지의 원인을 다각도로 고찰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특히 도시 내 생자와 사자 관계의 관점에서 일제시기와 한국 전쟁으로 인한 공동묘지 폐지는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산업화가 진행되며 공간생산 과정이 용이해진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공동묘지의 폐지에 대한 해석 및 평가는 향후 과제로 남기기로 하겠다. 또한 부분적인 자료부족으로 인하여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로 밝힌다. 그럼에도 본 논문은 도시계획과 묘지계획이 공동묘지의 명멸에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미래 서울의 도시계획 과정에서 죽음의 공간 가치를 역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도시계획을 새롭게 조명하는 시각을 정립하고, 죽음의 공간을 통해 새로운 도시계획으로 나가는데 기틀을 형성함에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

참 고 문 헌(16pt)

단행본

- 국가기록원 2010,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 : 토목편』, 국가기록원
- 김열규 2001,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서울, 궁리
- 김태복 1992, 『도시와 묘지』, 근화
- 박태호 2003, 『서울 葬墓施設 100年史』, 서울, 한국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
- 박태호 2005, 『세계묘지문화기행 : 박태호의 장묘문화탐방』, 서울, 서해문집
- 서울역사박물관 2008, 『보광동』,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09, 『가재울 : 그리운 가재울』,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0, 『길음동』, 서울, 서울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0, 『언덕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현·염리 : 아현일대 공간구성과 도시민의 생활사』,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0, 『이태원 : 공간과 삶』,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8, 『(청년문화의 개척지) 신촌』,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박물관 2018, 『홍대 앞 : 서울의 문화발전소』, 서울,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역사편찬원 2016, 『(국역) 경성도시계획조사서』,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 서울특별시 2014, 『(국역) 경성부사』, 서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2017, 『서울 도시계획 연혁』, 서울, 서울특별시
- 손정목 2003,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 : 서울 격동의 50년과 나의 증언』, 서울, 한울
- 송현동 2012, 『서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삶』, 서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 염복규 2016,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 1910-1945 도시계획으로 본 경성의 역사』, 서울, 이데아
- 이경아 2019, 『경성의 주택지 : 인구 폭증시대 경성의 주택지 개발』, 서울, 집
- 이상배, 김웅호, 김상은 2018, 『6·25전쟁과 1950년대 서울의 사회변동』, 서울, 서울역사편찬원
- 임석재 2003, 『기독교와 인간』, 파주, 북하우스
- 청계천박물관 2018, 『남소문동천 : 장충단에서 이간수문으로 흐르는 물길』, 서울, 청계천박물관

- Barley, N. 고양성 옮김 2001. 『죽음의 얼굴 : 원시문화에서 현대문명까지 죽음을 통해 본 인류의 문화』, 서울, 예문
- Bourdaret, Emile, 정진국 옮김 2009, 『대한제국 최후의 숨결』, 파주, 글항아리
- Calvino, I, 이현경 옮김 2007, 『보이지 않는 도시들』, 서울, 민음사
- Gelezeau, V, 길혜연 옮김 2007, 『아파트 공화국 : 프랑스 지리학자가 본 한국의 아파트』, 서울, 후마니타스
- Kagan, S, 박세연 옮김 2012, 『죽음이란 무엇인가 :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서울, 북큐브네트웍스
- Lefebvre, H. 양영란 옮김 2011. 『공간의 생산』. 서울, 에코리브르
- Blanche Linden-Ward 2016, 『Silent city on a hill : Landscapes of Memory and Boston's Mount Auburn Cemetery』, Ohio,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Parker Pearson, M, 이희준 옮김 2009, 『죽음의 고고학』, 서울, 사회평론
- Scott, J, C, 전상인 옮김 2010,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서울, 에코리브르

학위논문

- 기세호 2017, 「근대화로 인한 묘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태 2020,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노수동 2015, 「도시 묘지공원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이용 활성화 전략 : 망우 묘지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염복규 2001, 「1930~40년대 京城市街地計劃의 전개와 성격」,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주영 2014, 「근대적 발명품으로서의 도시공원」,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학술논문

- 강정원 · 이도정, 2017, 「무연고묘와 죽음권」, 서울민속학회(4): 7-51

- 기세호 2018, 「근대화로 인한 묘지와 도시 사이의 거리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4(5): 97-108
- 김기호 1995, 「일제시대 초기의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경성부 시구개정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6: 41-44
- 김시덕 2001, 「가정의례준칙이 현행 상례에 미친 영향」, 역사민속학(12): 81-107
- 김종희 2014, 「건전가정의례준칙 변화 연구」, 차문화산업학 25: 21-42
- 김주야 · 石田潤一郎 2009, 「경성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 식민도시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5(4): 169-178
- 김현아 2018, 「페르라쉐즈 묘지 - 프랑스 문화예술과 역사적 보고」, 프랑스학연구(83): 287-308
- 김희식 2011, 「동소문 밖의 사람들」, 로컬리티 인문학(6): 91-130
- 다카무라 료헤이 2000, 「공동묘지를 통해서 본 식민지시대 서울」, 서울학연구(15): 131-165
- 박진한 2016, 「인천의 일본인 묘지 부지 이전과 일본식 시가지 확장 과정-1883년 제물포 개항부터 1910년 한일병합 이전까지」, 인천학연구 1(24): 7-42
- 서일웅 · 박경환 2014, 「한국 근대 죽음경관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개입」, 문화역사지리 26(3): 93-116
- 송현동 2002, 「근대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14(14): 197-224
- 송현동 2003, 「현대 한국 장례의 변화와 그 사회적 의미」, 종교연구 32: 289-314
- 송현동 2004, 「의례와 사회변화」 종교연구 35: 313-338
- 송현동 2005,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태도」. 비교문화연구 제11집2호
- 안상민 · 이시다 준이치로 · 김주야 2019, 「1940년대 방공 계획을 중심으로 한 서울(경성)의 도시 개조에 관한 연구」, 서울학연구(77): 111-148
- 안창모 2005, 「해방이후 서울의 도시계획과 도시건축의 변화」, 도시지역학총서 :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1: 49-101
- 염복규 2001, 「1933~43 년 일제의 " 경성시가지계획」, 한국사론 46: 233
- 이경아 · 전봉희 2006, 「1920~30년대 경성부의 문화주택지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22(3): 191-200

- 이숙미 · 오충현 2008, 「경관문화,재료 : 일제 강점기 서울지역 장묘시설 연구」, 한국조경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8: 32
- 이은경 2014, 「근대 일본 공원묘지의 탄생 — 도쿄 다마영원(多磨靈園)의 이념 · 활용 · 변질」, 동양사학연구(127): 341-378
- 이향아 2014, 「공동묘지, 식민지 경성을 잉태하다」, 한국공간환경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47-357
- 임승빈 1996, 「현대 도시공원의 창시자 옴스테드」, 국토정보: 58-63
- 장성곤 · 강동진 2018, 「소록도 100년의 변천과정과 특성 도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19(4): 105-123
- 정일영 2013, 「일제시기 장묘제도 변화의 의미 - <묘지규칙>과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25): 73-114
- 정일영 2016, 「일제 식민지기 사자(死者)공간의 배치와 이미지 형성 -공동묘지와 화장장을 중심으로」, 사림(성대사림) 57: 193
- 조덕용 · 임이택 2009, 「대한민국 장묘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지 11(1): 127-142
- 최상철, 박세훈, 이희정, 조주현, 이주원 2015, 「광복 70주년 특집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변천사」, 도시정보: 3-32
- 호소연 2018, 「메이지 시기 묘지 제도와 위생」, 일본역사연구 48: 293-324

사진, 지도 및 기타

-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
-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https://nl.go.kr/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서울기록원, https://archives.seoul.go.kr/
- 서울역사박물관, https://museum.seoul.go.kr/
-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opengov.seoul.go.kr/
- 조선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chosun.com/
-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
- 경성부전도, 1914, 서울역사박물관
- 최신서울특별시전도, 1964, 서울역사박물관
- 개정서울특별시전도, 1974,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가지도, 1950년대 중반, 서울역사박물관
- 새서울약도, 1970,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특별시지도, 1957, 서울역사박물관
- 조선교통지도, 1924, 서울역사박물관
- 입지번입최신서울특별시지도, 1968, 서울역사박물관
- 대경성전도, 1936, 서울역사박물관
- 경성도, 1922, 서울역사박물관
- 대경성명세도, 1940, 서울역사박물관

신문 자료 및 기타

- 대경성명세도, 1940, 서울역사박물관
- 일간지 : 『경성일보』,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매일신보』, 『연합신문』, 『자유신문』, 『조선일보』, 『중외일보』, 『한성일보』
- 월간지 : 『경성휘보』

Abstract

Rise and Fall of the Seoul Public Cemeteries in the Modern Urban Planning Process

Euisung Lee
Interdisciplinary Program Urban Desig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eath is the root of individual and social establishment, and the place of death organizes memories of the dead as a place where the living and the dead face each other. The place of death has been closely related to human living conditions as civilization and times change. Therefore, understanding the place of death becomes a keyword that can read out the social and cultural attitudes of the time. In the pre-modern society, the cemetery has become a central place for the city in combination with religious power. In other words, the living and the dead coexisted harmoniously in the pre-modern city. However, as

rapid urbanization and population proliferated due to industrialization in the 19th century, the city became a hotbed of problems such as housing shortage, and deterioration of life quality. In particular, the pre-modern history society's collective cemetery was pointed out as the source of the epidemic, and it demanded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the cemetery. As a result, many church cemeteries, combined with religious power, were abolished, and some cemeteries were converted into state-controlled cemeteries. In other words, cemetery, a modern death space, was invented. The location of public cemeteries is mainly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creating a different relationship with the pre-modern city. However, as modernization progressed, the city expanded, and the cemeteries located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were incorporated into the city. In this process, several modern cities formed relationship with cemetery in their own ways, instead of relocating cemetery to the outskirts of the city. The cemetery in Paris was established as a repository of history and art, and the cemetery in Boston was established as a park cemetery and a public space for urban people. The cemetery in Tokyo was incorporated into the urban structure and served as a living and urban garden. However, in Seoul, all but Manguri Cemetery were abolished, and no new relationship was established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As a result, Seoul so far has been maintained as a city with no death space.

Intuitively, the abolition of public cemeteries can be understood as a phenomenon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people and lack of space in the urbanization process. Similarly, many cemeteries were abolished in overseas cities, but some cemeteries were maintained in the city, creating a new relationship between the living and the dead with the former modern society. However,

the biggest chang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Seoul is that all the cemeteries in the city have been closed except for Manguri Cemetery. This is a common phenomenon in many cities, indicating that the absence of Seoul cemetery cannot be explained. Therefore, this study, which began with the question, "How did the cemetery disappear?" aim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abolition, by analyzing the rise and fall of the cemetery in the process of modern urban planning. That is to say, the main intent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estruction of the cemetery, to examine the peculiarity of the modernization process of Seoul, which is different from many modern cities.

The time rang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1912 when the cemetery rules were promulgated, and 1970 when the Sinsari Cemetery was last abolished.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by time period, according to the changes in urban planning, as the cemeteries were expected to disappear and the space created were different in time.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Gyeongseong-bu, where 23 cemeteries are located, and Gyeongseong-Obu, the surrounding area of the jurisdiction. Chapter 4 examined changes in cemetery planning and system, and Chapter 5 analyzed changes in cemetery space in 10 out of 23 cemeteries. The selection of 10 cemeteries was carried out by selecting two cemeteries with large area and large number of graves for each time peri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rocess of abolishing the cemetery, we were able to find the particularity of Seoul along with the general situation of modern cities. First of all, the general trend was to abolish the cemetery under urban planning. Unlike the pre-modern city, the modern city was determined to passively survive and close the cemetery, which was a death space,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space. In other words, the

cemeteries included in the urban planning zones of Gyeongseong and Seoul were abolished one after another. Specifically, cemeteries in the East-West region in the 1920s, the Gyeongseong City Planning Zone in the 1930s and 1940s, the areas severely damaged by the Korean War in the 1950s, and the northern areas due to western development in the 19160s were abolished. This led to the abolition of cemeteries contained within the city, which always resulted in the location of cemeteries in the outer areas of the city. Second, in the process of repeating the rise and fall of the cemetery, the regional layout was maintai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e abolition of the cemetery was decided by urban planning, but a new cemetery was established in the outer-skirts of the city to maintain the total area and regional layout through the cemetery plan. The regional layout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hich are also important in the modern urban planning process, was implemented. Third, the cemeteries, which were abolished in the 1940s and 1960s, were formed through land compartmentalization and readjustment projects or housing area development projects. In order to solve the population congestion caused by urbanization, the cemetery was abolished and housing areas for the middle class were formed. These three results can be seen as the general trend of the abolition of cemeteries in modern cities. But at the same time, we discovered the distinctiveness of Seoul. First, during the period of chaos due to the Korean War,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 the absence of a cemetery plan occurred. In the process, many cemeteries were abolished, but no alternative cemeteries were established to compensate for the shortage of cemeteries. This marked the beginning of the dismantlement of the regional layout of the cemetery in Seoul. Second, the cemeteries, which were

abolished in the 1930s and 1950s, were developed into high-end housing and poor housing areas. This shows a different trend from ordinary residential areas produced due to urbanization. The high-end residential area was formed as a city plan for the Japanes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cemetery became a political space which was used to create demand for the power groups. In addition, the poor housing map was formed by the war victims and refugees, who appeared as urban poor through the Korean War, building shacks on the cemetery. Afterward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cepted the land in a way that allowed them to live, and the cemetery was converted into a residential area. This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Seoul's unique histo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The general trend and specialty of abolishing the cemetery in Seoul remain a heritage of the city's form. General residential areas for the middle class formed a grid-type urban form as planned cities. However, due to the low-income level at the time, the city was planned with a narrow land size and road width, and as a result, three areas, excluding Sinsari Cemetery, were selected as New Town districts in the 2000s and converted into large apartment complexes. Hannam-dong, Sindang-dong, and Cheonggu-dong, where high-end residential areas are located, have been maintained by forming large-scale land and grid-type cities, and have been established as rich villages in Seoul until now. In addition, slum residential areas are naturally formed cities, showing organic urban forms and forming low-rise, dense residential complexes.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the cemetery has been transformed into a residential area in various ways, and its impact has continued to this day.

The absence of a cemetery in Seoul should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unique modernization process and a compressed demonstration of the city's history. That is to say,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urbanization, the abolition of cemeteries was naturally achieved according to the general trend, and the particularity of Seoul as a colony and the Korean War contributed to the absence of cemeteries. The repeated abolition of the cemetery has prevented the living and the dead from forming a new relationship in Seoul, and has so far established the death space as an abomination facility.

In this paper, the cemetery was incorporated as a medium to show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Seoul, and the process of abolishing the cemetery and the changes in space were tracked to analyze how the cemetery became an urbanization in Seoul. It is meaningful in that it reviewed the new perspective of exploring the unique modernization process of Seoul through the lens of the modern space, and revealed that the abolition of cemeteries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unique modern history, away from the deterministic interpretation that it is a one-sided by urbanization. It was also intended to emphasize the value of death space in the future Seoul city planning process by looking at the impact of urban planning and cemetery planning on the destruction of the cemetery. Through this, there is an implication of research that establishes a new perspective on urban planning and forms the foundation for moving forward with new urban planning.

keywords : Cemetery, Death Space, Urbanization, Modernization, Urban Planning, Cemetery Planning

Student Number : 2019-26614